



6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6호

(루계 500)



◇◇◇◇◇◇◇◇◇◇

차 례

◇◇◇◇◇◇◇◇◇◇

| | |
|--|----|
| 《조선문학》 500 호에 부치여 | 4 |
| 수령님과 용해공들 | 5 |
| 인민의 아버지 | 6 |
| 그날의 불길이어 | 12 |
| 만민의 축원 안고 천만년 만발하리 | 12 |
| 릉라다리 | 13 |
| 고요 | 19 |
|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며 | 20 |
|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노라 | 20 |
| 이 땅에 흐르는 시간 | 21 |
| 나를 찾는 소리 | 22 |
|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주체문학 | 23 |
| 사랑하는 조국 | 32 |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6) | 34 |
| 심장으로 쓴 글 | 35 |
| 겨울의 백두산으로 | 36 |
| 인민의 정일봉 | 37 |
| 어머니조국이여 | 38 |
| 나는 너를 떠날수 없다 | 38 |
| 나는 아직 푸르다 | 39 |
|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 40 |

| | |
|----------------------------------|----|
| 아름다운 인정세계에 대한 감동적인 가사 | 40 |
| 인생과 대 | 42 |
| 봄의 발자취 | 43 |
| 값높은 창조 | 49 |
| 나의 한생과 잡지 《조선문학》 | 50 |
| 추억의 갈피에서 | 51 |
| 해외에서 《조선문학》을 받아안았던 때를 회상하여 | 55 |
| 영광의 로정 | 56 |
| 사랑은 해발처럼 | 59 |
| 끝나지 않은 시 | 67 |
| 단상 몇가지 | 68 |
| 대장부 | 71 |
| 나는 언제면 철이 드는가 | 78 |

《조선문학》 500 호에 부치여

신진순

세월은 얼마나 흘러갔는가
이 가슴에 그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 채워주며

마음속에 차고넘친
기쁨의 샘에 찍어
걸음걸음 내려치는
희망과 환희를 담아
행복을 노래하고
정의를 웨치는 시대의 가수로
조국은 얼마나 열정의 나날로
나를 이끌어주었던가

한생을 함께 하는
불을 조용히 멈추고
다시금 한장한장 번지노라
500 호에 이르는
《조선문학》의 갈피갈피를

일제의 조선문화 말살정책을
가서버린 폐허우에서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몸소 펼쳐주신
그 영광의 첫페이지로부터
년년이 자랑차게 수놓아온
500 호!

항일의 가렬처절한 나날로부터
손수 쓰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
그 귀중한 재부의 터전우에
조선의 문학을 높이 일으켜세워주신
그날의 그 영상 우러러
아, 뜨거운 이슬 감추지 못하는 이 마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침략자의 두무릎을 꿇게 하시고
투쟁과 건설의 백열전 이끄시여
우리모두를 손잡아이끄시던 나날

베푸시는 사랑

안겨주신 믿음은 그대로 시와 소설로
세기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

세월은 얼마나
보람차게 흘러갔는가
세월은 또 얼마나
희망차게 흘러갈것인가

주체의 녀
민족의 의지
그대로 우리 문학의 갈피갈피에
영원히 깃들게 해주신 향도의 빛발
수령님의 그 위업 빛내며
만대에 불멸할 노래를 안겨주신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한자한자
갈피갈피에 깃들어있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믿음
영생하는 주체문학의 숨결도
그 손길 그 빛발속에 이어지나니

생각하는 사이에
다시금 심장에 불타는 맹세
그 사랑 그 믿음 안고
민족의 녀 주체의 신념으로
5천호, 5만호로 이어갈 그 충성을 담아

아 영광을 드리노라
축하를 드리노라
주체문학건설의 위대한 태양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께!
조선문학의 찬란한 터전우에
영원한 해빛을 뿌려주시는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께!

수령님과 용해공들

김재원

풀색 군복차림으로
백두에서 돌아오신
우리 수령님
그날... 고향길 지나시여
왜 먼저 강선으로 가시였던가

거기에 그 누구
친척이 계시었던가
아니면 그 누구 간절히
오시길 기다리고있었던가

다 마사진 전기로
뿔뿔이 흩어져가는 노동자들...
거기엔 정다운 출강종소리도
그 시절엔
아름다운 쇠물빛 노을도 없었다

하어서도 우리 수령님
강선을 먼저 찾으시였어라
백두의 혈전만리
피젖은 기폭에 짜안고 온 조국!
철이 있어야 첫걸음 떼고
철이 있어야 나래칠수 있었기에

오로지 한평생
조국만을 생각하시고
한평생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

고향집 먼저 고향집 먼저
용해공들을 찾으셨으니
용해공들 어찌
처음 뵈옵는 장군님을

친어버리로 효성다해 따르지 않았으랴

한 가정의 주인노릇도
변변히 못하던 노동하는 인간들을
나라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실제
아, 용해공들 가슴에 안은것 무엇이었던가

혈육보다 더 큰 믿음
친척보다 더 큰 의리로
쇠물폭포는 강산에 지동쳤고
새 조선, 새 인간의 노래
하늘가에 메아리쳤나니

기쁨을 나누실 때도
항시 인민과 함께
시련을 헤치실 때도
홍금을 터놓으시고
언제나 인민과 함께

그것이
우리 수령님 간직하신
한평생의 신조!
그것이 우리 수령님
한평생 지켜가시는
혁명의 좌우명!

그것으로 하여 그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처럼 혈육이 많으신분
세상에 있던가
그것으로 하여 나의 조국 조선은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없이
일심단결로
공산주의 해마중을 가노라!

인민의 아버지

오영재

1

어제날엔 사인장
오늘은 평성
거기서 교외로 5리 상거한곳에
삼화리라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밋밋하게 흘러내린 야산
남향의 양지바른 기슭에
수십가옥 초가집마을이 자리잡고있던곳
40년 세월이 흘러
전쟁도 겪고 집들도 새로 지어
마을은 다른곳에 옮겨졌건만

한채의 살림집과
그때의 민주선전실만은
이날까지 고이 세워두고
못잊을 그날의 추억을 불러주더라

하여 지나가던 길손들도 발걸음 멈춰
즐거 이 집들을 돌아보고
이 나라의 먼곳에서도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몰아
이곳을 찾아보는 사람 많아라

전쟁전에 이 살림집에 살던
로인 한분
세상을 떠난지도 이미 오래고
로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란
그 시절에 이 마을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
그들도 이제는 예순이 넘었고
그것도 지금은 한두사람 찾아볼수 있을뿐

하나 그 로인이 남기고간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워
전쟁의 포화속에도 묻히지 않았고
흩어지고 모이며 사람들이 바뀌는
그속에서도 고이 전해와
번거롭던 세월도 지울수 없었으니

40년대에 있었던 그 일을
오늘은 60년대에 태어난 애젊은 처녀강사가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쟁쟁한 목소리로 그 사연 전하고있어라

2

제2차 당대회가 있는 그 이듬해
1949년 정월도 새해벽두부터
우리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려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날엔 30대의 우리 수령님

덕산리의 원동부락을 거치시여
여기 삼화마을을 찾으셨을 땐
하얗게 덮인 눈우에
해빛이 류달리 눈부신 오후였다

마을은 고요하고
얼음이 흘러내린 우물가에서
한가로이 물을 걷는 한두명의 아낙네들
이 마을을 찾아오는 낯선 손님들을
먼발치에서 레사로이 바라보며
동이에 물을 채우고있어라

이 마을 당원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먼저 찾아야 할 리세포위원장의 집
그 집을 물어보시려
행길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집으로
수령님께서서는 들어서시여라

때마침 바깥채의 문가에서
명석을 틀고있던 김로인
뜻밖에도 수령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제눈을 의심하고
다음엔 드디어 장군님이심을 알아본 순간
몸둘바를 몰라라

수령님의 눈앞에 비껴오는
이 집의 모습은
간신히 엿혀있는 찌그러진 서까래
덧종이를 바르고 바른
누렇게 색이 바랜 창호지문

여겨보시는 김로인의 정상은
토스레웃에
날이 굵은 짙신발
고랑처럼 깊이 패인 이마의 주름
뚝살이 박히고 살가시돋은 손마디

가난한 이 집

머슴살이로 보냈을 로인의 한평생
저으기 측은하신 눈길로
한동안 말썽없이 서계시던 수령님
그 가난이 죄인듯
머슴살이 한생이 창피스러운듯
반쯤 허리를 굽힌채
아래로 눈을 깔고 서있는 로인

그 무엇인가 문득 생각이 미친듯
로인은 발밑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벼짚검불을 거두려
헤뭇비며 갈퀴손을 하고 땅을 허비는데
그이께선 급히 팔을 잡아 말리시여라
《젊은 사람앞에서
로인님이 왜 이러십니까
일을 벌려놓으면
사방이 어지러워지기 마련인데...》

바람벽가엔
차곡차곡 말아 쌓아놓은 명석들
왜 이렇게도 많이 명석을 마련했는가
수령님 정겹게 물으시는 말에
로인은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띄워라
《제 땅에서 제 낱알을 털어 말리우는데
명석이야 많이 못들어놓겠습니까》

더 지체할수 없으신
바쁜 시간이어서
이제 찾아야 할 집을 묻고
로인의 안내로 세포위원장을 만나
그날밤 당원들의 학습회를 지도하신 수령님

가스등 밝게 켜놓은
마을의 새 민주선전실에서
당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토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개혁이 왜 좋은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차근차근 일깨워주시고

한 녀성당원을 일으켜세우시어서는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벼에 붙인 구호도 읽어보라 하시며
당원은 누구보다 학습을 잘해야 한다고
알아야 앞을 내다볼수 있다고
어둡던 눈들을 밝게 퇴워주시여라

학습회의 지도를 마치시고
수령님 선전실의 문밖에 나서시었을 땐
삼화마을에
어둠은 짙게도 내려덮이고

찬바람 이는 하늘에서는
별들도 추위에 떨고있었어라

떠나려는 차를 에워싸고
저녁 한끼나마 대접해올리고싶은
마을사람들의 청은 간절했던만
그이는 웃으시며 말리시여라
많은 일이 평양에서 기다리고있는
그 사정도 있으시련만
그보다도 마을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것이 더 미안하시여

래년에 꼭 다시 오시겠노라
서운해하는 마음들을 달래이시며
이렇게 그이 타신 승용차는
평양을 향해
100여리 밤길 떠나셨어라

3

고르로이 발동을 올리며
달리는 승용차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그이께선 이 하루 현지도의 길을
조용히 더듬어보고계시여라

해방의 감격을 안고
환희로이 약진하는 조국
4년이라는 짧은 그 세월에
생활도 사람도 얼마나 달라졌는가

당조직의 초급일꾼들이
이제는 회의록도 잘 갖출줄 알고
분공도 학습도 잘하고있다
당을 창건한 그때로부터
우리의 당원수는 얼마나 늘어난것인가

한뼘 지주놈의 부엌데기로
제 이름 석자도 못쓰던 녀성들이
우리 글을 마음대로 읽고 쓰고
머슴으로 굴욕스런 생활에만 시달리던 사람들이
찾아야 할 공민의 권리를 알고
건국에 몸바칠 결의들을 다지고있다

그이의 눈앞엔 떠올라라
원동부락 어느 농가집의 밥가마를 열어보셨을 때
하얀 꽃그릇에
이밥이 무독히 담겨져있었음을
마당마다 높이 쌓아놓은 벼넋가리들
고간에 차있는 쌀가마니들

장군님 고맙다고

뵈오니 기뻐서 눈물이 난다고
웃고름을 눈가에 가져가고
고역에 진 주름속에 눈물이 빛나던
어질고 순박한 우리 인민들

시래기국이라도 푸짐히 끓이라고
점심준비로 내놓으신 돈
뜻깊은 점심상을 가운데 놓고
한가족처럼 두리상에 마주앉을 때
받으시는 대접보다도
이제는 퍼그나 잘살게 된
인민의 생활이 얼마나 큰 기쁨이시었던가

장군님의 술잔을
내가 먼저 받으면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고
굳이 사양하던 로인들
이 좋은 세월에 오래 살아
장군님의 정치를 받들겠노라고
울먹이며 더듬거리는 그 진심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시던 수령님
삼화리의 첫집에서 만난
김로인의 모습에 이르시자
즐거운 꿈에서 깨어나신듯
등받이에서 몸을 떼시여라

머슴살이 한평생
너무도 쪼들리며 산 탓에
그 마을에서 제일 살림이 못퍼인 로인
허리굽혀 갈퀴손을 지어 검불을 거둘 때
잔등에 드러나던 검붉은 맨살

시간이 바쁘시여
오래 이야기도 나누시지 못하고
문가에 섰다가
돌아나온 집

차가 멀리 달리고 달릴수록
촉은하게 안겨오는 로인의 모습
살림형편도 더 알아보고
살아갈 방도도 의논해주며
단 몇분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
로인의 괴롭았던 가슴에
앞날의 희망을 안겨주며
더 따뜻이 어루만져주지 못했던가

제일 못살고
집마저 초라하니
나라의 수상도 들어올 생각을 안하고
문밖에 섰다가 돌아갔다고
로인은 얼마나 서운해할것인가

그 많은 얼굴들을 더듬어가지던 그이
그만 김로인의 모습우에 머무르신채
좀체로 지나칠줄 모르시고
아, 가슴 피로워하셔라

만약 그 누가
그 시각 가슴에 맺혀 내려갈줄 모르는
그이 생각을 헤아릴수 있었다면
서슴없이 말씀 올리리

-수령님
너무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수령님께서 제집까지 찾아오신
그것만으로도
로인은 너무도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오늘밤 잠들지 못할것입니다

20 성상 남모르는 고생끝에
일제를 쳐물리치시고
이 땅에 가져다주신 해방의 기쁨과
땅을 주시고 민주개혁을 실시해주신
크나큰 그 혜택으로
수령님은 벌써
민족의 가슴을 다 어루만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시각 한초가 귀중하신분이
어찌 한 농가집에 오래 머물러계실수 있겠습니까
인민이 오히려 송구해하며
그러하신 수령님앞에 몸둘바를 모를 그 심정인데
어찌하여 한 로인을 두고 생각이 벗어선채
그리도 가슴을 무겁게 태우고계십니까

허나 그 누가 그 어떤 말씀을 올린들
수령님의 그 마음 가볍게 헤드릴수 있으랴
빛아닌 마음의 《빛》을
스스로 걸머지신 수령님
한나라 령도자의 자리를 떠나
이 시각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의 정과 도덕의 세계에서
자책의 아픔을 체험하고계시여라

승용차의 차창엔
현지도에서 돌아오시는 그이를 반기는듯
평양시가의 불빛이 저 멀리 비쳐오는데
그이께선 운전수의 어깨를 조용히 다치시여라
《차를 세우시오》

영문을 모르고
수령님을 우러르는 운전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이는 부탁하셔라

《수고스럽지만
삼화리로 다시 가야 되겠소
내 다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소》

이렇게 돌려진 차머리
달려온 그 길을
돌아서 다시 가는 밤길 100여리
단 몇분을 더 계셔주지 못하신
그것으로 하여
몇마디의 따뜻한 말씀을 더 해주지 못하신
그것으로 하여
다시 돌린 수령님의 차머리

향해가는 그곳이
다만 김로인의 집만이었던가
아니여라
돌려진 그 차머리는
인민의 마음속으로 언제나 향해있는
가장 뜨거운 심장이 가리킨곳이여라

4

평양-사인장의 길이
지금처럼 탄탄한 포장도로길이 아니어서
오랜시간을 달려서야
삼화리마을에 다시 이르신 수령님

초저녁이면 잠드는 농촌
밤도 퍼그나 깊었건만
삼화리의 등잔불들은 꺼질줄 몰라라
꿈에도 그리던 장군님과
무릎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어찌 누워도 잠이 올수 있었던가

그 불빛을 멀리서 바라보신 수령님
차를 세우시며 말씀하시여라
《더 가지 맙시다
차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나올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미안합니다》

마을까지는 한참 가야 할 길을
수령님께서는 걸어서 가실 생각
그런데 부관도 운전수도 안타까운것은
수령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실것인가
아직도 저녁전이신데

마을에 저녁식사를 부탁해야 할것인가
김로인의 집에서 서둘러 밥을 짓게 되면
마다하지 말아야 할것인가
그 심중을 그이께서 헤아리셨는가
며칠전 현지지도의 길에서 드셨던

건빵 생각이 나신듯
《그게 몇개나 남아있소?》

마를대로 말라버린 쫄쫄한 건빵
그것도 서너개밖에 없는 자루안을
딱한듯 들여다보는 부관
《장군님
이것으로야 어떻게...》

《산에서 싸울 때야
한홉의 미시가루도 나누어먹었는데
이거면 대단한거요》
너그러이 웃으시며
손수 건빵을 집으시여
하나씩 나누어주시는 수령님

난방도 없는 쓸쓸한 차안
한모금의 물도 없이
그것으로 저녁을 예우신 수령님
김로인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겨가시여라

집앞에 이르시여
희미한 방등불에
벌정게 물들어있는 창문을 보시자
잠든 주인을 깨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던 그 마음이 놓이시는듯
토방돌에 올라서시여 주인을 찾으시여라

한참만에야 방식이 문이 열리고
《누구요》
분명 낮에 익혔던 김로인의 목소리
《밤중에 이렇게 찾아서 안됐습니다
김일성입니다》

순간 방안에서는
놀라움과 감격에 목이 멘 소리
로인도 안주인도 맨발로 뛰어내려
수령님의 두팔을 껴안아라
《아니 장군님이!
장군님이!》

방이 루추함도 생각할 겨를이 있었던가
황급히 그이를 방안에 모셔올린 김로인내외
모래가 서걱거리는 노전우를
손으로 쓸어 앉으실 자리를 마련하며
《어찌된 일이십니까 장군님!
이 추운날 이밤중에...》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수령님께서 다시 오신 그 사연을
그 영문 알길 없는 김로인이건만

수령님께서 미처 말씀하시기도전에
로인은 로인으로
온 하루 가슴에 맺혔던 속생각을
가슴헤치고 털어놓아라

《장군님!
장군님께서 우리 집을 다 찾아오셨는데
추운날 방안에 모실 생각도 못하고
문밖에 계시던 그채로 떠나보냈소이다
이 늙은것이 그만 망령을 했나봅니다

그때부터 일손이 도무지 잡히지 않아
결다만 멍석우에 멍청하게 앉아
한숨만 지었습니다
3대머슴살이를 하던 내가
장군님 덕분에 땅을 받았는데
장군님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했으니
이 무슨 백성의 도리입니까
장군님도 몰라보는 이 늙은이를 두고
장군님!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비오듯이 흐르는 로인의 눈물을 보시며
그이께서도 저으기 격하신텐
손수건을 천천히 눈가에 가져가서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죄해야 할 말을
로인님이 먼저 하시니...》

수령님께서 다시 오신 사연
부관이 차근차근 들려주자
로인은 수령님의 두손을 부여안고
끝내 울음을 터뜨려라
《복받았수다
복받았수다
나라가 복받고
백성들이 복받았수다》

아, 삼화리의 길가에 자리잡은
작은 집이여
수령님과 어제날의 머슴군이 마주앉아
보내는 시간이여

사람값을 못받고 살아온
로인의 과거를 가슴아프게 들어주시고
사람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보람있게 잘살게 될
꿈같은 앞날을 그려주시는 수령님

로인의 기뻐하는 모습에서
자신께서 하고계시는 사업의 보람을 찾으신텐

물어보시고 깨우쳐주시며
한밤이 다 가는줄을 모르시여라

부관이 이젠 떠나시자고
일어서시길 기다리고
하루밤을 함께 모시고싶은
그 심정 로인인들 얼마나 간절하랴만
그것이 너무도 주체넘은것 같고
변변치 못한 이부자리를 권하기 송구하여
무어라 말씀을 못올리고 망설이는데

서성거리는 부관을 말리시며
그이께서 말씀하셔라
《밤이 늦으면
자고가야 주인의 마음이 좋지
밤중에 이대로 떠나가버리면
두고두고 로인님이 섭섭하게 생각할게 아니요》

굳이 권하는 아래목을 사양하시고
김로인과 나란히 누우신 하루밤
멀리 흘러간 투쟁의 20년대
오가자의 추녀났은 농가집에서
목침을 베시고 누우시던
그밤도 이런 밤이 아니었던가

하나 그밤은 먼 이국의 밤
잃었던 나라를 찾으실 그 생각으로
피로워 잠못드시였던만
이밤은 해방된 조국의 밤
이렇게 농민들과 함께 한자리에 드시는것이
그이에겐 더없이 기쁘고 즐거우시였어라

이튿날 이른새벽
마을이 잠에서 다 깨어나기전
조반짓는 흰 연기가
한두오리 피여오르기 시작할무렵
소문없이 오신 그 걸음처럼
소문없이 떠나시였어라

자동차를 세워둔 그곳까지
따라나온 김로인내외에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잡아주시는 그 손길
《신세를 많이 지고 갑니다
이 신세는
인민들을 편안하게 잘살게 하기 위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것으로
꼭 갚겠습니다
나는 로인님과 같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나를 믿고 의지하며
일해나갑시다

로인님 건강하시어 오래 사십시오》

떠나는 한대의 승용차가
멀리 산굽이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건히 바래주며
움직일줄 모르고 서있는 김로인내외

아, 삼화리-평양의 새벽길이어
그우에는 황홀하고 찬란한 태양이
서서히 움직이며 가고있었고
그 눈부신 사랑과 의리의 빛발을 받으며
온 조선 온 인민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서있었다

5

그 어느날
애젊은 처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속에
나도 서있었다

모두가 감동어린 눈빛으로
돌아보는 문간이며 토방돌
하루밤 머무르고 가신
농가의 작고 수수한 방

서까래 사이사이
흙매질한 천정
삿자리 깔린 방안 한구석엔
색이 바랜 키낮은 농작 하나

지금은 이런 집에 사는 사람 없고
길이 보존하는 사적건물로
방안은 비어있건만
40년전 그날에 베푸신 사랑으로 후더웁고
한밤을 지새우신 그이의 음성
젊으신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방안에 어려있는듯

해빛을 받아들일
한장의 유리도 없어
방안은 침침했어도
우리 수령님
인민을 위하시는 지극한 그 마음
해빛처럼 뜨거이 어려있는 집

평범한 사람에겐
비길수도없는 그 심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더없이 존중하며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심장에만 스스로 비길수 있는 그 심려

그러하지 않으셨던가
우리 수령님
인민이 더없이 행복할 때도
아버이심정으로 마음속에 그들을 지으시고
현신과 희생 불면불후의 노력과 투쟁으로
그것을 지워오신
그것이 그이 한평생 걸어오시는
사랑의 력사가 아니었던가

자신이 인민에게 주신
그렇듯 크나큰 혜택은
언제나 생각지 않으시고
인민이 올리는 감사는
진심으로 사양하시며
언제나 령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그이의 사색

정녕 그것은
자식의 행복에 만족을 모르는 아버지마음
언제나 비껴있는 마음의 그 심려는
우리 미처 헤아릴수 없는
사랑의 높은 차원으로 빛나고있거니

삼화리 농가집의 하루밤 잠자리는
비뿌리는 갈밭의 진펄길과
겨울밤 눈오는 역구내의 속영차
한이삭의 강냉이로 끼니를 에우시며
걸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로 이어지시였어라

그 언제 우리 인민이
이런 사랑 받아본적 있었던가
동서고금에 위인도 많다면
우리 수령님 지니신
이런 사랑이 력사에 기록된적 있었던가

그 사랑으로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사를 베푸시며
세계의 사상과 정치의 력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우리 수령님

언제나 인민의 총복으로 자신을 여기셨기에
그이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그이 이날까지 주시고주신
그 사랑 그은덕에
자식된 의리를 지키고 효성을 다해왔는가
다시금 인민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아, 삼화리의 작은 집이여!

-삼화혁명사적관에서-

그날의 불길이어

리종섭

그날의 불길은 얼마나 치솟았기에
구만리 하늘까지 불태웠더니
그날의 화광은 얼마나 눈부셨기에
삼천리 이 강산을 다 비치였더니

조약돌마저 물속에 뜻을 품고있는
유서깊은 가림천가에 서서
보천보의 하늘을 올려다보니
피어나는 노을도 그날의 불길에 물든듯

그날의 삼단같은 불길이
나의 눈앞에 타래쳐오른다
우편국이며 면사무소를 채티로 날리던
그날의 불바람이 얼굴에 후덥다

저 황철나무밑에서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셨던 총
거기서 발화된 불꽃이
압제의 세상에 사형을 선고하며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보천보의 불길이어

세월이 미우니 하늘도 미워
한방울 비물만 떨어져도
눈길 치며 흘기던 사람들이
때아닌 밤에 대낮같은 광명이 비낀

그 하늘 향해 만세 높이 불렀거니
그밤 온통 세상이 환해져
몽당바닥에 지친 몸 내던지고
악몽속에 몸부림치던 겨레들과 함께
암흑의 막바지에 쓰러졌던 조국이
재생의 눈을 뜨고 일떠서지 않았던가

아, 무모한 칼부림으로
이 땅을 피바다에 잠근
원췌에 대한 원한이 커서
그날의 불기둥은 그리도 높았고
죽지 않은 조선의 녀트로
만리 대공에 치솟지 않았더니

그 불길은 오늘도 타오르며
원췌의 아성에 불을 지르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속에 화불이 되고
싸우는 나라 유격구의 장글속에
아침노을처럼 타오르나니

아, 올려다볼수록 가없는 하늘이건만
압제를 녹인 불기둥이 비껴있어
온 누리에 투쟁의 녀를 뿜어주는
조선의 하늘 보천보의 하늘이어

◇가사◇

만민의 축원 안고 천만년 만발하리

김학연

해와 별의 그 빛발 우러러따르며
만민들이 축원 담아 아름답게 피운 꽃
아 **김일성** 화
아 **김정일** 화
천년만년 만발하리 조선을 빛내이며

백두산의 노을빛 붉게 비낀 꽃송이
이 강산의 봄노을이 붉게 타는 꽃송이
아 **김일성** 화

아 **김정일** 화
천년만년 만발하리 조선을 빛내이며

위대하신 그 이름 송이마다 지니여
우리 한생 빛내여갈 녀를 안겨주는 꽃
아 **김일성** 화
아 **김정일** 화
천년만년 만발하리 조선을 빛내이며

릉라다리

김정민

대좌 한영섭은 네모진 철색 얼굴에 초조한 기색을 띠우고 현장사무실 전화기앞에 조각상처럼 앉아있었다. 그의 왼손 손가락잡에 끼운 담배가 치에서 파릇한 연기가 치솟다가 꼬리를 뱅글뱅글 굴리며 흩어져버린다. 그 담배연기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초조는 대좌의 얼굴표정에 비친 그늘 같기도 했다.

그는 지금 북방의 X X제철련합기업소에서 《아르 10》합금강시험생산결과에 대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거기에는 한영섭대좌의 《기술보좌관》이라고 할수 있는 상좌 기동철이 전권임무를 받고 나가있었다. 그는 며칠전 《아르 10》합금강시험생산에서 여덟번째로 실패한 보고를 가슴아피 전하면서 아홉번째 결과를 오늘 12 일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던것이다.

릉라다리건설은 지금 《아르 10》에 목을 매고있었다. 정월말까지 얼음장을 헤치고 기세 좋게 솟아 난 교각은 모란봉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였던 살구꽃, 벚꽃이 스러진 지금까지도 얼어붙은듯 까딱않고있었다. 다리기둥사이에 건너여덟 강철보는 아직 용해로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있는것이다. 그걸 모르는 선량하고 동정심많은 평양시민들은 수면위에 말뚝처럼 서있는 교각을 멀리 바라보며 제나름으로 걱정하곤했다. 다리를 건설하던 군대동무들이 다 가버린게 아닌가?

한영섭은 담배를 비벼끄고 저도 모르게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가 나왔다.

《나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소? 없다!》

영섭은 송수화기를 도로 놓고 다시 기계적으로 담배갑과 라이타를 집어들었다. 혹시...? 그 어떤 의혹이 떠오르자 그는 그것이 선명해지기도전에 도리머리를 쳤다.

가설건물인 현장사무실이였다. 천장 한가운데에 걸린 전등에서 누리끼레한 광선이 흘러내려와 책상과 응접탁, 벽을 따라 늘어놓은 나무결상들, 하불을 씌운 침대를 비쳐주고있었다.

모든 의자들은 비었다. 안쪽구석에 놓인 철벚겨진 철책이 건너편벽을 묵묵히 그리고 부럽게 바라보고있다. 거기에는 날씬하고 산뜻하게 그린릉라다리전경도가 보란듯이 걸려있었다. 그 전경도가 없다면 이 담배연기 자욱한 현장사무실은 얼마나 호젓하고 어수선했겠는가.

물사발처럼 큼직한 사기채털이에는 담배꽂초가 넘쳐나고있었다. 그게 다 영섭의것은 아니다. 좁전에 있는 기술협의회에서는 《아르 10》에 의한 다리공법상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새로운 발명이라고 인정되는 다섯가지 창안기재들과 공법들을 찬동하면서 락판을 표시하였으나 논의가 《아르 10》 자체로 돌아오자 모두 담배만 풀썩풀썩 태우다가 밤도 깊어 헤어졌던것이다.

한영섭은 담배연기를 내뿜고는 눈을 꼭 감았다. 우렛이 떠오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

한영섭은 그이의 믿음을 영양소로 하여 삶의 길을 즐겁게 걷고있다. 그 믿음의 따사로운 온기는 그의 몸에 흐르는 피줄기의 가닥가닥을 덥혀주고 있었다.

청류벽이 단풍으로 물드는 작년 가을 어느날릉라도일대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청류정에서 한영섭을 부르시였다.

한영섭이 팔을 내저으며 한달음에 청류정으로 달려오르면서도 자기가 인생행로의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있는지는 물론 알수 없었다. 그는 인간의 한생애 귀중히 간직해야 할 믿음의령마루로 치달아오르고있었던것이다.

청류정에 올라갔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팔을 쭉 펴시고 다리공사장쪽을 가리키시며 일꾼들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계셨다.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 장대터였다는 현란한 단청을 한 루정앞에서 아름다운 대동강을 부감하시며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은 자못 숭엄했다.

자기가 끼울 자리가 못된다고 생각하며 뒤에서 우물거리는 영섭을 일꾼들이 앞으로 내밀어주었다.

한영섭이 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쪽으로 몸을 돌리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이께서 반기시며 손을 잡아주셨을 때 영섭은 너무도 송구스러워 허둥거리기만 했다.

《늘 현장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축잡습니다. 이젠 년세도 많은데 너무 뛰어다니지 마시오. 젊은 보좌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문관처럼 일하면 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걱정의 파도가 가슴속에서 출렁이고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해별과 쇠죽에 찌든 영섭의 손을 어루만지시다가 말씀하시였다.

《한영섭동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리상

관을 함형콘크리트구조물로 하지 말고 강철구조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공도 좀 간단해질수 있고 정밀도도 보장되고 건설기일도 지금보다 훨씬 앞당길수 있을것입니다.》

한영섭은 금시 눈앞이 확 열리는상싶었다. 교각이 높고 그사이 거리가 넓은 조건에서 함형콘크리트보로 시공할 때 나서는 복잡한 공법들과 공사기간문제때문에 골을 앓았는데 모든것이 별안간에 풀리는것이였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섭동무가 좋다면 그렇게 해봅시다. 교각사이거리가 먼 조건에서 강질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종전에 쓰던 강으로 되지 않으면 <아르 10> 합금강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강건너쪽으로 향하시며 감탄하시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치입니까? 여기에 룡라다리를 미끈하게 가로질러놓으면 모란봉, 청류벽, 대동강은 하나로 어울리어 절경을 펼쳐놓을것입니다.》

강물은 가을날의 푸른 하늘을 안고 잔잔히 설레이고 금시 일어난 룡라도 경기장의 지붕날개가 은백색으로 번쩍이고있었다. 웅장화려한 문수거리의 일각이 신기루마냥 대동강 맑은 물우에 비쳤다.

준첩선들이 폭포수를 뿜어내리고 굴착기들이 춤을 추듯 긴팔을 툄동적으로 내젓고있다. 청류벽아래 능수버들은 아지를 물속에 잠그고 물고기들과 희롱하고있다.

푸른 하늘로 물오리떼가 날아오다가 반월도우에서 원을 그리며 강물우에 점점이 내려앉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감동에 젖은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대동강물은 정말 맑고도 아름답습니다. 왜 대동강물은 언제나 맑은 구슬처럼 빛납니까! 서울의 한강물은 오물과 공해로 오염되어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이의 말씀은 대변에 일군들의 가슴을 찡 울려주고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었다. 대동강물빛이 어이하여 저리도 맑고 아름다운지 그들은 심장으로 느끼고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해로운것이면 천만금이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대동강에 폐수나 미광을 흘려보내는 공장과 광산은 절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던것이다.

오직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고마운 사랑이 저렇듯 아름다운 대하를 이루며 흘러흐르는게 아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감회깊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주석단에서 내리시는 그길로 강남벽

돌공장으로 나가실 때 대동강엔 마사진 대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립시로 가설해놓은 통나무다리를 덜렁거리는 차를 타고 건너시며 앞으로 대동강에 다리를 몇개나 건설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하셨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루정앞을 천천히 거닐으시였다. 그러시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수원들을 둘러보시였다.

《지금은 대동강에 다리가 몇개입니까?》

어떤 일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마도 어떤 다리가 있는지는 아나 몇개인지 따져 보지 않았던 모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벼이 웃으며 손을 내드시고 하나하나 꼽아보이였다.

《기차다리는 내놓고도… 옥류교, 대동교, 충성의 다리, 양각다리…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미림갑문다리… 한영섭동무가 아마 충성의 다리 건설과정에 제대되었지요?》

그 순간 영섭의 눈에 눈물이 확 어리였다. 아, 그이께서 기억하고계시는구나! 한 평범한 인생의 행로에 비꼰던 하나의 반갑지 않은 그늘조각이였다. 영섭은 년령관계로 40 여년동안 입어온 군복을 벗고 한 지방산업공장에 지배인으로 배치되었던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섭에게 다시 군복을 입도록 해주시고 양각다리 건설장에서 그를 만나주기까지 하셨던것이다. 그때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동무의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다리를 건설해봅시다!》

얼마나 크나큰 믿음이신가! 그때의 감격을 가슴에 되새기며 영섭은 10 년도 더 젊어진 마음으로 그이앞에 서있었다.

《우리는 룡라다리를 공화국창건 40돐전으로 완공하고 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루정의 적동색아름드리기둥을 짚으시고 천정을 올려다보시다가 수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고구려가 죽안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때로부터 시작된 평양의 력사는 1500여년을 헤아립니다. 하지만 이 장구한 력사가 남겨놓은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유적들이 좀 남아있는, 봉건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기형성으로 심히 이지러진 도시였습니다. 미국놈들은 그것마저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다시 일떠섰습니다!》

모두 격동된 얼굴로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평양의 력사를 더듬었다. 평양! 오늘의 평양의 건설력사는 전화의 나날에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대로부터 시작되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평양은 수령님의 위대한 수도건설구상이 실현되는 지난 30여년간에 일떠선것입니다.

30년... 30년이란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평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로 솟아났습니다. 이젠 평양에 와본 외국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다리는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유분방한 말씀이 끊어지며 그이의 시선이 한영섭의 얼굴에서 벗었다. 순간 한영섭은 당황해나서 우물거려였다.

《...》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묻는듯한 그이의 시선이 여전히 영섭의 얼굴을 애무하며 가벼운 미소를 피워올렸다.

《그걸 아마 한영섭동무가 잘 알고있을겁니다. 도시에 건설되는 다리는 도시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무지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강물우의 유보도란 말입니다. 환희에 넘쳐 다리를 거니는 인민들의 모습이 보이는것같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더욱 즐거워지고 만수대, 모란봉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노래로 울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영섭동무!》

《그렇습니다.》

영섭은 열결에 대답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어느 한번도 그는 자기 부대가 세운 다리앞에서 이처럼 황홀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금릉동굴과 룡라다리를 편결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한영섭에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라다리 건설정형에 대하여 자주 알아보십니다. 수령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리를 잘 건설해봅시다.

다리상판도 현대식으로 하고 차들이 거울면우를 미끄러져가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선녀들도 내려와 산보하자고 할것입니다.》

흐뭇해나는 영섭의 눈앞에 벌써 새로 일떠설 다리의 아름다운 자태가 펼쳐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섭의 흥분된 얼굴을 살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난 룡라다리 건설을 한영섭동무에게 맡기고 마음을 놓습니다. 아마 다리건설에서는 한영섭동무의 선생이 따로 없을겁니다. ... 그래도... 혹시 내가 뭔가 좀 물어주어야 할게 없겠습니까?》

상상도 할수 없었던 크나큰 믿음앞에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던 영섭은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이젠 없습니다. 다 뻤습니다. 강철보로 하면 다 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다리건설때문에 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젠 저희들이 다 자체로 풀어나가겠습니다!》

한영섭의 이 대답은 마음속 깊이에서 우리나라의 진정이었다. ...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대답은 그의 진심과는 달리 한갓 결발림으로 되어버린것이다.

영섭은 담배연기를 후- 내뿜었다. 한숨과 함께 흘러나온 담배연기속에 책상우에 놓여있던 설계도며 기술문건들이 뿌영게 흐려졌다. 그 도면들과 문건들에는 그가 40 여년동안 걸어온 군사복무의 한도막, 룡라다리의 력사가 깃들어있었다.

당초에 룡라다리는 함형콩크리트보로 4 년동안에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었으나 세계청년학생축전과 하루빨리 새 다리를 가지고싶어하는 인민들의 마음은 늦어도 2년~2년반안으로, 공화국창건 40 뉘전으로 완공할것을 요구하였다.

4 년동안이라는 기간은 한영섭의 성미에도 맞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을줄 몰랐고 에돌아가는 법을 몰랐다.

해방직후인 46 년도에 군복을 입은뒤로 40 여년 동안 정보로 걸었고 구보로 달리였다.

오늘까지 그는 큰 다리만도 거의 10 여개나 건설하면서 언제나 공사기일을 앞당겨 왔으나 룡라다리에서는 어찌선지 그렇게 될것 같지 않았다. 짐짓 《정보》와 《구보》의 생리적 기능이 마비된듯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직껏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과 위구가 하루에 담배 10 대도 피우지 못하던 그를 두갑, 세갑도 모자라는 《염소할 아버지》로 만들어버렸다.

《14 번강》에 의한 첫 강철보설계가 나왔다. 14 줄의 강철보를 건너지대고 상판 구조물을 올리는 시공방법이였다.

력학적, 기술적, 로력적 계산과 강철보실험제작과정에 다시 4 년이라는 수자가 나왔다. 아니?! 2 년이 나와야 했다. 어찌된 일인가?

한영섭은 기동철상좌를 들볶아댔다. 4년을 2년으로 바꾸어놓으라! 그러나 과학은 양보하지 않았다. 기술보다 경험이 우세한 영섭이지만 《4 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리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였다.

과정하면서도 무자비한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강철보! 문제는 어떤 강을 쓰는가에 달려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합금강가운데서 기술경제적으로 보아 《14 번강》보다 우월한 강질을 찾아낼수 없었다. 과학자, 기술자들, 유능한 설계가들이 모여앉아 머리를 짜보는 과정에 《아르 10》 합금강으로 가는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르 10》은 2 년안으로 다리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주고있었으나 아직은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종이장우에 수자와 원소기호들로 존재하고있는것이였다. 누가 줄수 있을가고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던 한영섭은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오직 자신의 힘에 의거해야 했던것

이다. 다른 길이 없었다.

그는 엄동설한에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알섬》(여기에 《아르》 원소가 숨어있었다) 모래불에 나가서 서걱이는 《얼음갑옷》을 입고 잔물보라와 싸우며 합지박으로 쌀을 일듯이 《아르》를 얻어냈다.

이렇게 채취한 《아르》를 제련하는 과정에 여러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다.

이래저래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마침내 《아르 10》 시험생산에서 여덟번째의 실패에 이르렀다. 모든 새것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영양소로 해서만 자라는가?

무서운것은 신심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검질긴 비난과 동요였다. 우린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걸 믿고 앉았다가 기일을 보장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내가 책임진다!》

신심이 강하고 한번 결심하면 요지부동이라는 한영섭이지만 (바로 그것이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그의 특질이다.) 마음이 노상 편안한것은 아니었다.

첫번째 실패가 두번째 성공을 기약하지 않듯이 여덟번째 실패가 아홉번째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래일아침에 해당부문 전문가들, 과학기술 일군들의 협의회가 있다.

여기서 한영섭은 대답해야 하였다. 다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대답은 《아르 10》의 시험생산결과에 달려있었다. 성공에 대한 소식이 오면 이미 준비한 설계문건들과 수자, 론거들을 내놓고 공화국창건 40돐전으로 당앞에 룡라다리를 선물할것을 결의하면 되는것이다.

실패에 대한 소식은 모든것을 뒤집어엎을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의혹과 위구, 물의와 비난의 선풍이 일어나고 책임을 따지며 다리건설의 다른 길이 상정될것이다. 다리의 규모와 의의, 인민의 기대, 하루하루 다가오는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일은 사람들의 인내성을 그 한계점으로 이끌어온것이다.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영섭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것이 두려웠다. 그이께서는 룡라다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마음을 놓으신다고하시지 않았던가! 결국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 의리도 없는 무뢰한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앉아몽개는 이 꼴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하시랴!

영섭이 새 담배가치를 입에 물고 라이타를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 전화종이 따르릉! 울렸다. 그는 황급히 라이타를 책상우에 던지며 담배가치를 내버리고 덮치듯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이건 또 뭐야?)

뜻밖에도 녀자의 목소리였다.

《한영섭입니다.》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저예요! 또 잊었어요?》

그제야 영섭은 상대방이 안해임을 알았다.

《왜 한밤중에 전화질을 하면서 야단이요?》

《기다리다가 다 쓰러지고 말겠어요! 그래 들어오지 않겠어요?》

《왜 들어가?》

《...》

썩-전류소리만 들릴뿐... 안해의 무언의 항거속에서 영섭은 어제 있던 일을 상기했다. ...

어제 아침 공사현장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팔소매를 붙잡았다. 뒤돌아보니 안해였다.

영섭은 의아해하며 안해의 얼굴을 띠여보았다.

세월의 풍상은 안해의 곱던 얼굴에도 얼기설기 주름들을 파놓았다. 그 주름살들은 아침햇빛을 받는 그의 얼굴에서 유난스레 강조되었다.

《여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얼굴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래일저녁에도 안들어오겠어요?》

《난 지금 집에 들어가서 로친네 말동무나 해줄 처지가 못된단 말이야!》

안해의 잔주름에 싸인 눈에 대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래일이 무슨 날인지도 잊었구려...》

《래일 이라니?》

《래일이 령감 60돐 생일이예요!》

가슴속에서 몽클하고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감정의 파문이 일어났다. 기쁘다고는 할수 없는, 도리어 쓸쓸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는 감정이였다. 아, 벌써 예순인가! 영섭은 언짢게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런따월 알려주자고 나왔소? 예순이면 예순이지, 예순이 어쨌다는거요?》

안해의 눈에 서글픔이 떠올랐다.

《저더러 왜 그래요? 내가 예순을 만들어냈어요?》

맹랑한 일이였다. 예순살 그자체가 즐겁지 못한데다 때아닌 때에 찾아온것이다. 어차피 대답해야 했다. 그는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대답했는데 그것이 곧 그의 움직일수 없는 결심으로 되였다.

《룡라다리를 다 완공하고 당에 보고드린다음에 보자구! 소문은 내지 말구...》

안해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고나서 말했다.

《하지만 너무 섭섭하게 보낼수야 없지 않아요? 동무들을 몇명 데리고 저녁에 들어와요! 뭘좀 준비해놓았어요.》

《그건 좀 생각해보자우.》

영섭은 안해의 그 소박한 청마저 막아버릴수

없어 애매하게 대답하고는 현장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감감 잊어버리고있었던것이 다.

영섭은 자기의 정상을 헤아릴수도 없는 안해를 탓할수 없어 웃고말았다.

《여보, 당신 집에 들어있더니 이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게 아니요? 내가 얼마나 큰 당의 신입과 사랑을 받고있는지 당신도 알고있지 않소?

그런데 지금 그 신입에 보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처해있단말이요. 쓸데없는 생각말구 어서 자기나 하오. 난 지금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고있소!》

《알아요... 저도 모든걸 다 알아요...》

가벼운 흐느낌소리가 송수화기를 놓는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시간은 소리없이 흘러갔다.

안쪽 구석에 놓인 침대와 네귀 반듯하게 개여 놓은 모포와 베개는 어서 와서 좀 누우라는듯 정갈하고 포근해보이였다. 그러나 한영섭은 그쪽으로는 아직 시선의 한끝도 보내지 않았으며 지금은 거기에 침대가 놓여있다는것조차 잊고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붙은 습관인지 잠이 오기전에는 침대에 눕지 않았으며 침대에 누워 오지 않는 잠을 청하는 법을 몰랐던것이다.

자정이 넘은지도 오래다. 그러나 공사장의 중기계들은 끊임없이 동음을 울리고있다.

한영섭은 기름가마처럼 빠질빠질 타드는 가슴을 식히려고 문밖을 나섰다.

삼라만상도 그를 동정해주지는 않았다. 검고 파르스름한 하늘에서는 별들이 가물가물 조울고 강물우에는 옥류교다리불빛이 불기둥처럼 길게 누워 잠에 취한 얼혼인양 부서지고있었다.

문수거리의 아파트 창문들도 안식의 꿈나래를 편 보금자리를 지켜주다가 잠들어버린듯... 어둑컴컴했다.

청류벽기슭의 불빛을 배경으로 우뚝우뚝 서있는 교각들이 보인다. 그것들도 강철보를 기다리다 못해 인제는 지쳐버려 다리를 물속에 간신히 박고 서있는듯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적과 피로에 반항하듯 강기슭에서는 굴착기들이 흠바가지로 수면을 쿵쿵 내려치면서 모래자갈을 퍼내고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영섭의 마음에 위안으로 는 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서서 기다렸다. 그 기다리는 전화 종소리가 들린듯하여 사무실로 달려들어왔다.

《따르릉! 따르릉!》

송수화기를 드는 그의 가슴속에서 벌써부터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 예감이 아귀다툼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목소리가 아니였다. 인민무력부건설지휘부의 책임일군이였다.

《아직 안자누만... 기동철동무한테서 소식이 없

소?》

《없습니다.》

영섭은 맥없이 대답했다.

《없다?... 오늘 팽복거리 건설장에 나오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룡라다리때문에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다른 대상 건설은 다 잘되어가는데 룡라다리가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고 심려하고계신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젠 무슨 결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소. 래일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해보고 우에 제기합시다. 협의회에 내용을 보고준비는 다 했겠지?》

《...》

침착하고 리해력이 깊은 장령은 조용히 말하며 위로해주었다.

《너무 걱정마오! 래일 무슨 방도가 나지겠지... 시간도 많이 갔는데 이젠 좀 자오! 자야지... 그럼 편히 쉬시오.》

송수화기를 놓은 한영섭은 자기 마음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못했음을 느꼈다. 아니 가슴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던것이다.

영섭은 기계적으로 앞에 놓여있는 《아르10》에 의한 강철보 설계도면을 펼쳤다. 다 알고있으면서도 보는것이다. ...

시간가는줄 모르고 도면을 들여다보던 영섭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가 제격 나왔다.

《줄리지 않나?》

《우린 일없습니다! 좀 쉬십시오!》

《줄지 말라구! 이제 중요한 전화가 올수 있어! 아니 꼭 올거야!》

《알고있습니다. 11 번동지, 눈을 좀 붙이십시오! 전화가 오면 제가 꼭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손목에서 시간은 한초도 에누리없이 무엇인가를 재촉하며 흐르고있었다. ...

야속한것은 잠이다. 오늘도 그는 반월도 인입 다리공사장으로, 상판블록작업장으로... 쉽없이 뛰어다녔다. ... 피로가 덜친다. ...

건설장의 기증기소리, 굴착기의 동음이 자장가 소리처럼 정답게 울려오며 귀청을 간지럽힌다. 이젠 교환수때문이야! 깨워주겠다구?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이밤에 나처럼 운명적인 그 무엇을 기다리며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가? 없을것이다. ...행복의 요람속에 깊이 잠들었을것이다. 기다렸다면 더 큰 행복을 기다리다가 미소지으며 꿈속에 빠져들어갔을것이다. ...

새벽 4 시였다.

차츰 눈앞에서 복잡하게 엉킨 선들과 부호들이 흐리마리해졌다. ...

영섭은 저도 모르게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침대

쪽으로 다가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침대에 어푸러 졌다. 불의에 엄습해온 잠은 그를 여지없이 꺼꾸러뜨렸던것이다. ...

릉라도를 안고흐르는 대동강우에 칠색령롱한 무지개가 비졌다. 한끝은 울긋불긋 화원을 이룬 청류벽에 걸리고 다른끝은 금박으로 만물상을 장식한듯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문수거리에 박았다.

오색채운이 아롱이는 하늘에는 흰 두루미 날아 예고 억만구슬이 구울으는양 반짝이는 잔물결우에 원앙새들 쌍쌍이 노닌다.

무지개를 타고 나는듯 춤추는듯 날개옷을 하늘하늘 날리며 오가는것은 선녀들인가! 신비의仙境이다.

한영섭이 노을빛운무 감도는 다리우를 걸어가 고 있다. 이것이 룡라도리인가!

곧바로게 뻗은 란간이며 이음짙 하나없이 거울면처럼 매끈한 포장길이며 눈부신 다리등을 바라보기도 하고 쓰다듬어도 보는 한영섭, 문득 들려오는 애기방울을 굴리는듯한 목소리...

《엄마, 이 다리를 누가 세웠나?》

《넌, 그것도 모르냐?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세웠지...》

영섭은 뒤돌아본다. 젊은 녀인이 대여섯살난 처녀애의 손목을 잡고 걸어온다.

녀인도 하얀 달린옷을 입고 처녀애도 하얀 달린 옷을 입었다. 형광등불빛을 받는 얼굴들도 하얗다. 신발들도 하얗다! 치마자락이 강바람에 날리고 녀인도 아이도 춤추듯이 나폴나폴 걸어간다. ...

《따르릉...》

영섭은 꿈속에서 전화종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다.

《따르릉...따르릉...》

마음은 불이 난것처럼 다급했으나 팔다리는 꿈몽 묶인듯 움직일수가 없다.

가위눌려 한참이나 모대기치던 그는 땀을 함뻍 뒹어쓰고 눈을 떴다.

《따르릉... 따르릉...》

꿈이 아니었다. 영섭은 헤덤비며 일어나 탁상으로 가 앉으며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시외전환가?...》

영섭은 가슴이 후드득 뛰었다. 마침내 북방으로부터의 소식이 오는가보다.

《11 번동지십니까?》

《내 11 번이요!》

영섭은 이렇게 대답하며 시계를 보았다. 새벽 4 시 15 분이였다!

교환수는 별나게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어찌나 급했던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이윽고 침착성을 모은 교환수의 정중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11 번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으십니다!》

영섭은 용수철에 튕기듯 후덕덕 뛰쳐일어섰다. 덤벼치며 무엇인가 준비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못한채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받쳐들었다. 그리고 《차렷》자세를 취하면서도 자기 귀를 의심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대좌 한영섭 전화받습니다!》

수화구에서는 발각발각 종이장넘기는 소리가 가볍게 울려나왔다.

한영섭은 의의깊은 력사적 순간에만 찾아올수 있는 비상한 감정을 체험하면서 기다렸다. 이윽고 그이의 다정한 음성이 울려나왔다.

《아, 한영섭동무입니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한영섭은 무엇이라고 대답올렸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왜 60 톨 생일날에 집에 안들어가고 현장사무실에 앉아있는가 말입니다. 동무의 심정은 물론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선 안되지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물으시는 뜻이 뚜렷해 지면서 한영섭은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

한영섭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으나 말을 번질수 없었다.

《즘전에 탁상일력을 넘기면서 생각해보니 동무의 생일날이 아니겠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

치밀어오르는 오열을 억누르느라고 한영섭은 송수화기를 꼭 틀어쥐였을뿐이었다.

《여러가지로 생각해보다가 밤도 깊어서 아침에 축하해드리자고 생각하고있는데 갑자기 전화할일이 생겼습니다. 한영섭동무, 기뻐하시요! <아르10> 시험생산이 성공했습니다.》

《네?》

《60 톨 생일날의 선물로 될것입니다. 될수록 빨리 알려줘야 하겠기에 신새벽에 찾았습니다. 그 때문에 요사이 잠도 제대로 못잠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한영섭의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썩 흘러내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해같은 은정과 배려에 최대의 사의를 표시하고싶었으나 다른 말마디들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고생이 많았을겁니다. 나도 아닌게아니라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생산결과를 매번 지체없이 보고하라고 지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즈전에... 4시 10분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이 소식을 누구부터 먼저 알려

줘야 하겠습니까?...이젠 됐습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영섭은 마침내 세차게 흐느끼며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당과 국가의 중대사들을 다 돌보시는 친애하는 그이께서 여기 룡라다리건설을 두고 나보다 더 걱정하셨구나! 내 일이 잘되지 않아 피로움속에 몸부림칠 때 나아닌 다른 또 한분이 나 때문에 피로와하시고 걱정하시고계심을 언제 한번 생각이나 해본적이 있었던가!

친애하는 그이의 맑고 부드러운 말씀이 애무하듯 울려왔다.

《됐습니다. 아마 그곳 로동계급이 〈아르 10〉을 인차 다 보내줄겁니다. 이젠 맘놓고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보시오. 가족들이 모두 기뻐할겁니다.》

끝내 한영섭은 오열을 터뜨려놓고야 말았다.

《우리 함께 희망과 걱정으로 지새운 밤은 가고 아침해돋이가 시작됩니다. 창박을 내다보시오!》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아침해와 같은 영상이 우렛이 떠올랐다.

현장사무실 동창이 불그레 노을로 물들고 룡라다리전경도에 적황색빛이 어롱진다.

룡라다리전경도가 현실로 펼쳐졌다.

끝까지 미끈한 직선들과 부드러운 류선형곡선들, 거울같은 평면들로 신비로운 조화를 부린 룡라다리...

다리등에서 쏟아져내리는 감빛광선과 쪽빛물면에서 서려오르는 파아란 반사광을 받아 무지개마냥 아름답게 채색된 룡라다리는 모란봉과 룡라도, 문수거리와 신묘하게 어울리었다.

금강산 팔담에 강림하던 신선들이 오늘은 여기 룡라다리에 내려와 거니는듯 미풍에 화려한 옷자락을 날리며 남녀로소들이 흘러오가고 갖가지 색깔의 자동차들이 환상세계처럼 미끄러져가고있다.

문득 꿈속에서 들은 어린애의 랑랑한 목소리가 울려온다.

《엄마, 이 다리를 누가 세웠나?》

어머니에 앞서 한영섭이 마음속 진정으로 서슴없이 대답했다.

《오냐, 이 다리는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너희들에게 선물하신 행복의 다리, 무지개다리란다.》

고요

문동식

고요가 흐릅니다
백두밀영의 소박한 고향집에
번개와 우뢰도 흔들지 못하는
가장 승엄한 고요가 흐릅니다

침침히 산악으로 성새를 세워서
여기에 깃든 고요이겠습니까
천고의 밀림으로 울타리를 둘러서
여기에 고여있는 고요이겠습니까

눈보라에 밀림이 몸부림칠 때에는
더더욱 깊어가는 고요입니다
광풍에 바위들이 부서질 때면
더욱 맑게 흐르는 고요입니다

고요의 한끝을 조용히 헤치면
검은 구름 뒤덮인 밀영의 그밤
조국땅의 암흑을 태워가시던
장군님의 뜨거우신 사색이 흐릅니다

고요의 한곁을 또한번 번지면
어리신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고
3천리를 꽃피우는 봄빛이 되라고
어머님 부르시던 자장가소리
아지랑이 타고서 울려옵니다

고요의 심연속에 뿌리내려있습니다

지붕우에 주먹같은 눈송이 내리여도
친애하는 그이께서 어린 시절
꿈속에 피우시던 무지개의 빛발도

준엄했던 그 세월 하늘땅을 휩쓸던
동란과 수난의 설한풍을 꺼버린
일가분들 사색이, 소원과 꿈이
여기에 승엄히 흐르는 이 고요

오늘도 고요는 깊어갑니다
그날의 깊으신 뜻 이어가시는
혁명일가분들의 끝없는 웅심이
지금도 여기에 흐르고있습니다

폭풍을 안고있는 고요입니다
화산을 품고있는 고요입니다
이 세상 압제의 얼음을 다 녹이고
피여오를 고요한 붉은노을입니다
만민이 이고 살 맑은 하늘입니다

그 노을 그 하늘 누리에 펼치며
고요속에 솟아있는 소박한 고향집
제국주의를 매장한 그날에 깃들고요
공산주의 새 세계의 영원한 요람으로
오, 백두밀영 고향집은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며

은그위라

김일성 장군님은 위대한 태양
아름다운 조선에 높이 솟아
온 누리를 밝게 비치여라
조선인민은
슬기롭고 명성높은 인민
조선은
은금보화 가득찬 금수강산의 나라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나라
그이께서는 몸과 마음 다 바치시여
조선을 영원히 빛내이시네

그이의 찬란한 빛발아래
위대한 새 시대가 밝아왔어라

오, 그이는 위대한 아버지
우리는 그이를 영원히 높이 모시리

우리 그이의 탄생을 경축하노라
오늘 영광의 나라 조선은
미래를 휘황히 밝히시는
경애하는 령도자의 숭고한 뜻
높이높이 칭송하여라

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타번져
청년들의 심장 들끓게 하나니
위대한 나라 조선의 땅우에
공산주의 노을 찬란히 빛나리

김일성 장군님의 천재적 풍모
온 누리에 빛을 뿌리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이를 흠모하여라

(필자는 잠비아신문 《데일리메일》 기자임)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노라

마리오 에프. 베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할제
별무리 다투어 반짝이고
시내물 기쁨을 속삭일제
나는 그리노라
김정일 동지를...

그이는
풍만한 정서와
굳센 심장을 지니신분
오늘의 세계에
주체사상 나래치는
보람찬 삶 안아오시였어라

그이는
불멸의 역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영웅
인민의 끝없는 사랑속에서
불멸의 빛을 뿌리고계시여라

그이는 탁월한 지도자
빛나는 사상을 지니신분
지상락원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인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라
그이는
세계인민들이 흠모하는
위대한 령도자이시여라

(필자는 말파 사회정책위원회 행정관 시인임)

이 땅에 흐르는 시간

리광근

먼 하늘에 노을은 사라지고
저녁은 깃드는가
이땅, 이 산천에
서서히 지나는 또 하루

이런 때 내스스로
저 당중양청사
승엄한 불빛 흐르는 창가를 바라보면
가슴뜨거운 그 말씀 새겨지더라
하루가 스물네시간밖에 안되는것이
그저 안타깝다고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

아, 하루를 열스무날같이
저녁과 새벽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을 위하시는 진정이
언제나 적은것 같으신 그 심중이여
하루가 백시간으로 늘어난대도
친애하는 그이께서 보내시는
그 시간은 언제나 짧으리니
지새우시는 밤과 새벽으로 늘어가시는
그 시간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리랴

사람들 즐거이 저녁길 거닐 때
그 즐거움을 두고 기뻐하시며
그이 또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저녁, 그런 시간에 펼쳐지지 않았던가
이 땅 그 어디나 솟아오르는
대기념비들과 자동화된 공업지구들

그렇더라, 우리 따뜻한 잠자리에 있을
그런 때
몸소 걸으신 들길과 령길에
낮과 밤이 흐르고
날과 날이 새 모습으로 바뀌이고

끝없이 걸으신 그 자욱자욱

진펄이라 솟눈이라
그 자욱, 그 길을 따라걸으며
받들어모시는 영광에 설레는 마음이어
운명을 함께 하리라 다짐한 인민이어

그 언제였던가 어버이수령님
웅장한 산원에 들어서시며
그리도 환히 웃으신 날은
화려한 청춘거리 둘러보시며
그리도 만족하여 걸으신 날은

날을 따라 해를 따라
전변되는 강산
끓어지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제는 일하기 훨씬 쉽다고
지금처럼 마음 편히 일하는 때 없다고
어버이수령님 더없이 기뻐하시니

우러르는 이 마음에
다시 또다시 뜨겁게 젖어들어라
하루가 스물네시간밖에 안되는것이
안타깝다고 안타깝다고
절절히 울리는 그 말씀

아,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조국을 이끄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한초한초여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
혁명의 앞길도 내 운명도 열리나니

하늘땅 열리어 수만년
스물네시간으로 흐르는 하루여
이 땅에선 그 하루하루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을 위하시는 사랑의 그 시간속에
세기를 비약하며 흐르는것이여여라

나를 찾는 소리

홍현양

서리꽃 하얗게 눈부시고
소백수 물가에 피어나는 물안개
꿈결에도 안아보던 정든 고향집에
내 이제야 왔구나
청춘시절 파란 많은
언덕을 넘어...

이국의 거친 광야
어머니의 치마자락 붙잡고
한줄기 햇빛 찾아 헤맬 때
나를 찾아 애타게 불러주던
그 고향집 문턱에
내 찾아왔구나

머리에 흰서리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낫설은 이역의 산천에 묻고
나 홀로 왔다고
어루만져주는 바람결
두팔 벌려 맞아주는 백두밀영 고향집

찬바람에 몸이 얼며
몇푼의 돈을 빌어 내 온것 아니구나
조선사람
내 량심의 문을 두드리는
애타는 부름소리 따라
내 오늘 왔구나

아, 이국의 거친 들
원썩들의 철창속에서
숨져가던 어머니
전설처럼 들려주던 백두의 고향집
희망의 별이 솟은
내 운명의 고향집
어머니의 숨결과 더불어

내 심장속에 깃든 이 프락
이 프락에 서보며
마음속 지척에 새겨들던 바람소리
나를 부르는것만 같아
꿈결에도 더듬어 찾던 그 살뜰함

그 바람소리
나를 찾는 소리 틀림없었구나
정일봉을 감돌아
백두의 숨결로 이 가슴에 흘러드는
민족의 넋
민족의 슬기가 여기 있었구나

나라없던 시절엔
조국의 운명을 안고 불빛밝던 고향집
오늘은 위대한 조국이 있어
정일봉이 높이 솟아
한피줄을 부르는 사랑으로
해빛처럼 흘러가는 백두의 바람소리

그저 옷자락에 감겨드는
바람결이 아니구나
온갖 시름 온갖 설움 다 털어주는
고향의 햇빛을 실은
백두의 목소리였구나
아, 나를 찾는 소리였구나

그 소리
조선사람 나를 알아
조선사람 나를 찾게 해준
위대한 조국의 목소리
백두밀영 고향집앞에서만
바람결도 내 운명의 노래로 되었구나!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주체문학

김하명

창간 500 호를 맞이하는 잡지 《조선문학》의 력사는 불멸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로동당 문예정책의 선전자, 옹호자, 집행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수난많은 조선민족의 근대사에서 해방 전에는 어느 문학잡지도 500 호는 고사하고 100 호를 내어본 일도 없었다. 8. 15 해방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조선작가동맹이 조직되고 그 기관지로서 《조선문학》(문학잡지 《문화전선》의 뒤를 이어 《문학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던것이 작가동맹의 기관잡지 《조선문학》으로 개편)이 창간됨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창조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으며 조선문학사에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깊이 아로새길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주체적 문예사상의 빛발아래 그 력사적 뿌리가 내린 주체문학은 해방후 새 조국의 비옥한 토양에서 활짝 꽃피나 전면적 개화의 길에 들어섰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하여 그 풍부한 결실을 온 누리에 자랑떨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1

주체문학의 본질적 특성과 위력한 사상미학적 교양의 힘은 그것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학으로서 주체가 철저히 서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였으며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키는 것을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시였으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것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고전적 정식화를 주시여 그 원칙들을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기본방도를 밝히심으로써 주체문학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문예정책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해방후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 《순수문학》의 주장자들, 반동부르조아작가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물리치고 항일의 혁명적 문예전통을 고수하였으며 이 기치밑에 반당종파도당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도 제때에 송두리채 문질러버리고 주체문학의 사상적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하여 그 승리적 전진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해방후 평화적 민주건설시기에 벌써 우리 문학은 당문예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력사적 현실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급속히 장성하는 사상미학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시, 소설, 희곡, 아동문학 등 모든 형태에 걸쳐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한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리찬), 장편서사시 《백두산》(조기천)의 창작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하여 찬란히 꽃피어나는 주체문학의 새 모습을 온 누리에 자랑떨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혹한 압제하에서 입에 자갈을 물리웠던 우리 작가들은 해방된 기쁨과 걱정을 안고 무엇보다먼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온 겨레의 끝없는 환희와 감격을 자랑차게 노래하고 감명깊게 그려내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한 좋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서정시 《우리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한식), 단편소설 《장군님을 맞는 날》(강훈), 희곡 《장백산》(박령보),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박령보), 영화문학 《내 고향》(김승구) 등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받드는 뜨거운 흠모심과 충성의 결의를 노래하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하는것은 해방후 첫 시기부터 우리 문학의 줄기찬 흐름으로 자랑스러운 기풍으로 되었다.

서정시 《우리는 나서자 영예로운 길로》(리원우), 《장백산》(한명천),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에 드리는 시》(김조규), 《당의 기발아래》(안룡만), 가사 《애국가》(박세영),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김우철)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형상한 작품들,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을 자랑차게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도 이러한 흐름의 갈래를 이루고있다.

해방후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문학의 주요한 주제분야로 된것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인민이 수행한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과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창조적 로동,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다. 서정시 《푸른 벌로 간다》(정문향), 《농촌위원회 밤》(김우철), 가사 《벼가울 하러 갈 때》(김순석), 단편소설 《개벽》(리기영), 《산곡》(황건), 장편소설 《땅》(리기영), 희곡 《복사꽃 필 때》(남궁만), 《바우》(한태천), 《비룡리농민들》(박영호), 《성장》(백문환) 등이 토지개혁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과 농민의 처지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변을 각이한 형태적 특성에 맞게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한 대표적 작품이라면 서정시 《로동법령송》(리정구),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정문향), 《축제의 날도 가까워》(안룡만), 가사 《승리의 5월》(박세영), 서사시 《동트는 바다》(동승태), 《생의 노래》(조기천), 단편소설 《로동일가》(리복명), 《탄맥》(황건), 희곡 《원동력》(류기홍), 《자매》(송영) 등은 로동법령과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의 실시로 나라의 맡아들로서 령도계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로동자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과 창조적 로력투쟁을 생동하게 그려낸 성과작들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서는 련시 《항쟁의 려수》(조기천), 서사시 《한나산》(강승한), 단편소설 《그 전달밤》(리동규), 《제2전구》(박태민), 희곡 《하의도》(남궁만), 《폭풍지구》(조령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해방직후의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매우 빨리, 매우 다양하게 개화발전하였으며 당과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문학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정서에 맞게 창작하며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본질적 특성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더욱 뚜렷해지고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

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인민군 용사들의 무비의 영웅성,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옹고 그리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야순적 만행을 폭로단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문학예술을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 되도록 그 사상미학적 교양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가슴에 새기고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 일떠선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에게로 달려갔으며 그들과 생사교락을 같이 하면서 전쟁승리에 이바지하는 전투적인 작품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인들은 무엇보다먼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며 높이 칭송하는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서정시 《장군님께서 오신 마을》(리택), 《수령님의 이름과 함께》(안룡만), 《사랑의 손길》(김우철), 《크나큰 그 이름 불러》(백인준), **《김일성장군님께》**(김영철), 《그이의 음성을 들으며》(정문향), 가사 《우리의 최고사령관》(김복원)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반드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주도적인 서정으로 하여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 충성의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용감히 싸우는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무비의 영웅주의를 높이 찬양하고 진실하게 그려낸 시와 소설, 희곡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조기천의 서정시 《불타는 거리에서》, 《나의 고지》, 《조선은 싸운다》들과 서정시 《나의 파발총》(안룡만), 《이 사람들속에서》(김조규), 《숲속의 사수 임명식》(박세영), 《어랑천》(김순석), 가사 《결전의 길로》(석광희), 《전호숙의 나의 노래》(심봉원), 《자동차운전사의 노래》(심봉원), 《문경고개》(조기천), 《샘물터에서》(최로사), 서사시 《어려리벌》(민병균), 단편소설 《불타는 섬》(황건), 《구대원과 신대원》(운세중),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천세봉), 희곡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한태천), 《바다가 보인다》(한성), 《그가 사랑하는 노래》(송영), 영화문학 《정찰병》(한상운),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김사량) 등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한 영웅적 조선인민의 불멸의 위훈과 그 승리의 요인, 정

신도덕적 풍모를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밝혀 보여 주며 침략자들의 몸서리치는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면서 인민들을 승리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거쳐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투쟁시기에 우리 문학은 또다시 새로운 과업을 받아안고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후시기의 복잡한 정세와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에서 문학예술의 역할을 높이며 문학예술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경향을 퇴치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1958년에 이르러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우리 인민의 사상문화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 고조가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사회력사적 조건에 맞게 문학예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년 11월 27일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일군들과 하신 담화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1964년 11월 7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등은 이 시기 급속히 발전하는 혁명적 현실에 맞게 문학예술이 공산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 문헌들이다.

이 불후의 고전적 저작물에서는 모든 문학예술 작품들을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도록 쓰는 문제, 위대한 력사적 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내어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 모든 종류와 형태를 다 발전시키면서도 영화와 소설 창작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긍정적 모범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교양할데 대한 문제, 사회관계의 성격에 따라 갈등문제를 옹계 처리할데 대한 문제와 같은 당문예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주어졌다.

이 시기에 와서 우리 문학의 주제는 비할바없이 넓어지고 생활반영의 형식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다.

정전후 복구건설에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 **《직맹반장》**(유항림), **《빛나는 전망》**(변희근), 장편소설 **《시련속에서》**(윤세중),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을 폭넓게 형상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제1부(천세봉),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한 중편소설 **《전사들》**(석윤기), **《도성소대장과 그 전우들》**(윤세중), 해방후의 준엄한 계급투쟁을 폭넓게 형상한 장편소설 **《개마고원》**(황건),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형상한 장편력사소설 **《서산대사》**(최명익),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력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민족적 및 계급적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그린 장편소설 **《두만강》**(1~3부, 리기영),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동틀무렵》** 제1부(엄홍섭), 아동중편소설 **《쌍무지개》**(강효순) 등 우수한 작품들이 련이어 창작 발표되어 독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일어나가던 시기에 천리마기수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개성적 특성이 뚜렷하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한 **《해주-하성에서 온 편지》**(김병훈), **《길동무들》**(김병훈), **《백일홍》**(권정웅), **《평북땅》**(리병수) 등 특색있는 단편소설들과 8.15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을 비롯한 격동적인 력사적 사변들을 폭넓게 형상한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 제1부(천세봉),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주인으로 된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세계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세기적인 사변으로 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그려낸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제1부(석윤기) 등이 창작되었는데 주제탐구의 혁신성에 있어서나 형상의 폭과 예술적 일반화의 수준에 있어서나 이 시기 소설문학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었다.

극문학과 영화문학의 창작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혁신적 성과가 이룩되었다. 온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공산주의적 덕성을 빛나게 형상한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리종순),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며 혁명가의 신념과 지조를 지켜나가는 조선인민 혁명군 너대원의 숭고한 풍모를 생동하게 형상한 박명보의 2부작 **《해바라기》**와 **《태양의 딸》** 항일혁명투사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의 지를 독특한 극조적으로 보여준 **《불사조》**(송영), 전후복구건설에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헌신적 투쟁모습과 무궁무진한 힘을 진실하게 그려낸 **《그립던곳에서》**(류기홍)과 **《위대한 힘》**(리동춘), 천리마시대가 낳은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그 사회교양의 거대한 감화력을 진실한 극적 형상으로 감명깊게 보여준 **《붉은 선동원》**,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발휘한 인민군 용

사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혁명적 동지애를 박력 있게 형상한 《우리를 기다리라》(한성),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가혹한 착취와 압제에 시달리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해방지구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지향을 극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낸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리종순, 최진) 등은 이 시기 극문학이 얼마나 진실하게 탐구의 세계를 넓혀나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영화문학창작에서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벌써 철도일군들의 증송투쟁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있는 《신혼부부》(주동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갈라진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의 열렬한 지향을 형상한 《어떻게 떨어져 살수 있으랴》(한상운, 양재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고향땅을 지켜 영웅하게 싸운 어랑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그린 《어랑천》과 같은 좋은 작품들을 내놓아 급속한 발전면모를 시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에 들어와서는 지식인출신 혁명가의 성장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준 《한 지대장에 대한 이야기》(리종순), 사회주의제도에서의 급속한 인간장성과 천리마기수의 사상정신적 특질을 빛나게 형상한 《정방공》(한성),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한생을 후대육성에 바쳐가는 교원혁명가의 높은 정신세계를 펼쳐보여준 《인민교원》(한상운, 허용삼), 미제의 침략적 본성, 교활성과 악랄성, 멸망의 불가피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파헤친 《최학신의 일가》(백인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치적각성과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낸 《성장의 길에서》(백인준) 등 문학성이 강화되고 인간학적 면모가 뚜렷한 무게있는 영화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 시문학분야에서도 자연과 사회와 인간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천리마의 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벅찬 현실을 반영하면서 그 주체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양상이 다양해졌으며 민족적 정서를 보다 질게 풍기게 되었다. 조선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벌어진 력사적 사변들과 실재한 사실들을 시적 계기로 하여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정서깊게 노래한 서정시 《날이 밝는다》(정서춘), 《크나큰 사랑》(최영화), 서사시 《밀림의 력사》(박세영),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보람찬 투쟁과 전진과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 천리마현실을 반영하고 천리마기수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서정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정문향), 시초 《평남관개시초》(리용악), 서정시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오영재), 가사 《천리마로 달린다》(남웅손), 《청년사회주의건설자 행진곡》(리호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

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영웅적 조선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바쳐진 서사시 《련대의 기수》(신상호), 《소년빨찌산 서강령》(김학연),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정서깊이 노래한 시초 《삼각산이 보인다》(조벽암), 서정시 《청계천에 부치여》(박산운), 《어머니 60 뉘 생일날에》(김조규), 4.19 인민항쟁용사들의 의로운 헌신적 투쟁을 정서깊이 박력있게 노래한 서정시 《마산은 행진한다》(신진순), 《소년영웅》(석광희), 《원썬들이 바리케트를 쌓고있다》(정서춘), 철천의원수 미제의 야수적 만행과 도덕적 파산을 준렬히 폭로단죄한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백인준) 등은 이 시기 시문학의 새로운 탐구와 다양한 발전을 말해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도록 이끄시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은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의 문학예술을 철저히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새로운 우리식의 혁명적 문학예술, 주체적 문학예술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고 그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 특성, 그 창작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밝힌 공산주의적 인간학리론, 형상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 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특성과 그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핵으로서의 종자와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한 종자리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최고뇌수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리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주체적인 창작원칙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리론 등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적 문예사상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리론들이다.

이 리론들의 관철은 결국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문학창작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하도록 이끌어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하여 모든 예술을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먼저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모든 형태의 문학을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의 경지에 올려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담당자인 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있다고 보시고 그들모두를 묶어세워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창작적 열정에 불타며 예술적 기량이 높은 충성의 대오로 꾸려나가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 현명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아래 우리 작가들은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축복의 노래》, 《조국의 품》, 《조선아 너를 빛내리》,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모범으로 하여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에게 기쁨을 드리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기울임으로써 70년대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자랑스럽게 맞이하게 되였다.

1970년대 주체시대,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피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 영화문학, 가극문학 등 여러가지 형태로 옮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주체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한것이다.

대전성기를 특징짓는 주체문학의 다른 또하나의 특출한 성과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건설에서 가장 절박한 시대

적 과업으로 나서고있던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수령형상창조 문제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주체문학의 크나큰 자랑이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형상창조를 주체문학건설에서 풀어야 할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세기적인 불멸의 혁명업적이 전면적으로 반영되도록 대형식의 장편소설로 창작하되 년대기식이나 일대기식으로가 아니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서 의의있는 사변들을 단계별로 반영하여 그 한편 한편이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밀접히 련관된 총서형식으로 묶어지도록 편마다 종자를 바로잡아주시고 인물관계의 설정과 이야기줄거리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1972년에 장편소설 **《1932년》** (권정웅)을 내놓은후 1988년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력사를 형상한 **《맞은 올랐다》** (김정), **《혁명의 러명》** (천세봉), **《은하수》** (천세봉), **《대지는 푸르다》** (석운기), **《근거지의 봄》** (리종렬), **《백두산 기슭》** (현승걸, 최학수), **《압록강》** (최학수), **《잊지 못할 겨울》** (진재환), **《고난의 행군》** (석운기), **《두만강지구》** (석운기), **《준엄한 전구》** (김병훈), **《봄우뢰》** (석운기), **《위대한 사랑》** (최창학), **《혈로》** (박유학)가 창작된데 뒤이어 1988년 같은해에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의 혁명력사를 반영한 첫번째 작품으로서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권정웅)이 창작출판된것은 주체문학의 높은 발전면모를 시위하는 력사적 사변으로서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 우리 문학은 단편소설 **《맞은 아침의 나라》** (고병삼), **《력사의 자취》** (권정웅), **《크나큰 사랑》** (리영규), **《눈적이》** (석운기) 등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화적인 사변들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 단편소설들과 그이의 어린 시절을 형상한 장편소설 **《만경대》** (황민), **《동트는 압록강》** (문희준), **《배움의 천리길》** 등을 내놓았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빛나게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풍모,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감명깊게 형상한 **《고요》** (리종렬),

《아끼시는 심정》 (박현) 등 단편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되고 그 작품들을 묶은 **《조선의 행복》**, **《영광의 시대》** 등 단편소설집들이 련이어 출판되는 가운데 1988년에 이르러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담력,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가시는 그이의 거

룩하신 영상을 다면적으로 철학적 깊이가 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아침해》(현승걸)가 창작출판되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또하나의 뜻깊은 사변이다.

이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또한 생활과 투쟁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새 형의 인간, 시대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힘을 넣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5 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천세봉, 리종렬, 박유학)의 창작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 길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로 된다.

이와 함께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1부 (석운기), 《불타는 시절》(김병훈)들도 각이한 처지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삶의 길을 찾아헤매다가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이다.

이 시기에 소설문학의 주요한 성과와 사상에술적 특성과 성과는 장, 중편소설 100 편창작전투에서 힘있게 시위된바와 같이 대형식의 작품이 활발히 창작되고 그 주제가 더욱 다양해졌을뿐 아니라 작가들의 탐구적 노력이 주체의 인간학의 경지에서 생활과 투쟁의 모범으로 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로 지향되고 그 성격장성의 역사가 풍부한 생활묘사에 의하여 기쁨진 화폭으로 펼쳐져있으며 작품의 주제사상이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되고있는것이다. 우에서 본 혁명전통주체의 작품들은 말할것도 없고 이 시기에 활발히 창작된 사회주의건설주체의 작품들과 역사적 주체의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찾아볼수 있다.

정전후 수도건설자들이 당의 호소따라 《평양속도》를 창조하면서 조립식 건설에서 일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영웅적 로동계급의 투쟁을 진실하고 박력있게 그린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학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의지와 원대한 구상을 받아안고 어지돈관개공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헌신적 투쟁과 로력적 위훈을 진실하게 형상한 장편소설 《생명수》(변희근), 해방후 새 조국 건설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어엿한 나라의 주인으로 새 사회 건설자로 자라나는 농민들의 성장과정을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그려 보여준 《새봄》(김규엽)을 비롯하여 《대지의 아침》(고병삼), 장편력사소설들인 《갑오농민전쟁》 1,2 부(박태원), 《늙새바람》상(홍석중),

중편소설 《불바람》(리종렬), 《불꽃》(박찬은), 《병사의 고향》(김동욱)을 거쳐 최근년간에 나온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 《야금기지》(허춘식), 《태백산줄기》(정기중), 《탄생하는 계절》(김수경), 《동트는 강산》(백보함), 《탄부》(김문창), 《청춘송가》(남대현), 《빈터우에서》(김보행), 《철의 신념》(김리돈) 그리고 《80년대속도》 창조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한 《자기 위치 앞으로》(엄단웅)를 비롯한 수많은 단편소설과 아동소설의 성과작들이 이 사실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진 이 격동적인 시기에 시문학분야에서도 문학예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끊임없는 창조적 양양을 일으켜 풍만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문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그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높이는데 시인들의 모든 창조적 탐구가 지향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창작에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 념원을 비롯한 주도적인 감정을 옹게 반영하는 문제, 산문화와 류사성을 없애고 독창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시적 체험을 깊이있게 하고 시적 일반화의 심오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시적 운율을 잘 살리고 언어표현을 생신하게 할데 대한 문제 등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므로써 우리 시문학은 시대정신의 우람한 메아리로서 전성기를 소리높이 자랑하게 되었다.

전성기 시문학의 발전면모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수령과 당,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신뢰, 끝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충성의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송가풍의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된것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면서 전체 인민이 수령님께 드리는 만수축원의 송가로서 창작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한평생을 바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이 땅에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일떠세우시여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온 겨레의 끝없는 감사와 그 불멸의 업적에 대한 열렬한 칭송, 해와 달이 다하도록 길이길이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일원단심 충성을 다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확고한 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는 절절한 소망과 념원을 순결하고 풍만한 정서로 뜨겁게 노래한 이 시기 송가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 시기에 시인들은 자신의 축적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탐구된 구체적인 시적 계기를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정도풍모,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매우 정서깊이 노래하였다. 서정시 《주체의 태양》(오영재), 《아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헌시》(정서촌), 《카룬의 화불》(박호범) 등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며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을 보다 일반화된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면 서정시 《최고사령부의 밤》(박세옥), 《해방된 조선의 첫봄에》(김진수), 《조국땅 한 گوش에서》(변홍영), 《옹해장에 오신 수령님》(리광근), 가사 《동지애의 노래》(리종순), 《눈이 내린다》(김재화) 등은 생활적인 계기를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정도풍모와 고매한 덕성을 정서깊이 노래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송가적 서사시로 불리우는 새형의 서사시형식의 출현도 이 시기 시문학발전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성과로 된다.

송가적 서사시는 구체적인 인물관계와 그 발전의 역사로서의 이야기줄거리가 없이 종자의 요구에 따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에서 주요하고 특징적인 역사적 사건과 생활일화 등을 그려보여주면서도 주로는 수령님의 위대성, 그 업적과 풍모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느낌, 그에 기초한 열렬한 칭송이 기본으로 되어있다. 1969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57돐을 맞으면서 창작발표된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는 그러한 송가적 서사시의 첫 작품으로서 문학사에 기록되었다. 이러한 송가적 서사시로서는 또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한 《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있으리》, 《조선의 어머니》 등이 있다. 이 시기 송가문학의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드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와 그이께서 정도하시느 조선로동당을 높이 칭송하는 송가작품들의 활발한 창작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당을 칭송하는 송가작품의 창작이 날로 더욱 활발해진 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것이였다.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백인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노래》(석광희) 등 송가작품들이 창작되어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의 노래로서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가사들은 독창적이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원숙하고 세련된 정도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꽃피

워나가는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우리 당의 권위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시고 인민들에게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시대의 향도성으로 우러러따르며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철석같은 신념으로 일관되어있다.

조선시문학사에 1970년대 전성기의 새로운 장을 장식한 이러한 송가작품의 창작은 전체 시인들의 심장을 틀어잡은 시대의 사조로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인민적인 흠모와 존경, 충성의 열정을 담은 송시들이 수많이 창작되어 11권에 달하는 시집 《향도의 해발 우러러》에 수록되어 출판되었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한결같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주체시대의 향도성으로 우러러 높이 칭송하는 뜨거운 정서로 일관되어있으면서 시적 계기와 양상이 다양하고 시형상의 개성적 특성이 뚜렷한것으로써 시인들의 진지한 탐구적 노력과 이 시기 시문학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말해주고있다.

서정시 《조선의 영광》(정서촌)이 시대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어 조선의 영광으로 빛나고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광활한 미래를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정도풍모를 웅심깊은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면 《2월의 꽃바다》(리영백), 《2월의 흰눈송이》(홍현양), 《네가 지닌 오늘의 그 영광》(정문향), 《위대한 탄생》(오영재) 등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을 축복하는 겨레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의를 노래하고있고 《2월의 영광을 노래합니다》(리택), 《위대한 날에》(최영화), 《백두의 새날》(김철)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엄한 풍모를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불멸의 선언》(최승철)과 같은 작품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을 노래하였고 《한없이 높이 솟아있어》(남태범), 《눈내리는 한밤에》(계훈)

등은 아버지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충성을 다해가시는 그이의 숭엄한 풍모를 높이 칭송하고 있으며 《축복받은 로동일이 흐른다》(김종백), 《바다로 땅이 흐른다》(조빈), 《속도전청년돌격대》(차영도), 《묘향산의 두봉화》(구희철), 《묘향산등산길》(변홍영), 《백두의 흰눈을 어깨우에 받으시며》(김재운), 《세월이여 네가 말해다오》(김우협) 등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 걷고 걸으시며 현 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참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그이의 정도풍모에 대한 칭송이 주정을 이루고있다. 이와는 달리 서정시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바다는》(리계심), 《사랑의 손풍금소리》(김조규), 《위대한 사랑의 해발은 대양만리

에도》(림호권), 《당의 아들》(김기호), 《전사의 삶》(백의선), 《아들의 생일날》(한기운) 등과 《세월은 가도가도》(김재운), 《이른봄날에》(리일복)를 비롯한 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8)에 실려있는 서정서사시들은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모두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깊은 서정으로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대전성기 송가문학의 풍만한 화원에는 또한 서정시 《사랑의 품》(문재건), 《2월에 사는 마음》(김석주) 등과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진실한 서정으로 펼쳐보인 작품들도 있으며 《70 일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누리에 빛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불멸의 사적자료에 기초하여 그이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끝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충성심을 서사시적 화폭에 담아 열정적으로 노래한 서사시 《불타는 해》(백하)가 80년대 시문학의 높이를 시위하고있다.

이 시기에 우리 시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칭송을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백전백승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칭송으로 시화한 송가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영광과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인 우리 당에 대한 표상이 하나로 융합되어있기때문이다. 서정시 《어머니》(김철), 《당이어 그대 부름이라면》(윤두만), 가사 《당은 어머 니모습》(배현평), 《내가 자란 품》(김경기), 《어머니 당의 품》(김성조), 《내 삶이 꽃피난곳》(박옥), 《내 안겨사는 품이여》(백수길) 등이 이를 잘 말해주며 특히 리정술의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전동우의 가사 《전사의 의리》,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등은 전인민적 체험에 기초한 그 서정의 진실성과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심장의 노래로 널리 불려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면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사상리론가,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시대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칭송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그이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가 태어나고 그이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의 고향집이 복구되었으며 정일봉이 세상에 소개되는 등 민족적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나자 만민의 간절한 축원을 담아

이러한 력사적 사실들을 노래한 박미성의 가사 《김정일화》, 《백두밀영의 고향집》, 《남해가의 붉은 꽃》, 리정술의 가사 《빛나라 정일봉》 《눈꽃이 핀 고향집》 등이 창작발표된것은 시문학사에 특기할 사변으로서 이 시기 우리 나라 시가발전의 기본취향을 반영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수위에 모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그 주인인 사람들 모두가 개조되고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장엄한 현실은 시인들을 격동시키고 칭송과 찬탄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게 하였다. 《어디 가나 사랑의 바다여》(김희중), 《행복한 인민의 나라여》(박세옥),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홍현양), 《조국의 흙》(허남기) 등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읊은 서정시들에 차넘치는 희열과 고마움과 전진에로의 신념의 서정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당이 진두에서 이끌며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만복을 누리고있는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대한 열렬하고 숭고한 사랑을 인민적인 언어로 절절하게 노래한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은 다감하고 뜨겁고 민족적 정취가 그윽히 풍기는 서정과 철학적 깊이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조국애의 격정이 솟구치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조국땅 방방곡곡에 세계적인 대기념비를 수물처럼 세워나가는 우리로동계급과 청년들,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 위훈을 노래한 수많은 시작품들의 그 어느 한편을 보아도 한결같이 벅찬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긍정과 찬양이 주정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이 거세찬 맥박과 후더운 사랑의 숨결과 격동적인 물조로 높뛰고있는것을 느끼게 된다.

시조 《강선의 붉은 하늘아래서》(김우협), 《건설에 대한 송가》(박호범), 《영육의 뭉까지》(구희철), 서사시 《탐사대원의 일기》(김봉철), 《대동강》(오영재), 서정시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리광제), 《나의 중대》(김시권), 《수령선 저기로!》(김석주), 가사들인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김두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송찬웅), 《주체의 요구대로 조선은 나아간다》(안창만),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김재화)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심화되는데 따라 특히 혁명전통주체의 시창작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서정시 《해발》(구희철), 《어머님의 그 자옥은...》(김정곤), 《영원한 충성의 노래》(동

기춘), 《회령땅에 오신 날》(정렬), 장시 《영원히 빛나라 충성의 해발이여》, 가사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윤석범) 등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품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한 작품들, 서사시 《사령부의 방차대》(백하), 서정시 《영광의 땅》(차승수), 《사랑의 사적비》(김재운) 등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끝없는 충실성을 칭송하고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답사과정의 시적 체험세계를 정서깊은 시형상으로 펼쳐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 시기 조국해방전쟁주제와 군사물주제의 대표적 작품으로서는 서정시 《철령》(리범수), 시조 《빛나라 영웅의 산아》(김기호), 서정시 《미제에게 죽음을 주라》(김시권), 《사격장에서》(김석주) 등을 들수 있으며 반파썸민주화, 반미자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념원을 노래한 대표적 작품들로서는 서정시 《흙》(김상훈), 《철창속에서》(최승철), 《복수자의 선언》(오영재), 가사 《반제반미투쟁가》(송찬웅), 《조선은 하나다》(안창만) 등을 들수 있다.

우리 시단의 이렇듯 풍성한 열매는 재능있는 신인들의 끊임없는 배출, 때묻지 않은 주체의 관점에서의 세계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시적 발견, 흰눈과도 같이 순결한 정서로 설레이면서 탐구와 사색의 여운이 나래지는 그들의 깊이있고 뜨거운 시형상의 창조와 떼여놓고 말할수 없다. 스무살안팎의 꽃나이처녀의 심장의 《고백》으로 엮여져 옷깃을 여미지 않고서는 말할수 없는 숨엄한 시의 세계를 펼쳐보여준 주옥양의 시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나 위대한 조국과 참된 삶에 대한 철학 적 사색을 정서깊이 시화한 애 어린 고등중학교 학생 김준학의 시 《조국이여 그대의 생은 어느 계절부터 시작되었느냐》 만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며 영화예술창작에서 영화문학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1960년대 후반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20여년간 영화문학은 그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장편영화문학 《조선의 별》(1부~10부 리종순)이 이 시기에 우리 영화문학이 올라선 사상예술적 수준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영화문학 《누리에 붙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친위전사》, 《기다려다오》, 《유격대의 오형제》(1~3부) 등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혁

명로선을 관철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충성을 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사상정신적 품모를 형상한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이 또한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 시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밑에 영화는 당보의 사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는 당의 정책적 요구가 빛나게 실현되면서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알아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다는 철학적인 종자를 심어놓고 로동계급의 혁명화문제를 깊이있는 형상으로 밝혀낸 영화문학 《로동가정》 상하권(박봉학, 최용수)을 비롯하여 《꽃피는 마을》(한복규), 《우리 집 문제》(리희찬)와 그 속편들 등 사회의 각계층 인민들의 혁명화과정을 각이한 양상으로 특색있게 형상한 영화문학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을 감명깊게 형상한 《이 세상 끝까지》, 순결한 당적 망심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면서 거창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당일군들을 형상한 《군당책임비서》, 《보중》, 숨은 영웅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상정신적 품모를 인상깊은 형상으로 그려내면서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명한 《열네번째 겨울》, 《청춘의 심장》, 《도라지꽃》, 《자신에게 물어보라》 등 리춘구의 영화문학작품들과 세상에 널리 알려진 락원의 10명 당원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의의있고 감동적인 예술적 형상을 창조한 김희봉의 3부작 영화문학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고결한 삶》,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주체형의 지도일군을 형상한 《초행길》(한상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낳았고 기옥자도모르던 한 평범한 농촌녀성이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한 영화문학 《요람》(오혜영) 등은 그 생동한 실례로 된다.

이 시기 우리 영화문학의 빛나는 성과는 우의 실례에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흐름을 각이한 측면에서 반영하면서 그 주제와 양상이 매우 다양한 점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무력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을 보위하는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고있는 영웅적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면모와 영웅적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한 영화문학 《전사의 맹세》 1, 2부(주동인), 《월미도》(리진우), 《목란꽃》(김영준), 《이름없는 영웅들》(1부~20부) (리진우),

《려단장의 옛상관》(리성일),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잔재와 사업작풍과의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새 세대의 성격적특질을 생동한 생활적 화폭으로 형상한 영화문학 《사과 딸 때》(김세륵), 《처녀지배인》(박봉학), 《농산기수》(홍진숙), 《다시 만난 전우》(설주용), 《압연공들》(김선홍), 영웅적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굴의 투쟁,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을 진실한 화폭으로 형상한 영화문학들인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화선에서 부르던 노래》(김세륵), 《마을을 지켜싸운 인민무장대》(류기홍), 《세동서》(지재룡), 일체의 식민지노예로 끌려가 이국땅에서 피눈물이 나는 고역살이를 하면서도 애국의 넋을 고이 간직하였으며 8. 15 해방후에는 공화국 공민된 자랑을 안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 억세게 싸우고 있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애국투쟁과 조국통일념원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있는 영화문학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허남기), 《은비녀》(김수중), 《봄날의 눈석이》(리춘구), 역사물주제의 새 경지를 개척한 영화문학 《홍길동》(김세륵), 《림격정》(김세륵) 등은 대전성기의 우리 영화문학이 얼마나 다양한 주제의 특색있는 작품들로 풍성한 대화원을 이루고있는가를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극적 형상으로 훌륭히 재현한 희곡 《승리의 기치따라》, 《혁명의 새 아침》, 《위대한 전환》의 창작으로 극문학사에 새 장을 기록하면서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 시기 극문학은 연극혁명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등을 오늘의 무대에 다시 올리는 세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그 구성형식과 극조직에서 전혀 새로운 면모를 갖춘 《성황당》식 극문학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의 끊임없는 배려속에서 아동문학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아동문학작

가 대렬이 급속히 늘어나고 동요, 동시, 동화, 아동소설 기타 아동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어린이들의 연령적 및 심리적 특성에 맞는 형상형식이 꾸준히 탐구되는 가운데 그 사상예술적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순결한 아이세계를 펼치면서도 사상적 대가 바로 서고 전진의 기상이 나래치며 민족적 특성이 뚜렷한 예술적 풍격을 갖추게 된것이 오늘 우리 아동문학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80대의 로작가가 노래한 동요《저 하늘이 높다 해도》(윤복진)나 녀성아동작가 림금단의 서사시 《사랑의 노래》, 《새 싹이 움틀 때》만 놓고 보아도 아동문학에 대한 우리 당의 배려가 얼마나 크고 우리 아동문학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뜨겁게 느끼게 된다.

위대한 향도의 해발아래 룡성변영하는 어머니 조국의 품에서 이렇듯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으로 수놓아진 주체문학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과 그 빛나는 성과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결히 결합시킬데 대한 시종일관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우리의 평론문학은 우리 당 문예전선의 전초선에선 초병으로서 당문예정책의 선전자, 옹호자로서 불멸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당문예정책을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상의 발현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힘차게 달려왔으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대를 이어 전해야 할 귀중한 민족적 재부로 되는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가꾸는데 응분의 기여를 하였다.

우리 작가들과 평론가들은 앞으로도 우리 당 문예정책과 주체문학건설에서 쌓아올린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관철해나감으로써 당문예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사랑하는 조국

김시권

사랑의 뜨거운 정을 다 부어
내 한생을 그대에게 바치는것인가

내 그대의 언덕에 불을 대고싶음은
처음 민청회장 달고 기뻐 덩굴던 잔디밭
야영의 흰모자 쓰고 등산길 오르던
정다운 추억의 자욱들 못잊기때문인가

처음 대학의 대리석계단을 오르며
창밖은 강의실에 앉아
푸른 꿈을 안고 가슴 울렁이며
청춘이 꽃피던 나날을 못잊어서인가

그대가 아니던가 전화의 날엔
내 군복어깨우에 별을 달아주며
포화속 돌격의 언덕으로 총창높이 나가게 하며
청춘과 미래를 수호케 해준 조국이어

얼마나 그대는 나를 장하게 키웠던가
재더미 된 거리에 삽을 쥐고 나서며
내 랑만의 웃음 안고 층층 벽체를 쌓으며
창조자의 리상 밤하늘의 별처럼 빛내주었거니

오늘은 그대가 나를 한품에 안아
락원의 창밖은 보금자리에 앉혀주고
인간의 행복이 꽃피는 주체락원을 마련하여
내 삶의 보람 한껏 안겨준 조국이어

아, 은혜로운 조국이어
그대는 내 행복의 창조자
그대는 내 권리의 수호자
그대는 내 존엄의 영광

그대 없이 내 무엇이 남았을것인가
어린 팔머슴으로 풀덤불속에 묻혀
내 운명은 이미 한줌의 흙이 되어
무덤도 없이 가련히 끝났으리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내 처음 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꽃피워주신
락원에서

내 가장 행복한 생의 절정우에 섰나니
자주인간으로 보람차게 살라고

조국땅우엔 만풍년의 황금전야 펼쳐주시고
조국의 창공엔 가득히 공장지붕들 엮어주시고
조국의 산밭엔 푸른 숲이 내 희망처럼 설레게
하셨구나!

나날이 내 행복과 영광을 받아안을 때마다
수령님 우리러 지도자동지 우리러
축원의 꽃다발 안고 만수대계단을 오르며
감격의 자욱자욱이 어린 조국땅이어

얼마나 가슴 벅찬 한생의 기쁨
얼마나 크나큰 한생의 영광을 안은
주체의 강대한 조국의 한 공민으로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나를 세워주셨는가

조국이어 그러기에
그대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은
위대한 수령님품이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품이기에

나는 사랑하노라 조국이어
이 세상 가장 긍지높은 삶을 준
이 땅의 공원과 거리, 새와 꽃
강과 산 맑은 하늘과 풍요한 땅을

여기에 내 사랑하는 집이 있고
여기에 내 보람찬 일터가 있어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뜻을 꽃피우는
내 삶의 미래는 얼마나 더 행복할것인가

아, 조국이어
이때문에 이 가슴속의
뜨거운 피방울들의 마지막까지 다 담아
내 한생을 그대에게 바치노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잇든 불멸의 이야기

(제 6 회)

새벽에 걸어온 전화

합박눈이 펄펄 내리었다. 혁명가극창조자들을 축복하는 꽃보라인가, 가벼운 미풍에 춤추며 놀리는 눈송이들은 대극장지붕에도, 대동강 기슭에도 소복이 내려와 쌓였다.

1972년 11월 29일 뜻깊은 이밤, 평양대극장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오후 6시에 시작된 그이의 가극형상지도는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끝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극장문을 나서실 때는 내리던 눈도 뜰해지고 사위가 고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면 모든 장면들을 다 완벽하게 형상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창작가, 예술인들은 또다시 무대연습에 들어갔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하지만 이제 새날이 밝아 래일이 되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된다는 기쁨으로 하여 새힘이 용솟기만 하였다.

어느덧 새벽 3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어데서 오는 전화일가?)

무심히 송수화기를 들던 한 작가는 어쩔바를 몰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정이 넘도록 무대연습을 지도하시고 극장문을 나서신후에도 쉬지 못하시고 계속 가극형상문제를 두고 사색에 잠겨 계시었다고 생각하니 작가는 뜨거운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뉘엿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가극의 2장 2경에 나오는 녀성방창가사를 상기해보았다.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갈수록 더하는건 슬픔뿐이요
쌓이고쌓이는건 천대와 멸시

이여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금 전

화로 고치라고 일러주신 가사 두줄을 들여다보았다.

《쌓이고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전화를 받던 작가도, 옆에 있던 연출가도 순간에 얼굴이 확 붉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극창작초기부터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모든 노래들이 다 명곡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은 노래를 하나 만들어도 오늘이나 래일만이 아니라 몇 세기후에 가셔도 불리워질수 있도록 가치있게 만들어

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그들은 가사의 시어 하나 옳게 쓰지 못하고서도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슬픔이 《더해간다》는것보다 《쌓인다》로 하는것은 얼마나 더 정확하며 천대와 멸시가 《쌓인다》는것보다 《더해간다》로 하는것은 얼마나 더 정확히 제자리에 들어맞는 표현인가.

비록 한편의 짝막한 가사이지만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각색하는 혁명가극에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음미하고 또 음미해보시며 부정확한 표현들을 찾아내시고는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우리가 고요히 잠든 새벽,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걸어주시는 사랑의 전화를 받으며 창작가들은 진정 흐르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마치시였으나 작가는 송수화기를 굳게 틀어진채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헤아리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8일어간에 두차례나 총판통연습을 지도하시고 29일에는 자정이 넘어 극장문을 나서시였는데 이튿날인 30일 새벽에 또다시 전화로 찾으시여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새벽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완벽

한 형상으로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서는 과연 어떤 립장과 자세, 탐구정신을 가져야 하는가를 또 다시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는 것이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로고와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모든 노래가사들은 주옥같이 다듬어질수 있었다.

심장으로 쓴 글

문재건

흰눈 덮인 백두밀영
분비, 가문비 울창한 수림새에
하얀 방수포 가리운
귀중한 구호나무들

아늑한 서재
책장이 아닌
여기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나는 불멸의 글밭들을 읽는다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들은
한권 한권의 부피 두터운 장서인듯
심원한 뜻이 있어
내 선뜻 발걸음 떼일수 없고

한자한자의 글밭은
천만근의 무게로
이 가슴에 안겨와
울렁이는 이 심장 달래일수 없구나

불같은 충성심이 담겨지고
필승의 신념으로 고통치는
이 불멸의 글밭들

그것은
수령과 조국, 인민에 대한
뜨거운 흙모와 사랑의 서사시
장엄한 송가여라

이국의 광야를 헤쳐
총칼의 숲을 헤쳐
조국땅의 한줌흙을 쓰다듬으며
감격의 눈물 흘리던 투사들
이 땅에 남긴 불멸의 글밭들이여

손끝으로 쉽게 종이장에 쓴 글이라면
이렇듯 우리 가슴 울릴수 있으랴
불타는 심장으로
또박또박 새긴 글밭이기에
세월의 눈비에도 씻기지 않고
력사의 증견자로 살아있나니

백두산 줄기 뻗어 굽이굽이
이 땅의 북변에
투사들 자욱 어린 그 모든곳에
불멸의 의지는 새겨졌나니

아, 불멸의 혁명전통을 노래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자랑하며
대로천문헌고는
이 땅우에 솟아있어라

심장으로 쓴 글밭이기에
영원한 메아리로
세월과 세월을 넘어
울려퍼지리라
귀중하고 귀중한 우리의 재보
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여

겨울의 백두산으로

백 하

어찌 멈출수 있으랴

휴식이 없다
허리치는 눈길 70리
백두의 행군길에는
휴식이 없다

쓰러져 눈덩이를 씹어도
다시 무릎을 세운다
다만 움직인다
행전을 친 다리들이

이따금 고통구호소리
말할 힘도 아낀다
다만 들린다 걸음걸음
머리우의 붉은 기폭소리

허리에 찬 주먹밥도 돌덩이
어깨에 멘 물통도 얼음덩이
혹한과 눈보라와 가파로운 령길
하지만 쉬지 않는다

누구도 멎지 않는다

아, 머리 들면
못잊을 그날
저 백두산정으로
눈보라 뚫고 오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
그 숭엄한 모습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되리
자욱마다 높아지는
그 하나의 각성뿐

어찌 멈출수 있으랴
어찌 설수 있으랴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가는 이 길에
투사들의 땀이 살아있는 이 길에

만병초가 속삭이네

사십리 눈무지를 헤치고
끝내 쓰러졌노라

나의 백포자락은
백두의 눈바람에 펄럭인다
어서 가잔듯...

아직도 백두산 마루는
아득한 삼십리 한끝...
깊은 눈구덩이속에 누워
가쁜 숨을 뿜는다 뿜는다

순간 흰눈보라기둥이
내리덮치누나 나를 물어버리려누나
번쩍 눈을 뜨니
한길 눈밑에 파아란 잎새
만병초의 싱싱한 잎새

나에게 속삭이네, 귀가에 속삭이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백두밀림을 한번 뚫았거든
눈을 박차고 일어나라

백두에 한번 뿌리내리면
꺾일줄도 시들줄도 모르나니
천겹 만겹 눈이 덮쳐도
곳곳이 머리 쳐들고
사철 푸른 내 잎새를 보라》

나의 백포는 깃을 접지 않았다
하늘에 솟아 나래친다
그러자 만병초의 그 목소리
이번엔 머리우에서 들려오누나

흰눈 덮인 천지

아름다워라 흰눈 덮인 천지
신비로운 은구슬의 호수
세상의 깨끗함과 정결함
여기에 다 담겨있었던가

빛을 뿜누나, 억만 진주 설레는듯
백금같은 순결함의 정화
한번 굽어 가슴속 갈피갈피
내 마음 맑게 가셔주누나
아, 백설을 인 하늘못
백두의 고결한 녀의 호수
허나 겨울의 이 산정을 밟지 못하면
그 한점 순결함도 주지 않으리

주지 않으리, 저 아득한 하늘밑
흰 등관우에서 쳐다만본다면
백두산은 가슴을 헤쳐
한조각 마음도 주지 않으리

낮을 익히자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출발지점에 누구누구섰던지
알아선 무엇하리
시작점엔 누구나 설수 있는것을

허지만 얼굴들을 보자
그대가 초면이든 구면이든
마구 불안고 등을 치며 돌고싶은
백두산 마루의 상봉이여

두터이 성에 덮인 목도리우에
구슬맺힌 눈들이 마주 웃는다
알수 없다, 누군지
허지만 또 마주서고 또 마주서본다

모른들 어떠랴
친애하는 그이께 한몸 바치려
결심 품고 올라선 충신들이
여기 겨울의 천지기슥에 모였거늘

낮을 익히자 백두산마루에서
우리 당의 위업에 한생을 바치고
기쁘게 마지막미소를 지을
생의 그 종착점에도
이렇게 함께 설 우리가 아닌가!

따스한 눈보라

가사

정답게 흐르는 소백수 기슭에
푸른 하늘 떠이고 높이 솟은 봉우리
아, 정일봉 그 이름도 친근하여라
락원의 강산을 지켜선 인민의 정일봉

간절한 념원 담아 불려주던 자장가
산정의 메아리로 오늘도 울리는가
아, 정일봉 불수록 가슴뜨거워라
영원한 행복을 지켜선 인민의 정일봉

내 처음으로 느껴보노라
눈보라의 훈훈한 감촉
백두산상에 오르니
홀연 겨울이 물러갔는가

겹겹이 감은 목도리를 풀어
하늘우에서 고드름을 터니
온 얼굴에 매달렸던 얼음조각들
광풍에 날려 창공에 번쩍인다

천지의 흰눈우에 그림자 그을며
또한차례 눈보라장막 서서히 밀려와도
나는 봄날의 정원을 거니는듯
백두 산정을 태평스레 걸노라

또다시 부석은 소리치며 날고
못가의 철쭉타래는 아츠럽게 울부짖어도
따스만 하구나 백두의 눈보라
너는 이젠 정다운 나의 벗

활동같이 흰 기발대사이로
눈부시게 열린 천하를 굽어보나니
아, 이제는 이 붉은 기폭 추켜들고
천리 또 천리 달음쳐가리라

백두의 눈보라 이리도 훈훈하거늘
우리 넘지 못할 설령이 있으랴
천지의 눈이 묻은 이 억센 발로
백두에서 시작된 그 길의 마지막기슭을 밟으리

항일의 행전을 친 이 다리로
공산주의 새 언덕에 우리 먼저 오르리
아아,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
당의 전사, 우리의 더운 숨결아!

1989. 2. 21
-백두산정에서-

인민의 정일봉

박미성

세기의 해돋이를 맞이한 기쁨 안고
천리수해 파도치며 잠들지 못해라
아, 정일봉 영광의 그 이름 빛나라
인류의 미래를 지켜선 인민의 정일봉

아, 정일봉 찬란한 력사의 제일봉
공산주의 붉은 노을 여기서 맞으리

어머니조국이어

리 맥

기쁘구나
우러르면 푸른 하늘이
숨을 쉬면 향기로운 바람이
가없이 트인 들판
팔을 벌려 안아보고 쓰다듬어보고싶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어

푸른 숲은 미풍에 설레이고
강줄기들은 쉽없이 굽이쳐흐른다
별에 탄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흔들리는 로인들의 흰 채수염
아, 내가 사는 이 정든 땅이
한없이 복을 주고 영예로움을 주는구나

목이 메어 환호하던
그 잊을수 없는 재생의 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이리도 멀리 달려온것이냐

새삼스러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
항일의 투사들이 지니고 온
백두의 불꽃으로
우리는 얼어붙었던
대지위에 창조의 불을 지켰고
자유와 권리를 찾은 기적의 손으로
산도 강줄기도 들어옴기였다

로동화를 군화로 바꾸어신고

또다시 고난의 혈로우를 걸어
한치 한치의 땅을
붉은 심장으로 더웁히며
원췌에게 죽음과 패배를 안겨주었다

멀리도 달리어왔구나
또다시
복구와 건설의 낮과 밤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슬땀을 아낌없이 흘리었다

사랑하는 조국이어
그때문에 그대가 더 귀중하구나
옛날엔 오막살이 한간
무명 한자도 변변히 주지 못하였건만
오늘은 큰 용광로마다
붉은 쇠물이 펄펄 끓고
들판에선 프락포르소리 정답구나
강줄기마다 언제들이 솟아오르고
비단필이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광복거리며 순천의 하늘가
굽어보는 이내 눈도 부시구나
몇세기를 내 살아온듯 길가에 조용히 섰어도
거인처럼 높이 떠받들린듯하구나
어머니조국이어!
그대 영원한 품에서는
새로운 행복만이 태어나고 태어나는구나

나는 너를 떠날수 없다

정문향

내 고향산천이 아니어도
나는 너를 떠날수 없다
두고 못떠날 그 무슨
정든 사연이 있어서도 아니다

내 젊은 날 사랑을 속삭이며 걸던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새겨진 거리도 아니다
옛성문가에 기대여
언제 한번 깊은 회고에 잠겨볼ظ도 없이
내 살았건만 너를 떠날수 없다

아, 막아선 미국놈의 총칼에
한그루 나무마저 갈라진 분계선
끊임없는 적들의 도발과
미친듯 일으키는 불집으로
귀 아니 기울여도
총포소리 들려오는 개성

철사이 없이 날치는
야밤의 폭음과 조명탄에 놀라 깨는
아이들의 베개머리에서
너의 하늘을 지켜보며

나의 머리는 분노로 회여졌다

마주 보이는 조국의 절반땅이
눈물겹게 비쳐오는 너의 가슴에는
오늘도 피맺힌 원한이 몸부림친다
부모 자식들이 서로 갈라져
백발이 다 되여도 만나지 못한채
눈을 감은 그 원한이 목메는 가슴을 치며

아, 말없는 정적속에
언제나 불을 안고 사는 개성거리여
나는 너를 떠날수 없다
아직도 내가 가야 할곳이 있고
못잊을 인정이 때없이 나를 불러도...

내 비록 너의 짐이 되어
여생을 여기서 보낸다 하여도
나는 너를 떠날수 없다
너의 산천과 더불어
분노를 삼키며 살아온 그 모든 나날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속삭이고있기에

나는 떠날수 없다
메아리치는 민족의 넋이
온 강산을 그려안고
너의 산천에 불을 비빌 그날
조국통일의 그 력사적 첫 순간이
너의 길목우에 간직되어있기에

바로 눈앞에서
저 원한의 분계선표말이 뿔혀지고
하늘땅도 이를 가는 침략자 미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멸망을 고하는
그 최후를 나의 두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는 첫지점에 너는 있기에

긴긴세월 쌓이고 쌓인
뜨거운 눈물로 땅을 적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한품에 안겨
온 겨레가 가슴 붙안고 달려올
상봉의 첫 길목이여

그 어디 가도 나누지 못할
그 상봉의 첫 포옹을
너는 주리라 그날에
이 세상 그 어느 고향산천도
못잊을 인정도 줄수 없는
환호와 걱정의 소용돌이로
온 땅을 덮으며

너는 주리라
승리한 조국땅의 그 영광을
이름없는 저 풀설에도
흐르는 한줄기 개울물에도
겪어온 수난의 수천백배로도
헤아리지 못할 그 값높은 기쁨을
나의 이 가슴에도 안겨주리라

나는 아직 푸르다

원석파

나는 아직 다 피지 않았다
내 가슴에는 아직 꽃망울이 주렁지다
인생의 나무는 일흔 가까운 년륜을 새기건만
나는 아직 싱싱 푸르다

우러러따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렇듯 값높이 밝혀주신 인생의 가치
봄날의 즐거운 우뢰소리인양
내 피더운 심장을 이끌어니

그렇다, 우리 생의 작은 뿌리마다에는
그이의 사랑이 자양분처럼 스며들고
나래 퍼는 리상의 가없는 하늘에는
그이의 따사로운 빛발이 축복한다

설한속에서도 푸름으로 조국과 속삭이는
그런 나무가 부럽더니
백년을 하루같이 피여 강산에 향기를 주는
그런 꽃이 부럽더니
그 부러움이 오늘은 우리의것으로 되었구나

아, 산악을 깎아가는 세월의 비바람도
로쇠를 안고오는 생활의 파도도
내 충성으로 다져진 신념의 이마에는
로쇠의 잔주를 하나 굶지 못하거늘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받드는
가슴 흔드는 보람을 한생과 바꾸고저
나는 아직 싱싱 푸르다
백발을 참된 삶의 꽃으로 자랑하며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불쌍하고 가련한 꽃분의 신세
억울한 이 세상에 어이 살으리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다니
악착한 이 세상을 그 어이하리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나에게는 도울길 달리 없으니
이 약이나 가져다 달여드려라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명가사평(제 6 회)

아름다운 인정세계에 대한 감동적인 가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노래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의 가사에 대하여-

리상복

자주성을 위한 인류의 힘찬 투쟁은 멀리 전진하였다.

자주성에 대한 막을수 없는 지향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는 우리 시대, 력사적인 1989 년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명가요들이 깊이있고 세련된 시형상과 절절한 음악선률로 힘있게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가사들은 그 모두가 다 외워도 보고싶고 불러도 보고싶은 명가사들이다.

그것은 그 어느 노래의 가사나 다 내용과 형상이 고도로 집약화되고 가극의 특성에 맞게 시화되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식에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는것은 고상한 예술성과 높은 사상성이 결합된 가사를 창작하는데서 기본요구로 된다.》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 내용을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으며 어떠한 사상적 내용이 얼마나 높은 시적 형상으로 그려졌는가에 따라 가사의 사상예술적 질과 곡의 형상수준이 좌우되게 된다.

제 3 장 1 경에서 불리워지는 노래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의 가사는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는 철학성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가사는 악착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한없이 정직하고 선량하며 가난한 꽃분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하는 안타깝고 깊이 있는 호소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자주성이 유린된 착취사회를 저주하며 인정세계에 끝없이 이끌어간다.

불쌍하고 가련한 꽃분의 신세
억울한 이 세상에 어이 살으리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다니
악착한 이 세상을 그 어이하리

오직 어머니의 병을 고쳐보려는 한가닥의 희망과 아름다운 효성을 간직하고 모진 시련을 이겨가며 변화한 유흥거리에 나와 꽃을 팔지만 돈많은 부자놈들에게서 거지라는 모욕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도 또다시 꽃분이는 도적이라는 루명까지 쓰게된다.

그러한 꽃분이를 지주놈은 사정없이 때리며 사람을 사고 파는 거간꾼놈에게 팔아버린다.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갖은 수모와 멸시를 눈물로 고스란히 참아가는 한없이 아름답고 선량한 성품을 지닌 꽃분이를 기막힌 이 세상은 이처럼 악착스럽게 짓밟는것이다.

하기에 이 숨막히는 처지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간직하고 정성다하는 꽃분이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되어 약방주인은 약을 들고 나오는것이다.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나에게는 도울길 달리 없으니
이 약이나 가져다 달여드려라

가사는 꽃분이가 살아가는 치떨리는 저주로운 사회를 깊이 파헤쳐보이면서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가는 꽃분이의 기막힌 운명과 그 생지옥 속에서도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애써 일하는 꽃분이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흐르는 감정속에 진실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유홍거리 밤장면은 일제통치하의 심각한 계급적 모순과 사회적 부패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당시 사회제도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이었다.

여기에는 어질고 가난한 꽃분이를 한편으로 하고 착취계급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심각하고도 예리한 계급적 대조와 갈등이 놓여있다.

실로 유홍거리에 나타난 일제순사놈들과 배부른자들, 인신매매의 거간꾼, 인력거꾼, 도적, 거지 등 밤거리의 군상들을 통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과 썩고 병든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근면하고도 효성이 지극한 선량하고 깨끗한 꽃분이를 열렬히 동정하면서도 아름다운 효성만으로는 결코 살아갈수 없는 사람못살 사회, 착취계급이 판을 치는 더럽고 악착한 사회를 끝없이 저주하고 미워하게 된다.

꽃분이에게 강요된 머슴살이는 말할수없이 고달프고 비참하다.

가사는 이러한 피눈물로 엮어진 운명을 당대사회의 참예한 계급적 모순과 대립속에서 보여주면서 꽃분이에게 들쭉쉬지는 불행과 고통의 사회적 근원에 항거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꽃으로는 살수 없는것이 저주로운 당대사회였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고운것이 꽃분이의 인정세계이며 세상사람들은 그 마음에 끝없이 이끌려 그를 동정한다.

당대사회제도의 불합리에 항거하는 비운에 찬 서글프면서도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과 동정으로 이끌어가는 노래소리...

꽃으로는 못산다고 하였지마는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

훌륭한 가사는 그것이 담고있는 의의있는 생활과 뜻이 깊고 함축된 표현성, 생동하고 세련된 형상성과 철학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웅심깊은 사색의 바다를 펼쳐주어 그들을 무한한 열정과 창조적 세계로 이끌어간다.

가사는 사상적 내용이 좋아야 할뿐아니라 예술성이 높아야 한다.

가사의 정치사상적 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 정서의 힘은 단순히 거기에 담겨져있는 생활의 랑

적관계에 의하여 보장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지향을 얼마나 세련된 시적 형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가사에 시가 있어야 하는것은 가사가 서정의 한 형식이며 가사의 사상은 정서를 통하여서만 뜨겁게 흘러나올수 있고 사람들의 심장속깊이 침투될수 있기때문이다.

가사는 꽃을 파는 꽃분이를 통하여 그가 처한 사회계급적 처지와 심리세계를 집약적으로 폭넓게 보여주면서 나라없는 민족의 눈물겨운 생활과 슬픔을 뼈에 사무치게 통감하도록 느끼게 하고 있으며 계급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시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또한 풍부한 생활적인 축적과 섬세한 감정조작은 주인공 꽃분이의 불우한 처지와 어머니병을 고쳐보려는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의 정신세계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약을 주고 받는 약방주인과 꽃분이의 행동세계를 극적으로 더욱 고조시켜 사람들의 뜨거운 동정심을 깊이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가사는 시어를 잘 골랐고 그것을 문장의 구조에 맞게 잘 배합하였으며 운율을 잘 조성하였다.

가사는 그 흐름이 지내 조금하지도 처지지도 않아 운율조성이 매우 아름답고 순조로우며 특색있다.

운율이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음조적 특성을 가진 단어들의 일정한 반복을 의미할진대 이 가사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의의있다.

이 가사의 운율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부드럽게 흘러나오며 여운있게 안겨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흥분시킨다.

가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담아 철학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는 주옥같은 명가사로 되었다.

노래의 형상적 가치는 가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훌륭한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적 형상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 그것은 매우 큰 예술적 감화력과 생명력을 가진다.

이 명가사에는 글귀마다에 깊은 뜻이 깃들어있고 한두줄의 시행속에서도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큰 사상이 정서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사는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려는 목적밑에 창작된다.

가사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에서는 자주성을 위한 인간의 투쟁에서 인정세계에 대한 숭고한 사상감정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사상 예술적 품격과 철학적 깊이를 가진 아름답고도

고상한 시적 화폭을 창조하였다.

가사 《꽃보다도 네 마음이 더욱 곱구나》는 명가사로서 훌륭한 음악과 결합되어 사람들에게 참다운 인정세계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새 생활 창

조를 위한 투쟁으로 오늘도, 래일도, 앞으로도 계속 고무추동할 것이며 우리 인민들속에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

인생과 대

송찬웅

인생이란

자기 당대에 끝나는것이 아님을
그대는 이 가슴에 새겨주었어라

강선의 오랜 용해공

내 젊은시절에 만났던 벗이여
그대는 어떻게 그 어렵던 날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다 하게 되었는가

포연이 가신 강선땅에

천리마 나래쳐오르던 그때
우리는 자주 만났더라
쇠물이 불꽃 튀는 용해장에서
백양나무 설레이는 구내길에서

내 옛 수첩의 갈피갈피엔

그대 세운 하많은 위훈들과 함께
순란치 않은 인생행로도 적혀있어
나는 자부해왔어라 그대를 잘 안다고

아, 그런데 세월은 흘러

세 용해공의 아버지가 된 그대를
아들들과 함께 다시 만났을 때
내 얼마나 자신을 뉘우쳤던가

나는 미처 다 몰랐더라

그대의 일솜씨와 남다른 성미
알당긴 용해시간은 알고있었어도

그날에 벌써 움트고있던 깊은 속마음을

강철을 부어내는 용해공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절감한
눈바람 사납던 12월의 그날로부터
받아안은 그 믿음 너무도 커서
자기 한대에는 다 보답할수 없어
아들을 모두 용해공으로 키웠는가

용남이 해남이 공남이

세 아들이 태어나는 차례로
세상에서 가장 궁지높은 이름
《용해공》이란 세글자를 달아준 그대여

나도 자식을 가진 아버지

내 설사 값있게 살아왔다 해도
혁명의 대를 똑바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생의 말년에 가슴 아픈 후회를 남기게 되려니

아 인생이란

자기 당대에 끝나는것이 아님을
그대는 이 가슴에 새겨주었어라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들어
변함없이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혁명의 대를 똑바로 물려줄 때
생은 보람차고 대는 영원한것 아니랴!

봄의 발자취

한익훈

《불시에 뭘 보낼게 없구만. 이거래도 몸성치 않은 어머니한테 올리라구.》

최득권련대장은 외투밑에 얼추 걸쳤던 새 털목도리를 풀어서 류석의 실한 목에 감아주었다.

그리고는 류석의 실박한 어깨를 짚으며 마디마디에 그루를 박아 벌써 몇번이나 당부한 말을 곱씹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꼭 만나고 와야 해. 그래야 장군님께서 시름을 더실수 있거든.》

류석은 눈물이 핑 어린 커다란 두눈을 습벅이며 돌아서서는 무릎을 치는 생눈길로 씨엉씨엉 걸음을 내짚었다.

정오의 해빛이 반짝반짝 떨어져 눈이 부신 하얀 눈판우에 엄청나게 커다란 신발자국이 폭폭 찍힌다.

(거참 《43 문》으로 별명을 들을만도 해. 꼭 거부기등관갈다니깐.)

최득권은 새삼스레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찍혀 나가는 류석의 발자국을 여겨보며 시무죽이 웃었다.

어찌나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른지 어느새 수림의 그늘이 시커멓게 덮인 저쪽 등관끝에서 류석의 허우대 큰 몸이 움찔움찔한다. 구척장신에 황소같이 튼튼한 건강을 타고나서 누구나 열일곱 살로 선뜻 믿지 않는 류석의 한쪽어깨에는 배가 불룩한 피나리보짐이 매달려있다. 그게 실은 배낭만한 보짐이었건만 쩌 버그리진 류석의 어깨에서는 꼭 츠름바위에 조롱박이 대롱 매달린듯하다.

부지중 그 피나리보짐안에 가득 들어찬 오미자들이 눈앞에 빨갭게 떠오르면서 눈부리가 시큰해졌다. 어느새 류석의 모습은 무성한 밀림속 그늘에 삼켜져버리고 눈판을 지르밟는 발자국소리만이 그 무엇인가 절박하고 목메이는 사연의 속삭임처럼 나직이 들려온다.

…류석이 최득권련대에 온것은 2 년전이었다. 아니. 련대가 그를 찾아냈다는것이 정확할것이다.

우수촌지하혁명조직이 뜻밖의 단서로 드러나는 바람에 어머니와 작별인사도 변변히 나누지 못

하고 집을 뛰쳐난 류석이, 유격대를 찾아 몇달간 산속에서 헤매다나니 요행 련대가 그를 찾아내었을 때에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 행운의 건강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 이름모를 산속에서 무주고혼이 되었을것이다.

아직 신대원인 그는 전투에서나 생활에서 남달리 눈에 띄는것이 별로 없었다. 나이에 비해 몸이 요란하게 우람차고 말이 적다는것, 발이 엄청나게 커서 《43 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운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생활이란 불가사의한것이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류석이 뜻밖에도 련대장한테 퍼그나 인상을 진하게 주는 일이 빚어졌다.

집단부락에 틀고있었던 악질적인 일제 《토벌대》를 습격소탕하고 깊은 수림의 계곡에서 휴식하다가 다시 행군명령을 내린 때였다. 1 중대장이 달려와 류석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별수없이 행군을 지체시키고 몇사람이 찾으러 떠나려는데 저쪽골안에서 와락와락 관목들을 쓰러눕히며 류석이 황황히 걸어왔다. 웬일인지 한쪽다리를 몹시 절었다. 온 얼굴이 벌겋게 땀에 뭍고 찢어진 바지가랭이에는 피가 내배여있었는데 벗어쓴 모자속에는 오미자가 빨갭게 담겨져있었다. 오미자넝쿨을 따라 나무에 올라갔다가 출발나팔소리에 놀라 덤벼치는통에 그만 떨어져 이모양이라는것이였다.

당해야 할 꾸지람에 대한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순진한 어린 대원은 몹시 울적해있었다.

《오미잔 해서 뭘하자는건가!》

최득권은 의혹이 실린 눈길로 모자속의 오미자를 가리켰다.

《저, 천식증에 좋다고 해서…》

《천식증?! …그래 동무한테 천식증이 있었는가?》

《아니,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류석은 벌겋게 동한 얼굴을 숙였다.

《어머님이 천식증에 신고한단 말이지.》

최득권은 랑미간을 찌프리였다. 《빨리 치료를 받고 대렬에 들어서라구.》

류석의 어깨를 짚어주고 자리를 뜨는 최득권의

눈앞에는 자꾸 모자속의 빨간 오미자들이 떠올랐다. 순간적으로, 일제놈들에게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온 어머니, 그리고 그 살뜰한 애정속에 남다른 엉석받이로 키워졌을 류석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두시만 컸지 마음은 아직 어린애라니깐.)

천식중에 시달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항시 잊지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그 마음은 자못 장한것이다. 하나 조국을 광복하는 그날까지 서로 그 언제 만나보리라 장담할수 없는 엄연한 리치를 저 어린 류석은 도무지 이해하는것 같지 않았다.

오로지 혁명만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설한품에 남겨두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을 하는 자식을 남의 품에 떼여두고 총을 쏜 사람들의 그렇듯 높은 세계에 이르자면 아직 너무도 단련이 부족한 류석이었다. 이제 시간이 흐르느라면 류석에도 자연 혁명이라는 큰 뜻을 스스로 체현하게 될것이다.

그후에도 여러번 오미자나무에 붙어있거나 햇빛에 오미자를 말리우는 류석을 볼수 있었다. 덩지는 큰데 참으로 마음은 녀성적이라할만치 섬세한 류석이었다.

어느날 **김일성** 장군님께서 몸소 최득권련대에 찾아오시였다.

휴식중에 있는 대원들을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하얀 백포우에 빨강계 넉리여 햇빛에 반짝거리는 오미자를 한웅큼 집으시였다.

《좋은 약재군. 그런데 이건 누가 이렇게 알뜰히 뜯어 말리는가?》

《류석동무집니다.》

《아니 그 장수한테 기관지천식증이 있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최득권은 류석에 대해서 자상히 말씀올리였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장군님께서서는 손바닥의 오미자를 한알두알 매만져보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떼시였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참 우수촌이 여기서 얼마나 되오?》

《적게 쳐도 한주일걸음은 될겁니다.》

《멀구만. 그런데 류석은 어데 갔소?》

《방금 적정정찰을 나갔는데 인차 올겁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숨을 지으시였다.

《아들의 이 지극한 효성이 당장 어머니한테 미쳐졌으면 얼마나 좋겠소. ... 최동무, 앞으로 조국진군의 기회가 오면 꼭 우수촌에 들려가시오.

좀 에둘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조국으로 가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질게요.》

최득권은 가슴이 할랑거리였다.

자신은 여덟째 어머니에 대한 류석의 마음을 애뜻한 감정으로 리해는 하면서도 세월과 함께 자연히 그 연약한 마음이 능쳐지리라고만 생각했다. 했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실로 하찮은 자그마한 오미자를 두고 한 전사의 말없는 내심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려주실뿐아니라 그 소원을 당장 성취시켜주지 못하는것을 두고 이렇듯 마음 피로와하시느것이였다.

그날 최득권은 류석이네 모자의 상봉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임무로 가슴에 뜨겁게 새기였다.

그날이 드디어왔다. 장군님께서 얼마전 서강회의에서 력사적인 조국진군방침을 제시하신것이였다.

최득권은 조국진군준비와 관련하여 국내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정치공작원을 만나고 와야 할 임무를 류석에게 주었다. 오가는 로정에 우수촌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임무를 받은 류석은 당장 입이 해벌쭉해졌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늘 입이 무겁던 그는 놀라우리만치 기분이 들썩해가지고 련대장한테 우수촌의 제 고향사랑까지 늘어놓았다.

뒤뜨락은 참나무숲이 울바자를 이루고 마당앞에는 두그루의 키높은 돌배나무... 아마 이해에도 어머니가 돌배를 한독 맛있게 익혀놓았을게라며 군침까지 꿀꺽 삼켰다.

돌배나무가 선 언덕바지아래로는 사철 얼지 않는 여울물이 돌돌 흐르는데 참나무끝 어느 너럭바위밑에서 솟는 샘에 뿌리를 두고있어서 한가름에도 마를줄을 모른다. 무더운 여름철에 풍덩 뛰어들면 온몸이 금시 얼어들듯 차다며 체벌 얼어드는 형용까지 했다.

어찌나 귀맛이 나게 주어대는지 최득권조차 그리운 고향집마당에 들어서는듯싶은 짜릿한 향수에 젖어들었다....

류석을 배웅하고 천막으로 돌아오는 최득권의 기분은 날것처럼 흡족했다. 늘 가슴에 엉쳐돌던 시름이 혼연히 가시여지는 마음이였다.

어지러운 추격의 총탄속에 사라진 아들이 과연 어찌되었을지 알지 못하고 2년세월 가슴에 재가 앉았을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장군님의 어엿한 전사로 자란 아들을 만나게 될것이였다.

화약내가 물썬 풍기는 아들의 넓은 가슴에 안

기어 기쁨의 오열을 터뜨리는 어머니, 그 모습이
눈앞에 다감하게 그려져 최득권은 언뜻 가락이
잡히는데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갈 때에
꽃피어줄 붉은 바람 일어났도다

우등불감나무를 안고 전령병이 마주 오는바람
에 최득권은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노래를 아예
망쳤다.

《런대장동지두 못하시는 축이 아니군요.》

전령병이 실눈이 돼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해
해 웃었다.

《이것봐라, 그래 지금까지 날 도대체 뭘루 봤
어, 영.》

최득권은 두눈을 부릅뜨는체하다가 제풀에 꺾
꺾 웃으며 손을 해해 내저었다.

《팬한 소리야, 갈데 없는 엉터리지.》

X

며칠후 류석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왼쪽어깨에 심한 관통상을 입었다. 오
는 도중 《토벌대》놈들의 추격을 받았다는것이였
다.

류석은 임무수행정형에 대해서 보고하고나서
숨겨고리품속을 더듬어 런대장이 주었던 그 털목
도리를 꺼내었다.

(...?!)

최득권은 의아한 눈길로 통나무상우에 놓인 털
목도리와 류석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류석은 지지벌결게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를 만
나지 못하고 온 사연을 퍼그나 힘들게 번지였다.

맹랑하게도 《토벌대》놈들의 추격을 받게 되어
로정을 애돌다나니 우수촌에 들릴 계제가 못되었
다는것이였다.

《그것두 말이랴구 해?》

최득권은 대뜸 분통이 터져올라 주먹으로 탕
상을 내리쳤다.

손에 들린 호박물주리에서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가 불씨를 튀기며 날아났다.

《그래, 앞으로 장군님께 무엇이라고 말씀올린
다는거야. 형, 꼴쥬게 됐어. 어떻게 하나 그놈새
끼들을 따돌릴게지 그냥 쫓겨왔다는게 말이 되는
가, 영?》

초리들이 길게 뻗친 팔자형의 수북한 눈썹이
푸들푸들 뛰고 늘 살뜰한 인정이 풍기던 두눈에

서는 금시 시퍼런 불이 황황 쏘아질것 같았다.

류석은 머리를 꼭 짓속이고 눈이 녹아 방울져
반짝거리는 개털모자를 으스스지게 꺾 움켜쥐었
다.

풀무처럼 썩씩거리며 류석을 노려보던 최득권
은 쓰겁게 입맛을 다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다. 그리고는 뒤짐을 지고 코김을 히히 내불면서
천막한끝에서 한끝으로 성급히 왔다갔다했다.

《형, 내참... 형, 기가 막혀서...》

어머니도 못만나본데다가 못나게도 덜컥 부상
까지 당했으니 그 마음 오죽하랴 하는 가공한 생
각도 없지 않았으나 도무지 성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장군님의 그처럼 다심하신 관심이 계시
여 절 우정 보냈는데 어머니를 못만나고 왔다니
이게 어디 지각있는 행동인가.

《말은 바른대로 동문 초보적인 자식구실도 못
하는 불효자식이야. 어머니이 아들소식을 몰라
가슴에 재가 앉았겠는데 도대체 그냥 온다는게
말이 되는가.》

불나간다 활나간다 뽕양계 육사발을 안겨도 목
목히 고개를 짓속이고있던 류석이 얼핏 시선을
들었다.

《런대장동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숨속에 말끝을 흐리는 류석의 벌결게 상기된
얼굴에는 절절한 그 무엇이 강렬하게 내번지고
있었다.

최득권은 걸음을 멈추고 엄한 눈길로 류석의
뒤 말을 재촉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중
환으로 시달리시는 어머니를 돌보지도 못하시고
남만진출의 길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귀중하신 어머니를 여의신 장군님의 그 커다란
불행을 생각하면 저희들이야...》

류석은 그만 비틀어진 개털모자에 꼭 얼굴을
박으며 어깨를 들먹이였다.

억년 드눌지 않을 바위같이 든든하던 류석의
어깨가 물결치는것을 보는 순간 최득권도 때없이
파도우에 떠도는 배의 갑판에 나선것처럼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것을 다잡을수 없었다.

한뼘 김형직선생님과 아드님의 혁명사업을 떠
받들어주시기에 고생 많으셨던 강반석어머님, 깊
은 병환에 계시면서도 아드님을 남만진출의 길에
헌헌하게 떠나보내시며 애써 지으시던 그 밝은
미소가 정녕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이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 참기 어려운 절통한 비애가
최득권의 가슴속을 아프게 비틀었다.

《그래서... 그래서 동무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

하고 온 일이 장군님께 더 큰 피로움을 끼쳐드리게 된다는게요. 그이를 받들어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 전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소.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떠맡고계시는 장군님께 티끌만한 시름도 끼쳐드리서는 안된단말이요.》

류석은 터지는 오열을 가까스로 짓씌어삼키며 새 나무토막들을 우등불에 집어넣었다.

새빨간 불티들이 금시 천막천정을 태워버릴 듯 하늘하늘 날아올랐다. …

X

벌들이 총총한 이른 새벽하늘에 쟁반같은 보름달이 등실하게 떠있었다. 그래서 눈이 하얗게 덮인 저 멀리 참나무곶까지 거뭇거뭇 건너다보였다.

어린 전령병은 내내 반달음질을 했다. 혈금씨 금 뒤따라놓고 한숨 태울라하면 그새에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단단한 어깨에 누런 털외투를 걸친 련대장의 모습이 벌써 건너편 산릉선에서 희끗거리는 것이었다. 맞붙어치는 바람결에 태를 치며 나뭇기는 외투자락, 다리허벅까지 내리드리워 건들거리는 커다란 목갑관충, 생논길에 허리까지 묻히는 가죽장화… 련대장은 한본새로 앞장에서 걸췌게 걸음을 다우쳤다.

제기랄, 이 우수촌의 겨울은 별루 더 지긋은것 같다. 경칩이 지난지 언젠데 겨우내 내린 눈이 여태까지 까딱 녹을념을 하지 않고있으니말이다.

참나무곶이 가까와올수록 최득권의 가슴은 점점 벽차올랐다. 밝은 때라면 눈바투 피여보일것 같은 참나무곶이 짜장 너무 멀어만 보인다. 우수촌 초입의 밀림속에 련대를 휴식시키고 내쳐 걸어온 걸음이 좋이 한시간이 된것 같은데 그냥 참나무곶이 저 멀리에서 거뭇거린다.

얼른얼른 안겨오는 저 골짜기 어디바루에 류석의 어머니가 살고있는 나지막한 동기와집 한채가 외롭게 서있을것이다. 아직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어머니다. 어쩐지 어머니의 모상이 체소하고 아련할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가 천식증으로 신고한다던 류석의 말이 얼핏 상기되어 그러는 지도 모르겠다.

이제 정지문을 활 열어붙이며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줄것이다. 맨버선 발로 달려나올지도 모른다. 목이 콕 메여하며 더운 눈물을 후두둑 뿌릴 때 과연 무슨 말부터 꼭지를 떼야 옳겠는가?

《그동안 아들소식을 몰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켰겠습니까. 그런데 류석은 못오고 저희들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는 건디여내지 못할것이다. 너무나도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어머니는 힘을 잃고 쓰러져버릴지도 모른다. 하나 어차피 해야 할 말이 아닌가. … 때없이 가슴속 한구석이 몽청 허물어져내리는것 같이 허전해지면서 걸음이 절로 떠지였다.

이런 날 이런 때에 류석을 앞세우고 어머니를 찾아간다면 얼마나 걸음이 가벼울텐가. 그런데 그 류석이 어깨에 입은 부상자리가 화농이 번지여 지금 밀영병원에 누워있다. 밀영병원은 벌써 아득히 먼 뒤에 있었다.

(줄나게도 이런 때 부상당할건 뭐람.)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마음에 시름을 얹혀주게 된 류석이가 나무러왔다.

《토벌대》의 추격을 받은줄 알았더니 항간에 돌아가는 소리로 미뤄보아 분명 류석이가 《토벌대》를 답새겼다. 항간에 떠도는 소린죽, 한 유격대장수가 우수촌 옷마을의 밀림속에 천막을 치고 숙영하던 악질적인 일제의 《정예부대》에 달려들어 술한 무리죽음을 주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무슨 연고로 그런 무분별한 모험을 했는지 알수없는 일이나 이제 몸을 털고 일어나면 툭툭히 버릇을 굿혀야겠다. 만나고 오라는 어머니는 만나지 않고 어리석게 모험을 해서 부상을 당했으니말이다. …

무거운 한숨을 지으며 앞을 여겨보니 너무 멀어만 보이던 참나무곶이 눈바투 시커멓게 마주섰다.

세차게 웅웅거리는 나무들의 설레임소리, 회파람소리를 지르며 훑날리는 눈가루… 미묘한 혼잡음으로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어둠의 공간속에서 더더욱 유표하게 들려오는것은 여울물소리였다.

달빛이 부서져 번쩍거리는 여울물도랑이 눈판을 꺾지르고 몇걸음앞에서 시선을 잡아끌었다.

최득권은 가슴이 널뛰듯했다. 드디어 류석이네 집근처에 다달은것이다. 한여름의 가뭄에도 마를줄 모른다는 여울물너머 저 언덕바지를 오르면 오בות한 마당앞에 높이 자란 두그루의 돌배나무 그리고 참나무숲이 뒤마당 울바자를 이룬 그속에 자그마한 동기와작이 있을것이다.

최득권은 좁은 물목을 찾아 여울물도랑을 성큼 뛰어넘어 날듯이 언덕바지를 단숨에 뚫아올랐다.

그러자 너무나도 신통하다싶게 눈을 소복하게 떠인 두그루의 돌배나무가 꿈처럼 눈앞에 나타났

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돌배나무뒤에서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던 동기와집이 없었다.

반나마 타버린 통나무굴뚝이 기우뚱 서있고 불타다남은 몇개의 시커먼 기둥뿌리 그리고 눈을 들 쓴 커다란 토방대돌... 이것들이 언제인가 여기에도 집이 있었다는것을 서글프게 호소하고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최득권은 구원을 청하듯 전령병을 돌아보았다.

《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빨리 사연을 알아오라구.》

최득권은 목이 타들고 다리가 휘청거려 토방대돌우에 풍덩 주저앉았다.

줄담배 석대를 풀썩풀썩 피워올리는데 전령병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는 한술부터 앞세웠다. 심상찮은 예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그래 뭐라든가?》

최득권은 몹시 조급해졌다.

《저 건너 산전막에서 살고있는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벌써 이태전에 <토벌대> 놈들이 이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엉, 그래 어머니는 어디 계신대?》

최득권은 토방대돌에서 튕겨나듯 일어서며 숨이차게 다우쳐 물었다.

《류석동무를 놓친 왜놈들이 그날 양갓음으로 어머니를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뭐라구?!》

최득권은 전령병의 앞섶을 와락 틀어잡았다.

《그래 어머니의 봉분이 어디 있다던가?》

비분에 짓눌려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저 세상 아득히 먼곳에서 굴러오는듯했다.

《어머니는 땅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귀축같은 왜놈들이 글썽...》

전령병은 흐느끼며 눈물겨운 참상의 전말을 떠들며듬 번지였다. ...

X

《어머니, 전 **김일성** 장군님 유격대로 갑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류석이 뒤문으로 뛰쳐나가 는참 일제 《토벌대》 놈들이 부엌과 정지문을 들부시며 달려들었다.

《아들녀석이 어디 갔어?》

어머니는 태연하게 마당앞 감자움을 가리켰다.

《함부로 덤벼들지 마시우. 우리 애의 손에 총이 있수다.》

집에 질린 놈들은 감히 감자움가까이에 다가들지 못했다.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야 텅 빈 감자움이라는것을 알아차린 놈들은 악에 받쳐서 어머니를 차굴리고 짓밟아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래도 성차지 않은 놈들은 쓰러진 어머니를 집속에 던져넣고 불을 질렀다.

《류석아!》

삼단같은 불길의 치솟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원한에 사무친 절규가 오래도록 터져나왔다. ...

《됐어, 그만하라구.》

최득권은 손을 뻗 내젓고 실성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무거운 걸음을 내짚었다.

장화바닥에 지리뻘힌 눈이 빠드득빠드득 애처롭게 흐느끼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통분한 일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장군님께 얹혀진 천만가지의 무거운 시름중에서 다문 한가지라도 덜어드리는게 혁명전사의 도리이고 의리일진대 과연 이 커다란 슬픔으로 해서 그이께 미쳐질 피로움을 생각하니 몸부림이 나가고 살이 떨렸다.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이 불행한 일이 꼭 자신의 잘못으로 하여 빚어진듯만싶은 분함과 노여움이 머리끝까지 치받쳐서 그는 당장 미칠것 같았다.

몇걸음 허덕허덕 짊어가던 최득권은 그만 힘 흐느끼며 앞에 선 돌배나무를 그러안았다. 커다란 주먹이 허공중에서 부르르 떨다가 나무등어리를 팡 울리었다.

《에익 개놈새끼들!》

캄캄하게 언 하늘 한끝으로 울분에 찬 메아리가 드르렁 굴러갔다.

《개...놈...새...끼...들...》

가지들에 얹혀있던 눈무지들이 고개를 일으키며 떨어져 모자에, 어깨에 하얗게 덮이였다. ...

《런대장동지!》

갑자기 등뒤에서 전령병이 놀라움에 차서 부르짖었다.

《여기 류석동무의 그 오미자보짐이 있습니다.》

《엉?!》

최득권의 입에서 신음소리같은 탄식이 절로 튀어나갔다. 그는 급해맞아하며 전지를 꺼내들었다.

번쩍 어둠을 찢으며 동그랗게 비쳐나간 눈부신 불빛속에 나딩굴어있는 낫익은 보짐이 드러났다. 보짐주위의 하얀 눈우에는 오미자들이 선혈처럼 빨갭게 흠어져있었다.

그리고 집터주위에 수없이 찍혀진 커다란 발자

국들이 불빛을 받고 자욱자욱 살아오르며 눈을 찢었다. 거부기등관같이 커다란 그 발자국은 산등성으로 미끄러지며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면서 집터근방의 눈을 거의나 다스려놓았다.

(그러니 류석이가 여기에 왔었구나!)

최득권은 당장 심장이 귀밑으로 튀어올라와 뛰는 것 같았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어머니도 집도 다 재가루가 되어버렸으니 류석의 마음 얼마나 절통했으랴. 것처럼 애타게 아들을 찾은 어머니의 피라는 부르짖음에 너무나도 많은 애절한 기원이 담겼으련만 한마디의 대답도 주지 못하고 떠나자니 아마 저 자국자국에 피눈물이 차고 넘쳤으리라. 어머니를 위해 한알두알 말리워 간수해온 오미자보짐을 눈우에 뿌려던질 때 그 가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을 것이다. 어쩐지 눈우에 흩어진 한알한알의 빨간 오미자들이 설음과 울분에 치를 떨며 방울방울 떨어군 류석의 피눈물이 선혈로 굳어진 듯싶어 가슴이 저렸다.

이 눈물겨운 참상에 가슴이 찢기면서도 무엇때문에 과연 무엇때문에 류석이 끝끝내 우수촌에 못들었다고 시치미를 뻗을 것인가?...

(아!)

최득권은 금시 가슴 한복판에 큰 불이나 맞은 것 처럼 화끈 달아올랐다.

혁명을 위하여 중환으로 시달리시는 어머님을 돌보시지도 못하고 남만진출의 길에 오르신 장군님, 그동안에 귀중하신 어머님을 여의신 장군님의 커다란 불행을 생각하면 자신이 어머니를 못 만나고 온 것이 무에 그리 대수로운 일이나며 흐느껴울던 류석의 모습이 가슴을 울리며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아! 그래서였구나. 류석이!)

이 가슴터지는 슬픔앞에서도 장군님께서 안으신 크나큰 불행과 피로움을 먼저 생각한 류석이, 아직 단련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해온 그 류석이 이처럼 큰 사람이었던가 싶어 몹시 놀라왔다.

자신이 당하는 불행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피흘리는 조국, 귀중한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야 할 혁명전사의 의리가 더 귀중한 류석이었다. 하기에 장군님께 피로움을 끼쳐올리는 것이 그토록 가슴아파 참을길없는 분한 마음을 저혼자 일제의 《정예부대》놈들을 요정내는데 쏟아부었고 이 가슴터지는 슬픔을

저혼자 묵묵히 묵새긴 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그 는 열일곱살의 변함없는 어린 류석이지만 웅근한생애도 수나롭게 도달할 수 없는 그지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지닌 참된 혁명전사로 의젓하게 성장했다.

장군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슬픔을 묵묵히 이겨낸 그렇듯 강毅한 의지가 담긴 발자국! 발자국!.....

아, 조국이며 어버이이신 장군님의 위대한 품속에서 이렇듯 의젓하고 당당한 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또 한사람의 충성스러운 혁명전사가 태어난 것이다.

발그레한 아침노을 이 산뜻하게 퍼져오를무렵 전련대가 류석 어머니의 령혼이 깃든 불탄 집터 앞을 지나 행군해갔다.

불탄 집터를 바라보는 대원들의 두눈에서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있었다. 분기를 참지 못해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는 대원들도 있었고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는 대원도 있었다.

류석이가 짚고 간 두가닥의 커다란 발자국을 따라 련대의 무수한 발자국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물결쳐갔다.

최득권은 수림의 그늘이 넓어져가는 산등성으로 노도와 같이 나아가는 련대를 보자 가슴이 뭉클했다. 오로지 장군님을 받들어 류레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광복의 혈로를 헤쳐나가는 저 힘있는 자욱자욱으로 하여 조국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까와진다는 강렬한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붉은 기폭이 날리는 대오의 앞장에서 장중한 혁명가요가 높이 울려 퍼지었다.

...

나날이 들리는 일제의 총소리
우리의 앞길을 재촉해주나니
떠줄라 꼭 대고 행진해나갈 때
끓는 피 가슴에 넘쳐서 흐른다

노래소리에 놀래여 잠을 깬 산새들이 참나무골 숲우로 새까맣게 풍겨올랐다.

아직은 뽕뽕한 백설이 강산을 뒤덮었지만 씩씩한 노래소리와 못새들의 쟁쟁하고 고운 지저귀이 한데 어울려 어데라없이 봄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듯싶었다.

아무튼 봄이 왔다. 1937년 봄이었다.

값높은 창조

리 석

이 세상에는 훌륭한 과학과 발명으로
후대들앞에 이름 남긴 사람도 있다
명작의 뛰어난 화폭으로
독자들의 기억속에
책과 함께 이름 남긴 사람도 있다

남과 같이 신문에도 이름내고
기록영화의 화면에 나타날수도 있었고
때로는 정령이 엄숙히 선포되는
그 연단에 가슴펴고 땀땀이 나설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일군 그대는
그 모든것 차례질 그 자리에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던 사람들 내세워주고
꽃다발 물결치는 환희의 언덕에는
키워온 사람들 다 내세워주고

그대는 웅심깊은 걸음으로
낮이나 밤이나
어제날과 다름없이 걸고있는 사람

비에 젖은 옷을 말린적 그 얼마?
진창에 젖은 신발 내가에 땀머
그대의 걸음걸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향해있었거니

때로는
그대자신의 마음속에 물어보더라
이 세상에 남긴것 무엇이던가
이름 찍힌 책이던가
신문에 크게 남긴 사진이던가

그럴 때면 조용히 마음속에 헤아려지며
40년 당생활에 피워온 모습들...

꿈다리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초가집 어유등잔불밑에서
입당청원서에 쓴 고귀한 이름 지켜
장군님 만세 높이 부르던 목소리

배꽃 하얗게 핀 그 봄날
까막눈 틈워서 대학으로 떠나보낸
3대머슴군의 아들이
오늘은 과학자로 자랐고
가슴뜨겁게 없어준 당원증을 안고
오늘은 영웅관리위원장으로 자란 농촌녀인이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
오늘도 변함없이 한길을 가나니

이것이 아니던가
그대가 시대앞에 남겨놓은것은
당을 따라 그대가 가꾸며 바쳐온
한생의 값높은 창조는,

오, 그대가 남긴것은
이 땅에 창조물로 높이 솟아있지 않아도
아픈 가슴 가셔주고
심장을 달구어주어
평범한 나날 당의 뜻으로
동지들에게 바친 사랑이
조국이란 이름속에
찬란한 그 빛발속에
성돌처럼 하나하나 고여있는것 아니던가

아, 당일군
그대처럼 한생을
사람들의 심장속에 길이 남아
잊지 못하고 추억하는
이 세상 가장 값높은 창조자
그 어데 있으랴

나의 한생과 잡지 《조선문학》

황 건

《조선문학》 발행 400 호를 맞으며 흥분된 마음으로 편집부에 글을 써보내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500 호를 맞이하게 된다.

작가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조선문학》의 덕을 많이 입으며 한생을 《조선문학》과 함께 머리회도록 문학창작을 해온 나로서는 이 잡지의 큰 생일과도 같은 정주간호를 맞으며 참으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다.

배우가 자기의 무대를 사랑하고 체육인이 자기의 운동장을 사랑하듯이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지면을 몸시도 사랑한다. 여기에 우리의 피땀이 바쳐지고 흥분과 사색이 깃들어서만이 아니다. 또 이 잡지가 우리를 독자들과 친숙하게 하여주며 작가를 키워주고 도와주는 그것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잡지에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고 문화전선의 투사로 키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화인, 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발밑에 굳게 단결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억도 생생한 1945년 8월 15일 식민지노예운명의 쇄사슬에 칭칭 감겨있던 조국땅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렸다.

해방의 감격속에 들끓던 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듣기에도 피튀는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소식을 듣고 끝없는 환희와 격동의 울렁임속에 시골에 묻혀있던 나는 장군님께서 새 나라의 민족문화건설을 위해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집결하도록 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달음쳐 평양으로 올라왔다. 함흥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나는 평양에 올라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우리 나라 문화인들의 첫 통일조직인 북조선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련맹기관지를 내오도록 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일찌기 문학에 뜻을 두고 서울로, 동경으로 마가를 락엽처럼 방황하였으나 우리 글로 씌여진

한 조각의 글도 발표할 지면이 없어 빛을 볼수 없는 원고몽테기우에 피눈물을 뿌리던 내가 아닌가.

나의 눈앞에는 단지 우리말로 우리 인민의 설음을 이야기하는 글을 썼다고 하여 막돌처럼 대하던 일본놈들과 그 앞잡이들의 차거운 눈초리가 보이는것 같았고 붓대를 꺾고 고향갑산의 심심산골에 틀어박혀 서글픈 은둔생활을 하던 나날들이 삼삼히 떠오르는것이였다.

하기에 1946년 7월 우리 나라의 첫 문예잡지인 《문화전선》 창간호를 받아안았을 때, 그리고 내가 쓴 첫 단편소설인 《산곡》이 《문화전선》의 후신인 《문학예술》 창간호에 발표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나라글로 된 활자로 찍힌 나의 작품을 읽고 또 읽으며 더운 눈물을 떨구었다.

민족의 녀를 찾아주시고 보람찬 인생의 새봄을 찾아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에 목이 매여...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산곡》이라는 제목밑에 또렷이 찍혀졌던 나의 이름이 눈에 보이고 작품에 묘사했던 골짜기의 물방아소리가 귀에 들린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조선문학》과의 첫 인연은 바로 이렇게 맺어졌다. 그것은 《조선문학》과의 인연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우리 당과의 참다운 인연이였다. 이렇게 나의 보람있는 문학생활은 시작되였다. 나는 밤잠마저 잊으며 쓰고 또 썼다. 이제야 무엇이 꺼릴게 있고 무엇이 겁날게 있으랴. 문학창작의 길이 창창히 열려지고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나는 북부지구탄광으로 내려가 로동계급들과 함께 로동생활을 하며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청년로동계급을 형상한 단편소설 《탄맥》을 창작하여 또다시 잡지 《문학예술》(1949년 5호)에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나의 보람찬 창작생활, 나의 행복을 짓밟으려고 미제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자 나는 분연히 종군작가로 전선을 탄원하였다.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삶은 영원한것이다. 나는 이 불멸의 진리를 포연자옥한 전호가에서 체험하여 단편소설 《불타는 섬》을 창작하여 야전우편으로 잡지 《문학예술》(《조선문학》의 전신임)에 투고하였다.

그런데 나의 이 미숙한 작품이 전선과 후방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줄이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단편소설 《불타는

섭》에 대한 독자모임을 몸소 조직하시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아직은 조국을 위하여 별로 한일도 없는 나에게 애국적인 작가라고 높이 평가하신 그 말씀은 나의 창작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이 날개였던것이다.

그간 내가 창작한 장중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치고 어느 하나도 《조선문학》과 인연이 없는것이 없다.

이렇듯 나는 잡지 《조선문학》과 함께 성장하여 혁명문학대렬의 한성원으로 자랐다. 그간 내가 잡지 《조선문학》에 많은 글을 써냈다고 하지만 이제는 세월의 흐름속에 나의 이름도 아마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졌을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일없는 이 늙은 작가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지난해 내가 70 돌 생일을 맞는다는것을 아시고는 공화국작가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상》을 수여해주도록 하시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70 돌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로동신문》에 나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한다는 정령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정령이 실린 신문을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내가 장편소설창작도중 급병에 걸렸을 때는 수많은 고가약을 보내주시여 다 잃었던 나의 삶을 되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대를 두고 갚아도 다 갚을수 없는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시니 내 어찌 눈굽을 적시지 않으랴. 고목에 꽃을 피워주시고는 그 꽃이 세상에 빛이 나도록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더해주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문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영광이겠지만 정작 《김일성상》 계관인이라는 꿈같은 칭호를 받아안고보니 한생에 너무도 한일이 없는것만 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손이 움직이고 숨결이 남아있는 마지막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그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생각에 젖어있다.

잡지 《조선문학》의 첫 세대라고도 말할수 있는 나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머리에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다. 그러나 잡지 《조선문학》과 함께 수많은 재능있는 젊은 작가들이 자라났고 또 자라고있기에 우리의 잡지 《조선문학》은 영원히 청춘의 활력을 가지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활의 길동무로 정신문화교양의 학교로 그 사명을 다할것이다.

수기

추억의 갈피에서

리종렬

부단장실의 안락의자에 잡지 《조선문학》의 첫 녀서권집부장이 앉아있었다.

잡지 《조선문학》이 500 호기념특간호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전쟁시기 전선에서 《조선문학》을 받아 보았던 때의 수기를 써주었으면 좋겠다는것이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원고의뢰를 받아들였다.

창작실로 돌아온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조선문학》을 처음으로 받아 보았던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추억의 갈피들을 뒤지었다. 그러자 가슴이 설레이고 눈굽이 저려나고 각가지 기쁘고 슬프고 아픈 추억들이 밀려들어 일손을 잡을수 없었다. 쓰던 장편 원고도 밀어놓고말았다. 추억은 계속 밀려들었다.

홍수처럼 ...밤에도 늦도록 잠들수 없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7년전 나의 병사시절과 이어진 추억, 아직 먼도칼을 대보지 못한 불에 보습털이 보르르했던 10대청소년시절의 추억, 아직 첫 사랑의 격랑도 일지 않았던 순결무후한 가

슴에 조국수호의 자각과 순진한 영웅심리가 찰랑거리던 병사시절, 적아간에 화력전이 벌어지고 고지가 불타고 곁에서 좋은 동무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던 그 준엄한 시절의 추억이기때문이다.

포탄과 함께...

여러명의 전투영웅들과 함께 유명무명의 작가 몇을 배출한 우리련대는 1952년 여름 1211 고지 계선에 진출하여 한동안 사단예비대로 있으면서 사단방어의 오른쪽 익측을 지키다가 그해가을 화선에 배치되었다.

련대는 1211 고지와 그 좌우측의 고지들을 차지하고 내가 속한 2 대대는 1211 고지 우측룡선에 《틀어진 주먹처럼》 우뚝 솟아있는 1052 고지의 지하갱도들을 차지하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처절한 방어전을 벌리었다.

우리 방어선에 돌파구를 뚫으려고 미친듯이 달려드는것은 미제침략군 정예사단들이었다. 우리는 포화력과 공중타격의 세기를 보고 첫순간에 그것을 알아맞혔다.

적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우리 방어전열으로 공격해올라오는 한편 각종 대포와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아군의 후방보장로를 차단하려고 발악했다.

후에 전쟁사는 이것을 미제의 《교살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원수들은 몇달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부대의 유일한 후방보장로인 사테리-직동령-속사리-말휘리 사이의 도로에 불비를 쏟아부었다. 그 썩 후방에서는 미제의 비행기편대들이 낮에 밤을 이어 크고작은 도로들과 철도, 기차굴, 모든 다리들에 폭탄을 퍼부었으며 바다에서 날아든 각종 함재기들과 습격기들은 길을 따라 날아다니며 수송차들에 기총소사를 하고 로켓탄들을 쏘아댔다.

그리하여 화선이나 후방이 따로없이 다 불바다에 잠겨버렸다.

우리는 어느덧 든든한 갱도속에 있는 자신들보다 후방근무의 구분대들, 특히 로출된 도로로 자동차와 마차를 몰아가는 운수구분대성원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하며 더 많이 피흘리고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 도로상에서 운수기재들이 파괴되고 운전수와 마차수들의 영웅적인 수송투쟁에 대한 일화들이 전설처럼 화선갱도들에 퍼졌다.

겨울이 되어 고지들에 흰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을 때 대대들과련대의 모든 운수기재들이 다 파괴되었으며 사단후방부의 운수차들도 거의 다 불타버렸다. 화선구분대들에 대한 후방보장사업에는 엄청난 위험이 닥쳤다. 화선에는 이따금 적을 타승하는데 필요한 물자, 즉 탄약과 식량만 약간씩 운반되어왔다. 그것은 몇필 안되는 련대후방부의 말과 후방근무성원들이 등짐으로 날라오는것이였다. 끼니때 적게 먹는것은 참을수 있으나 탄약의 부족은 참을수 없었다.

탄약...탄약...온 화선이 피라는 목소리로 탄약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화선갱도들에서 운반조가 조직되었다.

우리는 밤마다 직동령을 넘어 멀리 말휘리 군단후방사령부 전선창고에까지 가서 탄약을 받아 등짐으로 운반해왔다.

후방사령부의 창고원들이 82미리박격포탄을 우리 배낭속에 넣어줄 때 오간 말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조심조심 운반하라구. 이거 한개가 황소 한마리 값이네.》

《황소 한마리요? 절구공이만한 쇠덩어린데 그렇게 값이 나가는가유?》

《아 친구 모르는구만. 쇠덩어리값만 아니야.

이게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라구. 저 깊은 후방에서 수백수천리 불비속을 뚫고 왔는데 그 운반비까지 합치면 황소 열마리 값도 더 될거네...》

《허 참 그렇구만요...》

《적을 죽치는데 쓰는거니까... 포탄이니까 저 불바다속으로 실어오지 다른거라면 천하에 없는 보물이라도 못실어와...어림도 없지...》

앞머리와 뒤통리가 보이지 않게 한줄로 길게 늘어선 탄약운반대렬은 밤마다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고 매캐한 초연이 서린 골짜기를 치달아올라 령을 넘군하였는데 줄포탄이 무시로 떨어져 뛰다가는 었드리고 었드렸다가는 다시 뛰게 되어 누구나 땀으로 미역을 감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상자나 희생자가 생기면 그들의 탄약통이나 박격포탄이 다른 대원들의 등짐우에 덧씌워졌다.

어느날 나는 불일이 있어 대대지휘부갱도로 들어갔다가 대대민청위원장님이 무슨 잡지책을 등잔불밑에서 열심히 읽고있는것을 보았다. 대대민청부위원장인 나는 그하고 남다른 사이였다.

그는 문학애호가였고 평화시기에 한 극작가와 가까이 지낸것을 늘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19살의 애송이인 나한테는 그가 어떤지 여느 보병군관들과는 다른데가 있는 어떻다고 찍어 말할수 없는 서정적인 존재로 느껴졌다. 그의 어깨에 붙어있는 퇴색한 중위견장도 그가 쓰는 구식 만년필까지도...

그는 읽던 잡지책을 나한테 보이며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다. 그것이 내가 전선에서 처음으로 본 문학잡지인 《문학예술》(《조선문학》의 전신)이였다.

《어디서 났습니까?》나는 호기심이 동해 잡지를 받아쥐며 물었다.

《지난밤 운반조동무들이 출판물마대를 저왔는데 그속에 있었소.》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덧붙였다.

《박격포탄과 함께 왔소...함께...》

그 말이 내가 쥐고있는 가벼운 잡지책에 천만근의 무게를 더해주는것 같았다. 화학전문학교에서 군대에 나왔으며 화학공업기사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있던 나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문학작품의 사회적 영향력과 문학의 위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때문에 나한테는 전선수송이 이처럼 긴장한 때에... 어째 이런 문학잡지를 화선에 내보내는지 그 까닭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전체 청년군인들이 거기에 실린 작품들을 다 읽도록 해야겠소. 우선 동무부터 다 읽고 중대들에 돌리요.》

나는 이틀밤을 새다싶이하여 잡지에 실린 소설, 시, 수필, 중군기, 평론들을 읽었다.

기다림

화선의 불바다속에서 덩굴다가 처음으로 접한 문학세계는 나의 어린 가슴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시와 단편소설들에 형성된 감정과 생활들은 내가 전쟁의 길에서 체험했거나 보았거나 들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많았다. 그 작품들은 모두 내가 무심히 흘려보낸 생활에 심각하고 비통하고 환희로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주는 듯싶었다.

어느날 나는 대대민청위원장에게 잡지를 읽은 소감을 말하면서 우리 대대도 그 작품들에 실린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더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들이 많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는 내 말에 긍정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우리 고지에 종군작가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극작가가 오면 얼마나 반갑겠느냐고 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종군작가...작가라고는 한번도 만나본적 없던 나는 여간 호기심이 동하지 않았다.

《정말입니까?》

《런대정치부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올거요.》

나는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래서 자기 짝배인 방영결에게 그 소식을 말하였다. 방영결은 고급중학교 1학년에서 입대한 동무인데 고향이 평북도 구성인가 구장이었다. 그는 저격수활동에 참가하여 한달남짓한 사이에 혼자서 적병 30여명을 살상하여 온 사단에 소문이 자자한 명사수였다.

150명의 적을 소멸한 저격수에게는 영웅칭호가 수여되게 되어있었다. 몇달후 그가 영웅칭호를 수여받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에게 종군작가가 오면 꼭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방영결은 기뻐하였다. 그의 전투실화가 문학잡지에 실려 온 나라에 알려질것을 생각하니 나도 여간 기쁘지 않았다.

방영결은 신이 나서 매일 저격수사격호로 기여나갔으며 어김없는 명중사격으로 적병들을 쏘아눅혔다. 그의 전과는 나날이 높아갔다.

하지만 손꼽아기다리는 종군작가는 오지 않았다. 어째 오지 못하는지... 나와 방영결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종군작가에 대하여 은근히 원망을 품게 되었다.

몇달이 지난 어느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경도속에 날아들었다. 저격수 방영결이 96번째의 적병을 쏘아눅히고 희생되었다는것이였다. 사격호가 로출되어 기관포의 집중사격을 받았던것이다.

어슬넝이였다. 나는 위생지도원과 함께 정신없이 그의 사격호로 달려나갔다. 비발치는 적탄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얼마후 나는 피투성이 된 그를 업고 경도로 돌아왔다. 그날밤 884고지의 뒤쪽 산비탈에 그를 묻었다. 나의 전우, 나의 짝배, 나의 동갑이는 세상에서 없어졌다. 19살의 꽃나이에...

나는 고지로 돌아오면서 소리없이 울었다. 울음끝에 끝내 찾아오지 않은 종군작가한테 험악한 욕설까지 퍼부었다.

그날밤의 비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가슴밀창에서 불씨처럼 늘 타고있을탓인지 전승의 환희로운 강산이 설레이고있을 때 나는 어둑한 반토굴병실의 구석쪽, 탄약상자로 만든 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쓰게 되었다. 저격수 방영결의 전투실기였다. 찾아오지 않은 종군작가를 대신하여...

쓰는 과정에 생각이 자꾸 보태여졌다. 나중에는 저격수활동이 뒤전으로 밀려나고 방영결이 저격수로 되기전에 참가했던 야간습격전투로 이야기가 왕창같이 번져갔다. 지금은 얼굴이 뜨거워져 읽을수 없는 나의 소박한 첫 단편소설 《명령》은 이렇게 창작되었다. 대대민청위원장이 그것을 읽어보고나서 런대정치부에 올려보냈다. 그런데 그 원고는 날개가 돋친듯 사단을 걸쳐 군단으로 날아올라갔으며 군단정치부에서는 그것을 평양의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로 보냈다.

그 이듬해 8월, 조국해방 9돐, 전국문학작품현상 모집에서 그 작품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발표되고 방송으로도 보도되었다. 그리고 뒤따라 인차 작품을 잡지 《조선문학》(《문학예술》이 개칭된것)에 발표하는것과 관련하여 필자를 작가동맹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엽서편지가 런대정치부로 보내왔다.

나는 그때 이 모든 사실들에 신인작가들을 키울데 대한 당과 수령의 얼마나 뜨거운 배려가 깃들어있는가를 깊이 깨닫지 못한채 그저 얼머름해가지고 들떠서 평양으로 떠났다.

편집부로!

직동령을 넘고 단발령을 넘고 철령을 넘은 다음 나는 신고산역에 간신히 이르러 평양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객차가 아니라 유계화물차였다.

전화의 나날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운 평양은 말그대로 폐허였다. 재더미였다. 오늘의 1백화점 자리에 옛 백화점의 건물만 폭격에 허물어지지 않고 우뚝 솟아있을뿐이였다.

나는 폐허로 된 거리에서 지식인행색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로 겨우 찾아갔다. 작가동맹은 지금의 옥류청량음료점자리에 있는 2층인가 3층이 되는 낡은 건물에 들어있었는데 벽에는 기총탄에 맞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잡지 《조선문학》 편집부는 그 집 아래층에 있었다.

나는 리기영, 조기천, 박세영을 비롯한 유명한 작가들이 이 집으로 드나들었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려 경건한 몸가짐으로 현관안에 들어섰다.

소설분과위원회로 찾아들어가니 마침 분과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땀내풍기는 병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 톡톡하게 보여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충동에서 병사식으로 거수경례를 붙이며 힘찬 목소리로 보고하였다. 조선인민군 제 몇군단 몇사단 몇련대 몇대대 상등병 아무개 당신의 명령대로 왔다고...그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아흔들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이방 저방으로 가서 작가동맹 일군들에게 인사시켰으며 《조선문학》 편집부로 안내해주었다.

편집부는 그리 크지 않은 방을 차지하고있었는데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첫걸음에 나무그늘밑으로 들어서는듯한 선선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화선전투원들에게 것처럼 크나큰 신심과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문학잡지의 편집부가 이렇게 수수하고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하고있단말인가...

몸매가 실하고 얼굴이 너부죽한 호인다운 사람이 구면이기라도 한듯 빙그레 웃으며 앞으로 걸어 나와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었다. 편집부장이었다. 량쪽벽에 붙여놓은 책상들에서 서너명의 편집원들이 나를 돌아보며 반겨 눈인사를 하였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이 흥분에 한껏 부풀어있는 병사의 가슴을 어느정도 진정시켜주었다.

나는 꽤 커보이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편집부장과 마주앉았다. 책상우에는 누런 종이에 쓴 나의 단편소설원고가 놓여있었다.

편집부장은 군대에 언제 입대했으며 어느어느 전선에서 싸웠느냐고 물고는 지난 전쟁 3년간 시신인들은 많이 나타났는데 소설신인은 얼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제야 나는 자기의 미숙한 단편이 현상응모에 당선된 까닭을 알수 있었다.

부장은 단편원고를 집어들더니 소설분과에서

필자가 직접 참가한 습격전투를 소재로 하여 이 작품을 썼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웬일인지 아니라는 말이 선뜻 나가지 않았다. 방영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가까운 전우의 체험담을 쓴것이라고 대답했다.

편집부장은 눈을 내리뜨고 머리를 끄덕였다. 나의 고백을 검손으로 받아들이것 같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여러군데가 접혀져 있는 원고를 뒤적거리더니 작품의 결함을 말해주었다.

부장은 자기와 소설분과위원장이 먼저 작품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가서 읽어보고 의견이 있으면 다시 토론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속소로 돌아와서 가필수정된 원고를 읽어 보았다. 두세군데의 불필요한 전투장면을 빼버리고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몇군데 새롭게 써넣었는데 작품이 한결 짚고 주인공의 성격이 생동하게 두드러져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기교의 힘을 느꼈다.

이튿날 편집부로 찾아가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하였다. 부장도 기뻐하였다. 그리고 《조선문학》 10 호에 작품을 실기로 토론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나의 마음은 기쁨에 복받쳐 터질것만 같았다. 나의 작품, 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배포되는 일류급의 문학잡지에 실린단말인가! 당과 수령과 조국의 은혜가 고마왔다. 나는 눈물을 머금었다. 부장은 창밖에 잠시 눈길을 돌렸다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소설문학대오에 새 대원이 들어온셈이요. 앞으로 전쟁물 작품들을 계속 많이 써보내오. 전쟁에 직접 참가한 동무들이 전쟁에 대해서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소. 사명감을 느껴야 하오, 사명감을. ...》

아마 그날을 계기로 하여 화학공업기사의 꿈은 어디로인가 사라지고 나의 운명에 결정적인 전환이 온것 같다. 아, 그날의 그 순결한 열정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펜끝에서는 거짓이 흘러나오지 않을것이다...

해외에서 《조선문학》을 받아안았던 때를 회상하여

김래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에 와서는 모든 재일동포들이 총련을 결성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한것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우리 당의 로선전환방침이 얼마나 현명한 방침이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창작의 붓을 처음으로 든것은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였다.

나는 이때 교편을 잡으면서 일본에서 태어나 새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선의 참된 념을 심어주고싶었고 글을 써서 일제시기 망국노의 처지에서 살아온 내자신의 가슴에 서리고 영킨 분노를 터뜨려 일제의 죄악상을 온 천하에 날날이 고발하고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욕망뿐이고 울분에 찬 내 마음을 글로 옮기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아는것이 적었고 필력이 또한 딸렸다.

이때만하여도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란 별로 없었고 우리 글로 된 읽을만한 책 한권을 얻을수도 없었다. 그렇건만 학교에서는 동포들과 학부형들앞에서 한해에 두번씩은 예술공연을 해야했으나 시를 읊고 연극을 통하여 동포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안겨주고 사상정서적으로 공감시키며 교양할만한 작품이란 더우기 없었다.

결국 내가 시를 쓰고 희곡을 써야 했으며 연출도 하고 때로는 무대에 직접 출연하기도 해야만 했다.

1952년 초봄이었다.

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예술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영화관으로 갔다.

영화관에서는 예술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 짤막한 보도영화를 돌렸다.

그런데 영사막에는 미제침략군의 인천상륙장면과 함께 악명높은 침략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맥아더의 거만한 물결이 나타났다.

우리 학생들은 두주먹을 부르짖고 증오에 찬 눈길로 맥아더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또 한편의 보도영화가 상

영되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호된 타격에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 양키놈들이 포로가 되어 우리 인민군대에게 끌려가는 장쾌한 장면이 생동하게 비치였다.

우리 학생들은 손뼉을 치고 만세를 불렀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았던지 발을 구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이때 민족적 긍지감과 미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여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고 솟구치는 격정을 녹작힐수가 없어 교원이라는것도 잊어버리고 영화관에서 뛰쳐나와 골목길에 주저앉아 즉흥시를 썼다.

아이들아

5월의 고향의 양버들처럼

실실이 곱게만 자라지 말고

무쇠가 되고 돌덩이가 되어

양키의 대갈통에 불벼락을 안겨라

아이들아

푸른바다 백사장 모래불에서

노래하며 큰 꿈 키우려던

바위에 부딪쳐 흩어지며 울부짖는

저 성난 파도처럼 장수힘 키워

양키놈을 단매에 요정널 투사가 되여라

피멍든 가슴 달래기 위해

독한 한잔술로 허송세월 보낸다면

아이들아!

그것은 패배의 길, 자멸의 길임을

내 오늘에야 비로소

맑은 너희들의 눈동자에서 읽었고

박수소리 에 제정신 가다듬었어라

아이들아!

너희들은 우리 교육의 터전우에 피어난

드넓지 않는 한떨기의 붉은 꽃

사랑하는 새 조국의 아름다운 념

전쟁승리를 알리는 레포의 총소리

혁명의 한길을 줄달음쳐가는

미더운 나의 어린 동지여라

나는 영화관앞에서 즉흥시 《어린 동지》를 읊었다. 학생들은 좋아라고 박수를 치면서 찬사를 보내었다.

우리들은 개신장군마냥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귀로에 올랐다.

나는 때식도 잊어버리고 시를 일본말로 번역한 후 그달음으로 한 진보적인 작가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그는 한번 대강 훑어보고는 흥미가 없고 공감감이 안되었던지 도리질을 하면서 뻥뻥하게 한마디 하였다.

《시가 고상하지 못하고 민족적 냄새가 지내 풍기는것 같소.》

이 말은 문학을 해보려는 나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다.

나는 다시 그길로 문학에 조예가 깊다는 한사람을 찾아가서 작품을 격한 심정으로 읊었다.

그러나 좌경모험주의와 민족리기주의의 광신자인 일본작가와 거의 같은 소리를 했다. 나는 분김에 원고지를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그리하여 《어린 동지》는 태어나서부터 흑한 세례를 받고 지면에 발표도 못된채 나의 일기장 속에 오랜 세월 파묻히게 되었다.

나는 그후 동인들과 함께 문학의 옳은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피대를 둔구며 여러날 거듭되는 론쟁을 벌였으나 도토리 키대보기로 신통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때 창작을 포기하다싶이 문학과 담을 쌓고 살았다.

총련결성을 한해 앞둔 1954년이다. 저물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날밤에 있었던 일이다.

나와 동인들은 일본의 반전평화투사의 한사람이 우리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돌아올 때 기념으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문학》 2권을 가지고왔으니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는 기별을 받고 진논까비가 훑날리는 밤길을 외투도 없이 달려갔다.

그는 《조선문학》 2권을 우리에게 내놓으면서 어서 보라고 하였다.

정말 《조선문학》이 틀림이 없었다.

여러 나라를 거쳐 세관들의 검열을 피하느라고 외투주머니에 감추고왔다는것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절반 청색을 띤 표지는 거의 다 찢어지고 책모서리는 보풀이 형편없이 일었으나 《조선문학》을 보는 순간 조국의 뜨거운 숨결, 민족의 억센 향취가 풍겨와 커다란 흥분과 기쁨속에 어쩔바를 몰랐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다음 숙소에 단숨으로 달려가 《조선문학》에 실린 작품들과 평론, 신년축하시, 책소개란까지 자자구구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이때 《조선문학》을 통하여 소설 《탈출기》와 《불타는 섬》의 원문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고 문학유산계승문제에 대한 당의 문예정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따라야 할 문학의 길은!》

《조선문학》은 해외에서 문학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었고 일본의 진보적 문학에 용해될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 조선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봉을 들어야 하겠다는 혁명의 진리를 체득하게 하였다.

1955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총련이 결성되고 주체적인 해외교포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동포들이 사는 일본방방곡곡에 나래치면서 우리들은 참된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조선문학》을 자양분으로 흡수하면서 새로운 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조선문학》,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자라난 우리 작가들이 창작으로 보답한 귀중한 결실이며 해외작가들의 돌도 없는 길동무이며 참신한 조국의 향취였다.

수기

영광의 로정

강림석

과학교육영화촬영소청사의 **김일성**광장쪽 첫번째 아파트에는 정전직후 미술가들이 여러명 살고 있었다.

당시 잡지 《조선문학》편집사업에 종사하던 내가 제호를 써주기로 약속한 미술가를 찾아 그 집

으로 간것은 여름의 뜨거운 해빛이 창문가에 비쳐들던 한낮이었다.

어서오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미술가의 방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저 먹을 갈아서 한번 쓰면 되는것으로만 알

고 있던 남의 직업(아니 창작)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부족했던 점은 편집원인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넓은 방안에 《조선문학》이라는 잡지의 제호 원고가 한가득 널려있는 그 사실이었다. 보매 100 장도 넘을것 같은 인상이었다.

이미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그 늙은 서예가(그는 조선화를 전문으로 하는 미술가였다)는 그 많은것들중에서 석장을 골라서 얇은뱅이책상 위에 내놓았다. 쓰기는 여러장 써보았는데 그 석장이 좀 나은것 같으니 편집부에 가지고가서 선택하라는것이였다.

100 장도 넘게 써본 그 미술가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안고 편집부에 돌아오니 동무들도 모두 기뻐 하였다. 그 제호원고를 가운데 놓고 우리 편집일군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번 일은 단순히 잡지의 제명이나 바꾸고 장정을 바꾸는 실무적인 개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랬다! 해방후 민족문화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를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 작가들의 문학잡지 《문화전선》의 뒤를 이어 《문학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던 작가동맹의 기관잡지를 《조선문학》으로 개편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가졌던 제 1 차조선작가대회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조선문학운동상에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종군기 《바다가 보인다》와 단편소설 《불타는 섬》, 시 《이 사람들속에서》, 《저기로》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적인 작품들을 기동성있게 편집하여 전선의 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을 전쟁승리로 고무하던 작가들의 기관잡지는 바야흐로 우리의 영웅적 인민들을 전후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새로운 력사적 시기를 맞이하였던것이다.

련계를 가지던 작가들의 주소가 전선의 군부대들로부터 복구건설에 일떠선 공장과 기업소 건설장으로 바뀌게 되였다. 우리 작가들은 새들이 깃을 다시 트는 제철소의 현장합숙에서 전사들의 영웅담을 적던 취재수첩의 다음장을 건설자들의 미담으로 기록해나갔다.

작가들의 원고를 안고 씨름을 하며 사무실에서 밤을 밝히고나서도 아무런 피곤을 느끼지 않는 편집원들이 모여앉은 편집부에서는 전선에서 돌

아온 작가들과 건설장으로 떠나는 작가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으며 새로운 창작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벌어지군하였다.

당시 우리 편집부의 청사는 대동강 기슭 오늘의 옥류청량음료점자리에 있었다. 지하실까지 합해서 3 층이였던 그 청사는 랑만적인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듯 대동강에 면한 벽쪽의 창문은 마치 기선의 창문처럼 둥그랬다. 앉아있노라면 둥그런 창문으로는 룡라도와 문수벌의 아름다운 기슭이 안겨오고 밑에서는 물결소리까지 들려왔다. 제법 배를 탄 기분이었다. 서사시 《비행기사냥군조》의 작가가 자기 작품의 첫머리에서 자기의 창작실을 그 어떤 배에 비유한것도 아마 이 청사를 념두에 두고 했을것이다.

맛을 올리고 큰 바다로 달리는 행복한 배위에 앉은듯한 다분히 랑만적인 그 《뗏》때문만이 아니였다. 조벽암, 유항림, 김순석을 비롯한 우리 편집성원들이 밤에까지도 일을 하며 정열과 긍지에 넘쳐있은것은 전후 조선문학이 나아갈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때문이었다.

우리 문학을 언제나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작가들과 편집원들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 인민의 참된 문학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왔다.

리기영, 박세영을 비롯한 로세대의 작가들과 불타는 전호속에서 봇나무껍질에 시를 쓰며 자란 새 세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왔다.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 위훈을 묘사한 단편소설 《명령》과 승리한 인민들의 기상을 노래한 서정시 《갈매기》 등 신인들에 의하여 우수하게 씌여진 작품들이 활자화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된것도 이무렵의 일이다.

잡지는 우리 인민의 전쟁승리에 대한 찬가들과 함께 새로 조직하기 시작한 농업협동조합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채더미를 털고 일떠서는 공장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먼바다어로선단의 생활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와 개간되어가는 땅에 대한 이야기 등 자기의 주제범위를 훨씬 넓혀나갔다.

전쟁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사회주의 새 생활을 꾸려나가는 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 《길동무들》이 나가서 독자들의 호평을 받을 때 우리 편집일

군들이 맛보던 그 기쁨을 오늘도 잊을수 없고 농업협동화의 대서사시적 화풍을 생동하게 묘사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이 런재되면서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던 일이 오늘도 기억에 생생하다.

어찌 그뿐이라. 일찍부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가 더 잘 미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힘써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59년 3월 25일 잡지 《조선문학》을 비롯한 출판물보급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이야기와 《조선문학》에 실린 희곡 《불사조》를 친히 보아주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이야기는 《조선문학》의 편집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중의 하나로 전해지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속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로세대 작가들과 해방후에 나온 중년작가들, 전쟁의 나날에 성장한 청년작가들의 이름으로 잡지 《조선문학》은 자기의 목차를 다양하게 장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짓밟고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화를 짓밟으려던 침략자 미제를 쳐물리친 자랑스러운 승리자들의 목소리였다.

잡지 《조선문학》은 우리 문학운동의 활기로은 광장이였으며 주체문학이 자기의 빛나는 탐을 쌓아올린 자랑많은 터전이었다.

우리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을 편집하며 그리고 새로운 신진들을 찾아내고 키워주면서 잡지 《조선문학》은 해방직후의 그 유년시절과 50년대의 성장기를 거쳐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의 문학잡지로서의 영예로운 자기 사명을 다해왔다.

잡지 《조선문학》이 걸어온 길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 꽃피여 온 영광의 길이였으며 그속에서 우

리의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해온 영광의 로정이였다.

잡지의 오래전 목차를 펼쳐보며 작가들은 자기들의 감회깊은 성장과정을 돌이켜볼것이며 인민들은 자기일지도 모르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우리 조국의 력사를 읽게 될것이다.

이미 그 편집사업에서 손을 뗀지 30년이 지났으나 나는 그때의 일을 잊을수 없어 500호를 기념하는 특집에 시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도 시보다 이 수필을 쓰고싶었던것이다.

가끔 우리 집에는 그 잡지를 빌려보자고 이웃들이 찾아온다. 분실될가봐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쾌히 빌려주곤한다. 반환해올 때면 그 표지와 속지가 새까맣게 되지만 나는 나무람하지 않는다. 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잡지 《조선문학》이 인민들속에서 애독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되기때문이다.

나는 요새 잡지를 받을 때마다 낯선 필자들의 이름을 보며 기쁨에 잠기곤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밑에 우리의 문학대오가 얼마나 장성했는가.

비록 그 이름들은 낯설어도 우리 문학의 대를 이어 갈 미더운 후대들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축하를 보낸다. 새 세대 작가들의 창작에서 보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해방후의 첫 문학잡지 《문화전선》의 열렬한 독자였으며 전쟁시기와 전쟁후에는 《조선문학》의 편집사업에 복무한적이 있는 작가인 나는 창간 500호를 열렬히 축하한다. 앞으로도 잡지 《조선문학》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목소리만이 더욱 힘차게 울려나오고 그 불패의 창작리론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은 명작들만이 태어나기를 굳게 믿으며 그 성과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은 해발처럼

리명균

1

내가 그 로인을 본것은 우리 예술단이 유럽을 순회하던 때였다.

예술단은 프랑스와 오지리를 방문하고 도바협을 건너 런던에 도착하였다.

런던거리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있었다.

안개의 도시라는것을 들은바 있었고 이 안개로 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런던비극》이라고 이름 지어진 무서운 공해가 있었다는것도 알고있었으나 한낮에 전조등을 켜고 서서히 움직이는 차안에 앉아 매연에 그늘은것 같은 우중충한 런던탑을 바라보면서 나는 같은 자연현상도 전혀 판이한 감흥을 줄수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절감하였다.

안개라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윽함과 우아한 정서를 표시하는 단어로 알려져있다. 얼마나 많은 문학작품과 미술작품들에 안개가 형상되는가.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안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였다. 이고장의 안개는 침울했고 내굴과 같이 더러웠으며 단어로서도 그것은 모호하다는 뜻과 수수께끼, 비밀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씌였다.

파연 런던은 수수께끼가 많은 도시였다.

이곳에서는 시위도 별스럽게 했다.

런던에 도착한 다음날 나는 거리에서 시위행렬을 보았는데 시위자들은 2~3백명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해갔지만 한마디의 구호도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웨칭소리도 없었다. 가슴에 《일자리를!》라고 쓴 패쪽을 걸고 수심어린 얼굴로 묵묵히 걸어가는것 이였다. 묵묵행진...

시위에는 격동이나 분노가 표현되기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지쳤기때문인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결과가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아때문인지 묵묵히 걸어간다. 다만 목앞에 드리운 패쪽만이 그들의 요구를, 요구라기보다 애원을 표시하고있을뿐이였다.

안개속의 템스강처럼 소리없이 흐르는 침울한 행렬... 행렬속에는 젊은이들도 중년남자들도 부인들도 처녀들도 있었고 행색도 각이했지만 하나같이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마치 무엇을 조상하러 가는 사람들같았다. 특히 맨뒤에, 대렬에서 여라문 걸음이나 떨어져서 힘겹게 다리를 끌며 따라 가는 한 로인의 구슬픈 표정은 보는 사람들

로 하여금 가슴속을 허비우는듯한 아픔을 느끼게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 로인을 바라보았다.

허우대는 크나 구부정한 어깨, 바람에 헝클어진것 같은 희뿌연 머리카, 주름많은 얼굴에는 깊은 비애가 굳어붙었고 조그마한 눈은 몇걸음앞 길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시선을 박고있었는데 절망을 표시하는 조각상과도 같았다. 가슴에는 역시 《일자리를!》라고 쓴 패쪽이 드리워있었다.

로인은 혼자 걸어갔다. 값늑은 흠스팡뎃저고리... 대렬에서 떨어졌으나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무겁게 다리를 끌며 한가지 걸음새로 걸어간다. 대렬과 로인간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으나 대오의 누구도 로인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간격이 30여메터나 벌어졌을 때에야 낮이 창백하고 허리도 다리도 가는 한 처녀가 로인에게로 달려와 부축하였다.

로인은 처녀에게 이끌리어 걸음을 옮기였다.

이때 무심중 로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과도 같은 기이한 기색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마치도 오래 헤어져있다가 불현듯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짓는 그런 표정이였다.

나는 더 말할것 없이 그 영국의 늙은이가 초면이였고 또 그 늙은이도 나를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그 로인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틀림없이 그 어떤 내심의 격동이 얼굴에 떠올랐으며 침울하던 눈빛이 이상스레 밝아지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인가? 확실히 그것은 나에 대한 류다른 반응과 관심의 표시였다.

의혹에 휩싸여 나는 로인을 주시하였는데 문득 로인이 어딘가 로동자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사색의 그늘이 담겨져있는 시선으로 인해서인지 선이 뚜렷한, 세련이 느껴지는 얼굴 료곽으로 인해서인지 나는 로인이 실패한 예술가이거나 해직당한 교원일수 있다는 판단이 떠올랐다. 미술가인가? 미술가라면 동방사람인 나의 행색에 호기심을 가질수도 있는것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처녀에게 이끌려 그러나 한번 더 나를 돌아보고서야 저쪽으로 걸어가는 로인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리였다.

나는 이때 물론 런던거리의 수많은 실업자들중의 한사람인 그 로인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시작해서 닷새째 되던 날 밤, 온 런던거리가 우리 예술단에 대한 화제로 흥성거리고 텔레비존과 라디오에서 우리의 춤과 노래가 그치지 않던 날 밤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는 극장 광고판앞에서 나는 뜻밖에도 그 로인을 다시 보게 되었다.

공연은 시작되지 퍼그나 시간이 지났고 표를 사지 못해 안타까이 들끓던 사람들도 대부분 자취를 감추어 붐비던 극장주변이 흰해졌을 때였다.

광고판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한사람의 그림자를 본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로 그 로인, 시위대렬의 맨 꼬리에 서서 따라가던 로인이었다. 나는 로인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형클어진듯한 머리칼, 조그마한 눈, 흙스팡뎃저고리...

나는 반가움을 느꼈고 이 가난한 런던시민, 나에게 리해할수 없는 친근감을 표시했던 늙은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다는 예감으로 하여 말할수 없는 기쁨을 의식하였다. 우리 예술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나 돈이 없어 혹은 표를 사는 경쟁에 끼여들지 못해 극장밖에 남은듯한 이 머리 흰 실업자를 데려다 특별석에 앉히자.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예술단 성원입니다. 표를 사하지 못한듯한데...나와 함께 가십시오. 좌석을 알선포해드리겠습니다. 예비좌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며 로인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자기에게로 접근하는 인기척을 느끼고 홀깃 고개를 돌린 로인은 나를 알아보자 이상스레 당황해하였으며 마치도 몇몇치 못한 행동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계면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쪽으로 돌아서는것이였다. 거리에서 처음 시선이 부딪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한순간후 로인은 이미 자취를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혹과 함께 불쾌감을 의식하였다. 이상한 늙은이이다...

이 나라가 우리와 국교관계가 없는 나라이며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한순간 잊어버리고있었던 자신의 경솔을 질책하면서 불쾌감을 누르느라 나는 잠시 선자리에 굳어져있었다.

그러나 이날밤의 불쾌감은 그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나에게 경계심을 일으켰으며 은연중 그 늙은이가 어데 나타나지 않는가 살피게 만들었다. 로인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런던을 떠나기 전날 저녁, 마지막 공연을 하러 가는 우리 예술단이 호텔앞에서 차를 타고 출발했을 때였다. 나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로인이 호텔앞마당의 한쪽구석, 어둑한

보리수나무그늘밑에 서있는것을 보았기때문이었다.

호텔앞마당은 손님들의 래왕이 많은곳이고 또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로 올수도 있는것이므로 시비할 근거는 없지만 직업을 얻기 위해 수심에 잠겨 묵묵행진을 하던 늙은이가 이곳에 나타난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졌으며 로인에 대한 나의 의혹을 확인해준다고 생각되었다.

저 늙은이는 틀림없이 우리 예술단에 이상스런 관심을 가지고있다. 이제 다시 눈에 띄운다면 주동적으로 부딪쳐보자 하고 나는 달리는 차안에 앉아 생각하였다.

공연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행장으로 나가기 위해 차에 오르면서 나는 주의깊이 주변을 살피었다. 그러나 로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런던을 떠나는 우리 예술단이 비행기에 오르려고 휴게실을 나올 때였다. 안내양이 나에게 다가와 편지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의아하여 물었다.

《누가 주었습니까?》

《웬 사람이 선생님에게 전해달라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인가?

비행기에 올라 봉투를 뜯으니 촘촘한 글씨가 특히 쓰여져있는 편지지와 한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을 들여다본 나는, 그리고 뒤이어 사진을 돌려가며 본 모든 예술단성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첩장만한 크기의, 오랜 세월속에 누렇게 빛이 바랜 사진인데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낯모를 젊은이, 스물한두살가량 된 젊은이의 팔을 끼고 서계시는 사진이였다. 배경은 바다, 그 기슭에 몇그루의 소나무.

수령님의 영상은 해방직후의 그 활달함과 정력이 넘치시는 모습이고 젊은이도 당시 민청원들속에서 유행되던 옷차림, 흰 샤쓰의 깃을 제낀형 옷저고리우에 겹내놓은 차림인데 거무스레해보이는 강기있는 얼굴에 행복감이 넘치고있었다.

이 사진은 언제 어떻게 찍혀진것이며 어떤 경위로 런던에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 이런 수수께끼같은 방법으로 보내온 사람은 누구인가?

의혹과 호기심과 놀라움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편지를 펼쳐들었다.

2

편지에는 인쇄활자처럼 정확히 획을 그은 글자로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내가 이 사진을 얻은것은 1950 년 12 월 13 일 입니다. 날자까지 기억하는것은 그날이 바로 미8군사령관 위커가 황천객이 된 날이기때문입니다

다. 그때 나는 의료단성원으로 〈유엔군〉측에 종군했습니다. (불쾌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날 조선인민군의 제 2 전선부대들은 련천, 전곡지구의 여러곳에서 기습전을 벌렸는데 나는 미군의 두개 포대대와 탱크 한개 련대가 파철더미로 된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날의 패전으로 련천계선에서 미군이 계획했던 작전은 완전히 파산되었는데 그들의 유일한 〈소득〉은 중상을 당하고 쓰러진 한 인민군공병전사를 발견한것이었습니다.

공병전사는 신체의 여러곳에 파편상을 입어 운신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 중상당한 공병전사를 발견한 현장에 의사인 제가 불리워갔습니다.

미군장교들의 설명에 의하면 소수의 인민군공병전사들이 대담무쌍하게도 미군주둔지 가까이 접근하여 반탱크지뢰로 포위환을 형성한 다음 탱크집결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는데 당황한 탱크들은 뿔뿔이 기동하면서 마치 놀란 바퀴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다가 불에 타죽는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손실은 너무도 컸소. 우리는 이 전사에게서 짜낼수 있는것을 최대한으로 짜내야 하오.〉

미군대좌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잘만하면 그 인민군전사에게서 워커중장을 되살릴수 있는 무슨 비방이라도 얻어낼수 있다는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중상을 당한 공병전사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는데 적들을 쏘아보는것도 같았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의 실신한 눈이라고 나는 판단하였습니다.

나는 대좌에게 이런 상태에서 심문이란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좌는 성을 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을 데려온것이다. 정보장교가 아닌 당신을 데려온 리유가 리해되지 않소?〉

나의 임무는 사경에 이른 전사를 심문에 응할수있도록 소생시키는것이었습니다.

대좌의 요구에 따라 나는 몇가지 의료상조치를 취했습니다.

내가 강심제를 놓을 때에도 약에 반친 미군장교들은 심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

다. 〈어느 부대 소속인가?〉

〈부대 지휘부가 어데 있는가?〉

미군장교들은 피눈이 되어 날뛰었지만 공병전사의 억세게 꼭 다물린 입은 열려지지 않았습니

다. 〈몸을 수색해보라.〉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 대좌가 명령했습니다.

몇명의 장교가 달려들어 공병전사의 몸을 여기

저기 들추었습니다. 한 장교의 손에 군인증이 쥐여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파편에 절반나마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알수 없었습니다.

〈당원증은 없는가?〉

대좌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가 자기 역할을 할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좌는 응대도 하지 않았고 몸을 검색하는 중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원증이 없는가?〉

〈없습니다.〉

〈로동당원이 아니란 말인가?〉

중위는 나를 물리치고 공병전사의 군복상의를 헤치며 손을 들어밀었습니다. 전사의 옷몸을 살살이 더듬던 중위의 손이 군복왼쪽 안주머니에 닿았을 때입니다. 그 순간 실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경에 이른것처럼 쓰러져있던, 아직 혼미한 상태인지 의식을 회복했는지조차 명백치 않았던 공병전사가 소스라치며 중위의 손을 물리치더니 벌떡 일어서며 무서운 힘으로 중위의 얼굴에 타격을 안겼습니다. 중위는 한주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주변에 서있던 미군장교들은 너무도 놀라 아연실색해있다가 떼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7~8 명의 미군장교와 한명의 인민군부상병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인민군전사는 온몸에서 피가 흘렀으나 불사신처럼 적수들에게 초인간적인 강타를 안겼습니다. 격투는 물론 불과 몇분간 지속되었고 공병전사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미군장교도 돌이나 급소에 타격을 받고 숨졌으며 다른 장교들도 모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무서운자요! 무죄주먹을 가진자요!〉

대좌가 왼쪽눈을 찌르고 응얼거렸습니다.

〈포승으로 묶어놓지 않은게 잘못이다.〉

터진 입귀로 피를 흘리면서 한 장교가 씨근거렸습니다.

〈몸을 가 했다가 중상을 당했기때문에 묶지 않았더니 그게 실책이였습니다.〉

〈갑작같이 속았는걸. 저런것이 늙은 사자의 전술이라는거지. 죽은듯이 쓰러져있다가 비호처럼...〉

그러나 나는 인민군전사가 그 무슨 늙은 사자의 전술을 썼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

다. 나는 인민군전사가 실제로 빈사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이미 숨을 거두었을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런 초인간적인 행동으로 추동하였겠습니까?

그때 나는 그것을 리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소스라쳐 일어섰는가는 알고있었습니다

다.

중위가 그의 몸을 여기저기 검색할 때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왼쪽 안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순간 전기에 닿은것처럼 소스라쳤고 기적과도 같이 격투를 벌렸던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미군장교들이 터진 불파구에 약을 바르며 꺾어진 팔에 부목을 대느라 뒤숭숭해 돌아갈 때 나는 슬그머니 공병전사의 왼쪽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수첩만한 크기의, 그러나 부피는 얇은 무엇인가가 쥐여졌습니다. 무엇일까? 나는 비상한 호기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날밤 나는 천막속에서 혼자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유지로 차곡차곡 싼것이었습니다.

유지를 벗겼습니다. 유지속에서는 꾸겨지지 않도록 세루로이드판대기를 앞뒤에 대고 또 한겹 하얀 종이로 싼것이 나왔는데 종이를 벗기니 뜻밖에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내는 사진입니다. 첫순간 나는 아연했습니다. 사진이 아닌가? 가족사진인가? 가족사진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실망과 의혹속에서 사진을 주시했습니다. 사진속의 젊은이는 입대전의 공병전사라는것이 첫눈에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팔을 끼고 서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숙연한 인품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일까?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기에 이처럼 귀중한 가슴에 품고있었을까?

문득 교장선생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전사가 어느날 자기의 모교를 방문했다면 교장선생과 함께 기념으로 이런 사진을 찍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그러한 추측을 부정했습니다. 교장선생이라고 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도 승엄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는 팔을 끼고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을 끼는것은 상하관계에서는 있을수 없고 오직 친구들사이에서만, 그것도 매우 다정한 관계에 있는 벗들사이에서만 취하는 자세인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비범한분과 전사를 친구라고 볼수는 더우기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사진일까? 어떤 사진이기에 그토록 귀중히 가슴에 품고 싸움터에 나왔으며 그 사진을 구출하기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바쳤을까?

실상 그 전사는 죽지 않을수 있었습니다. 미군장교들의 요구대로 부대의 대호를 알려주고 부대의 주둔지를 지도에 표시해주겠다는 약속만 했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수 있고 (그래서 나를 데려왔던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사는 목숨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 사진을 위해 실로 생사를 초월하는 기적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무슨 사진일까? 나는 못견디게 호기심이 북받쳤습니다.

일찌기 오노레 드 발자크는 우리 의학자들보다 먼저 사람이 비상한 정황에 놓이면 평소에는 볼수 없었던 놀라운 활력을 발휘할수 있는 체액이 생긴다는 생물학적 법칙을 발견했는데 나는 인민군전사의 초인간적 행동은 발자크의 법칙으로써도 해명할수 없는 새로운 원리를 표시하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진일까?

나는 깊은 의문을 품었고 그 의문을 해독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 시기에 이미 <유엔군> 측에 실망을 느끼고있었지만 귀측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없었습니다. 사진에 대한 호기심은 귀측에 대해서 알고싶었던 당시의 저의 심정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두고 끝없는 사색의 미궁을 헤매였습니다. 사진은 무엇인가 승엄한것을 나에게 암시하는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그 어떤 정신력에 대해 말해준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움트고 자라나는 공병전사에 대한 존경심을, 잊을수 없는 추억처럼 심장에 새겨지는 공병전사의 거인적 모습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선전쟁에서 받은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전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미군에 대한 환멸감, 혐오감을 물리칠수 없었습니다. 공병전사에 비하면 그들은 너무도 저속했고 그들에게는 그 어떤 정신력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선전쟁이 고상한 사람들과 저속한 사람들의 대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의식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중부조선의 한 산골짜기에서였습니다. 부상은 대수롭지 않지만 나는 귀국했습니다.

귀국후 오랜 세월 나는 사진에 대해 잊고 지냈습니다. 끊임없는 실직과 생활난은 (부상당한 팔에 마비가 오군하여 외과의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대해 생각할 경황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조선예술단의 도착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거리에서 우연히 수십년만에 조선사람인 당신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에야(그때 나는 얼마나 반가움을 느꼈던지 모릅니다.) 오래동안 잊고있었던 사진을 회상했고 깊이 간수했던것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사진을 당신들에게 가져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전사의 남다른 최후에 대해 그의 조국이 모르고있으리라는 생각, 비범한 전사의 영웅적 정신력이 깃들어있는 이 사진을 그의 조

국에 넘겨주고 그의 최후에 대해 알려주는것이 인간적 의무라고 생각되었기때문입니다.

극장앞에서 당신을 만났던 그날밤 나는 품속에 사진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돌연히 당신을 만난 순간 당황했고 위축을 느꼈습니다. 귀에 술단의 숙소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를 요청할 용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몇몇치 못한자의 피해망상증이었다고 판단되지만 귀국이 미증유의 시련과 고통을 겪던 시기에 적축을 도와준 나에게 당신들을 만날 면목이, 체면이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무엇하겠습니까? 사진을 돌려보내고 사유를 알려드리기만 하면 될것입니다. ...》

편지에는 이름도 없었다.

3

조국에 돌아온후 나는 이 사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인민무력부의 해당한 일군들을 만나보았고 전승기념관도 찾아갔다.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람은 없었다.

제2전선부대에 참가했던 로병들도 수많이 만나보았다. 그러나 그들가운데도 사진속의 젊은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군복이 아니라 사복차림이여서 눈에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련천, 전곡 지구작전에는 개별적으로 후퇴해오던 인원들도 참가했기때문에 모를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면 누가 이 사진에 대해서 알수 있겠는가? 배경에 보이는 바다기슭은 어대인가?

누구든 이 사진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람이 있을것 아닌가?

전사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긴 이 사진에 깃들어있는 사연이 세월의 갈피속에서 전사의 위훈과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나는 사진을 앞에 놓고 깊은 상념에 잠기군하였다.

기어이 알아내야 한다. 사진의 래력을 알아내는것은 영웅을 찾는 일이다.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참되게 살줄 안 영웅을 찾는 일이며 만약 물려선다면 나는 영웅앞에, 조국앞에 죄를 짓게 되리라는것을, 영원히 벗을수 없는 죄책감의 고통속에서 모대기게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생각하고 모색하던끝에 나는 해방직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부관의 직무를 수행한 한 투사를 찾아갔다.

《투사동지, 이 사진이 기억에 없습니까? 전쟁 전 민주건설시기의 사진인데... 그때 투사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업하셨기때문에 혹시 아실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찾아왔습니

다.》

머리에 서리가 희끗한 로투사는 돌보기를 꺼내끼고 오래동안 주의깊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으나 이윽고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생각나지 않누만...그 시절에 수령님께서 만나신 사람이 어디 천이나 만으론들 다 세이겠소? 려운형, 김구로부터 김제원, 리계산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나라 어디엔들 안가보신데가 있겠소? 바다가, 소나무... 알수 없군. 우리 나라에는 바다도 많고 소나무도 많으니...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디서 났소?》

나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뭐요?!》

로투사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로투사는 격동을 누르지 못해하였다.

그는 방안을 서성거리며 되뇌였다.

《알아보지요. 알아낼수 있지. 알아낼수 있구말구. 조국이 영웅을 잊을수가 없지...》

한주일후 로투사는 나를 불렀다. 달려가니 반가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찾았소. 찾았단 말이요. 사진을 찍은곳은 동해안의 송포요. 이 소나무는 송포바다가의 소나무고 젊은이는 채탄공이요. ... 이 일지가 기억의 실머리를 주었소.》

로투사가 펼쳐보이는 오랜 사업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7월 8일 장군님께서 문암제련소를 찾으시였다.

7월 8일 장군님께서 송포휴양소를 돌아보시였다.

로투사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흥분하여 말하였다.

《47년도일거요. 그렇지만 사진을 찍던 일이 생각나오. 생각난단 말이요.

수령님께서 문암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인데 멀지 않은곳에 있는 송포휴양소에 제 1기휴양생들이 입소했다는 보고가 왔지. 송포휴양소는 수령님의 발기로 왜놈고관들이 쓰던 별장들에 꾸린 우리 나라의 첫 휴양소들중의 하나인데 그곳 제 1기휴양생은 말하자면 우리 나라 5000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휴양생들이었소. 장군님께서 어찌도 기뻐하시던지.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소.

《송포에 가봅시다.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휴양을 시작했는가 가서 봅시다.》

장군님을 맞이한 휴양소 소장은 휴양생들의 꿈같은 생활에 대해 보고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올렸소.

《한 휴양생은 첫날밤 이불을 덮지 않고 잤습니다. 이상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비단이불이 검어질가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탄광에서 온 채탄공입니다. ...》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셨소.

〈천지개벽이요.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가장 우대를 받게 되었거든. 이 바다가에 술숨이 생겨 난것은 700년전이라고 하는데 봉건사대부들과 왜놈들의 유혹러로만 리용되던 송포가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난셈이요.〉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식당과 오락실, 침실들을 차례로 죄다 돌아보시고 많은 시간을 내시여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온 휴양생들과 담화하셨는데 떠나오실 때 남녀휴양생들이 그이를 에워싸며 간청하였소.

〈장군님, 저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기념으루...〉

〈사진?〉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소.

〈사진사가 있나?〉

〈있습니다.〉

〈그러면 찍읍시다. 송포휴양소 제 1기휴양생들의 사진은 력사에 남을만한 사진입니다. 인민조선에 휴양소가 생겨났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진입니다.〉

정구장에는 이미 의자들도 놓여있었고 세다리를 뻗쳐놓는 평판사진기도 설치되어있었소.

그것을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이 벌써 준비를 다 해놔구만.〉 하고 웃으셨소.

휴양생들은 그이를 앞줄가운데의자에 모시었소.

그이께서는 휴양생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휴양소 소장에게 나직이 물으셨소.

〈그 이불을 사양했다는 탄부가 어데 있습니까? 그 동무를 부르시오. 이 앞줄에 앉힙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채탄공은 보이지 않았소. 휴양소구내 어디에도 없었소. 모두가 슬렁거렸소.

10분쯤 지나서야 그 채탄공이 무슨 급한 일이 있다면서 아침에 시내에 들어갔다는것이 접수구 아바이를 통해 밝혀졌소.

장군님께서서는 그 채탄공이 사진촬영에서 빠지게 된것을 무척 아쉬워하셨소.

〈좀 기다려봅시다.〉

그러나 장군님의 다음로정이 긴장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던 나는 부관으로서 가만히 있을수 없었소.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15분이 더 지나자 사진사에게 어서 찍으라고 신호했소.

사진을 찍고 떠나실 때 장군님께서서는 심려어린 안색으로 휴양소 소장에게 당부하셨소.

〈그 채탄공동무에게 무슨 사정이 생긴것 같은데 잘 알아보고 도와주시오.〉

그런데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막 휴양소정문을 나서는데 바다가길을 따라 한 젊은이가 달려오는것이 보였소. 땀을 철철 흘리면서 무엇인가 손

에 들고...

〈바로 저 동무입니다. 그 이불을 안덜겠다고 하던...〉

휴양소장이 달려와 말씀드렸소.

〈차를 멈추시오.〉

차가 멎고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내리시자 그리고 장군님께서 바로 자기를 향해 걸어오시자 젊은 이는 너무 당황하여 몸들바를 몰라하다가 굵석 절을 하고는 길을 비켜드리려는듯 길가녁으로 모걸음을 쳤소.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셨소.

〈왜 물러섭니까? 나는 바로 동무를 만나자고 하는데... 손에 전진 무릅니까? 책이 아닙니까? 무슨 책임니까?〉

채탄공은 주저하며 말씀드렸소.

〈파...광물학기초입니다...〉

〈어디 좀 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채탄공이 손에 쥐고있는 책을 받아보시었소.

〈아, 시도서관 책이구만...그러니 시도서관에 갔다오는 길이구만.〉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싯듯 휴양소장을 돌아보시었소.

〈보시오. 우리 동무들이 휴양소에 와서도 그저 놀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된 우리 로동계급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여기서 시도서관에 다니자면 멀어서 불편하겠습니다. 휴양소안에 도서관을 하나 잘 꾸려줍시다. 앞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다 울터이니 여러가지 책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랑어린 눈매로 그 채탄공을 다시금 바라보시더니 아쉬우싯듯 말씀하셨소.

〈그런데 그사이 우리는 기념촬영을 했는데 동무는 그만 빠졌습니다.〉

채탄공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어리었소. 시도서관에 갔다가 장군님께서 휴양소에 들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사천리로 달려온것인데 그만 늦은것이었소.

장군님께서서는 채탄공을 사랑이 넘치시는 안광으로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휴양소장에게 말씀하셨소.

〈사진사동무가 어데 있습니까? 여기로 부르시오. 저 동무와 함께 사진을 찍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송포휴양소사진을 볼적마다 빠진 저 동무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진사가 달려왔소.

장군님께서서는 꿈같은 기쁨에 어리둥절해있는 채탄공, 얼굴도 손도 석탄빛이 스며배 가무잡잡한 청년탄부를 자신의 곁에 이끌어세우시더니 그의 팔을 꼭 끼시었소.

〈듣자니 동무는 이불도 사양했다는데... 우리가

백두산에서 15 년간을 싸운것은 바로 동무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소. …사진사동무, 어서 찍으시오.)

사진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것이요…»

로투사는 말을 끊더니 자신의 내심을 더듬는듯한 어조로 다시 뇌이는것이였다.

《그 사진이 영웅을 낳았구만…장군님의 사랑이 영웅을 낳았던 말이요…»

방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깃들었다. 로투사는 더는 말이 없었다. 감회와 격동을 억제할수 없는듯 지그시 눈을 감고있었다.

깊이 머리를 숙이고있던 나는 한참후 가만히 물었다.

《전사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까?》

로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름은…생각나지 않아… 이름을 생각해보느라 오래동안 신고했소. 그렇지만 아무리 기억을 쥐여짜도 생각나지 않누만…저 일지에 써넣어야 하는건데 내가 소홀했소. 파오를 범했지. 죄를 졌단말이요. 영웅앞에 죄를 졌소…»

로투사는 피로와하였다.

무거운 가슴을 누르며 나는 조심히 로투사에게 송포휴양소에 가보겠다고 말하였다. 혹시 제1기 휴양생들의 명단이 있을지 누가 알랴. 명단은 없더라도 1기생들중 누구를 찾을수 있다면… 그러면 영웅에 대해 무엇인가를 더 알아낼수 있지 않겠는가?

내 의도를 리해한 로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 하오. 》

나는 송포로 내려갔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다.

우리 나라 굴지의 명승지인 송포의 풍치는 예나 다름없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멀리 송포 앞바다를 성벽처럼 안고있는 호진반도도 변함없이 그림같았으나 휴양소에 1기생명단은 없었다. 30여년의 긴 세월이 흘렀고 전쟁의 불구름이 지나갔으니 어찌 1기생명단이 남아있기를 바라랴.

1기생들중의 누구를 찾는다는것도 막연한 일이었다. 휴양소일군들도 무척 송구스러워하면서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재삼 약속할뿐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내가 휴양소를 떠나려고 막 일어섰을 때였다.

휴양소 도서실주임으로 일하고있는 처녀가 나를 찾아왔다. 단아한 용모의 처녀는 그윽한 눈매에 영웅에 대한 깊은 감동을 담고 말하였다. 자기의 삼촌이 전쟁전에 이곳 휴양소에서 화부로 일했는데 혹시 무엇을 알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였다.

《의삼촌은 지금도 여기 휴양소에서 일하시던 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의삼촌이 어데 계십니까?》

《팔데 집에 가계세요. 길주예요. 딸이 읍농장 1 작업반장입니다. 제가 이제 편지로 알아보겠어요.》

《아니, 내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길주역에 내렸으며 읍농장 1 작업반마을에 찾아들어가 마침 앞마당에서 낫을 갈고있는 웅골차게 생긴 늙은이를 만났다. 올해 69살인 로인은 아직 단단해보였으나 자기는 48 년도부터 송포휴양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47 년도에 있는 일은 잘 모른다는 것이였다.

《내가 송포에 가기 전해에 수령님께서 휴양소에 오셨다 가신 이야기는 들었소.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있겠소. 휴양소의 자랑이었으니깐. 내가 있을적에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책이 술하게 왔었소. 도서실을 크게 꾸렸지요. 도서실책장을 팔때 나두 대패질을 했소. 그런데 이 젊은인 모르겠소…»

로인은 돋보기를 벗으며 딱한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사진이 나타나게 된 경위를 자상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늙은이는 《그렇소?! 》 하고 깜짝 놀랐으며 마치 47 년도부터 송포에 있지 않은 것이 자기의 고의적인 파오이거나 한것처럼 미안해하는것이였다. 로인은 사과하듯이 말하였다.

《사실 내가 47 년도 여름에 송포에 갈수 있었소. 그런걸 로친이 말을 안들었지…»

민망해하며 어떻게건 도움을 주지 못해 갑자기 로인은 잠시후 이렇게 뇌이는것이였다.

《가만…내가 그그러게 가을에 셋째내 집에 갔다 오다가 기차안에서 유아주머니를 만났지. 휴양소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한 아주머니요. 어데 있다고 했던가? 그렇지, 화대에 있다고 했소. 아들이 군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자랑이 자신했소…»

다음날 중낮때 나는 화대군행정위원회 청사에 들어섰고 반시간후에는 울타리마다에 점종화가 만발 한, 정갈한 사택마을에서 머리에 서리가 하얀 그러나 허우대가 크고 아직 정정한 할머니를 만났다.

《생각나제이쿠, 송포휴양소에 있는 사람치고 이 사진을 모를 사람 있겠습? 날 찾아오길 잘했수. 장군님께서 오셨던 날 일이 아직뚜라 환하다이. 장군님께서 주방에도 들리셨다우. 주방에선 그때 문어회를 치고있었는데 저미는 일을 내가 했수. 칼도마질엔 날 당할 아낙이 없었으니깐.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웃으시며 (아주머니 숨씨가 아주 불만합니다. 보기에 좋으니 맛도 좋을것입니다.) 하고 치하해주셨수. 내가 한창때였다우…»

나는 나직이 물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름

을 알고싶어서 왔습니다.》

《이름?! 내 나이에 그런 충기야 남아있겠습? 그게 어느때 일이라구...그렇지만두 이 젊은이가 부뚜막을 쌓아준건 생각나우. 탄불이 잘 안들어 주방에서 얼 먹었는데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걸 이 젊은이가 제격 고쳐주었다우. 휴양을 온 사람이 진일을 마다않고 슬그머니 옷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내 좀 해보지요.> 하지 않겠수.》

《어느 탄광에서 온 젊은이인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니까?》

《내가 래후년이면 팔갑이라우...그렇지만 젊은이 모상은 천신하우.》

할머니는 벗었던 돋보기를 다시 끼며 재삼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만나보구프다이. 만나문사 얼마나 기쁠가. 이젠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겠지비. 아들딸두 있을거구...》

이런 할머니에게 영웅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내 얼굴에 깊은 그늘이 비졌던 모양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의아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참, 이 젊은이의 이름두 모르구서 사진은 어디에서 났수?》

나는 설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할머니는 너무도 놀라 경풍을 일으킨것처럼 훌쩍 손을 들며 굳어졌다.

《내가 이리두 주책이 없다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고 눈굽에는 뜨거운 이슬이 번쩍었다.

《옳수, 사람인즉 진국이였수. 싸움두 그렇게 했을거유...》

《이 젊은이가 있던 탄광을 꼭 찾자고 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할머니는 나직이 물었다.

《어디루 가자구 그러나?》

《...》

나는 대답을 못하였다.

《가만...계 좀 섰으라우.》

할머니는 나를 만류하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말하는것이였다.

《그 젊은이가...휴양을 마치고 갈 때 남달리 새벽에 떠났다우. 날밝기전에...거긴 기차두 없다구 했지. 하루길을 걷는다구 했수. 내가 점심밥을 꾸려준것이 생각나우...》

나는 눈이 번쩍 떠는것 같았다. 송포에서 하루길, 47년도 당시에 철길이 없었던 탄광! 이것이면 능히 찾을수 있지 않겠는가?

《고맙습니다. 요긴한걸 깨우쳐주셨습니다.》

사흘후에 나는 원평탄광 지배인과 마주앉았다.

지배인은 해방전에 소년탄부로 원평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이름있는 공훈탄부였으나 몸은 체소한 편이였다. 불수염자리가 검은스런 그는 사진을 받아들자 짙은 눈섭을 모

으며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는데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나는 긴장하여 지배인의 표정을 주시하였다. 이 지배인도 모른다면 실머리는 끊어지는것이였다.

그런데 문득 나는 지배인의 거친 낮에 두줄기의 뜨거운 눈물이 번쩍이며 흘러내리는것을 보았다.

한참후 지배인은 사진을 탁자우에 내려놓더니 말없이 담배를 피워물었다.

나는 가슴이 옥죄여드는것을 의식하며 지배인의 시선과 손놀림 하나하나를 주시하였다.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나서야 지배인은 입을 열었다.

《진원근동무는...우리 작업반 반장이였습니다.

진원근반장이 창안한 원충식채탄법은 지금도 지압이 센 막장들에서 적용되고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탄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49년도에 수령님께서 몸소 우리 탄광에 오셨는데 진원근반장을 첫눈에 알아보십니다.

〈아, 진원근동무구만. 우린 구면이지...〉

장군님께서 어찌도 반가와하시던지.

모시고 섰던 기사장동무가 우리 탄광에서 첫째가는 혁신자이고 모범작업반장이라고 말씀올리니 장군님께서는 〈그러리라고 믿었소!〉 하시면서 〈이 동무를 공업대학에 보내줍시다.〉 라고 하십니다.

기사장이 펄쩍 놀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못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 가느냐고 의아해하니 〈체계적인 공부는 못했지만 따라갈지요. 저 동무는 휴양소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 동무요. 바로 저런 동무들을 위해서 대학들에 예과를 내왔소. 공업대학 예과에 보내줍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원근반장은 49년도 9월에 공업대학 예과에 입학했지요. 그때, 대학에 갈 때 작업반장의 직무를 나에게 인계했습니다....》

지배인은 목소리가 꼭 잠기며 시선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 그리 멀지 않은곳에 갱구들이 보이고 그 저쪽으로 버럭산이 높이 솟아있었다. 진원근반장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일터였다. 영웅이 성실한 땀과 근면한 노력으로 전사의 참된 마음을 키운 곳이었다. 나는 그 갱구알길을 걸어보고싶었고 막장에 들어가 탄벽을 어루만져보고싶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영웅의 발자국은 찾을수 없겠지만 그가 간데라를 걸어놓곤하던 동발들은 지금도 있을것이였다.

후더운 가슴을 안고 나는 다시금 탁상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겸손한 한 청년탄부의 팔을 끼고 서계시는 사진.

그 사진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말해주고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청소한 우리 로동계급이 어떻게 령도계급으로 자라났으며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영웅으로 싸웠는가를...

그 사진은 수령의 은혜를, 그 고마움을 누구보다도 가슴깊이 새기고있었던 전사-영웅의 충성심이 깃들어있는 사진이었다. 아아, 영웅이 지금도 우리의 곁에 있다면... 어느 명절날 혹은 어느 대회장에서 문득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아, 진원근동무구만. 우린 오랜 혁명동지지...》 하고 영웅의 두어깨를 꼭 붙안아주셨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높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사진이었다.

한시간후 나는 장거리전화로 투사동지를 찾아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리었다.

투사동지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전류를 타고 울려왔다.

《그렇소?! 수고했소. 고맙소...어서 올라오시오...》

다음날 아침 평양역에 내리는 길로 나는 투사동지를 찾아갔다.

로투사는 방에 들어선 나에게 자리를 권하더니 격동을 숨기지 못하며 말하였다.

《동무의 전화를 받은 즉시 인민무력부 해당부서에 진원근전사의 전투행적을 의뢰했더니 1차남진시기에 교사 3련대에 속해있었다는것을 방금전에 알려왔소. 교사는 락동강을 건넌 사단이요.

그러니 그 사진은 전사의 가슴에 안겨 락동강을 건너갔다가 왔소...》

나는 뜨거운것을 누르기 위해 숨을 멈추었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었다. 그리고 한참후에 로투사에게 조심히 사진을 전송기념관에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

로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오. 그 사진을 만사람이 볼수 있는곳에 우리의 후대들이 두고 두고 볼수 있는곳에 높이 걸어야 하오. 우리의 힘, 조선의 위력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알수 있게...》

나는 밖으로 나왔다.

사진의 매력은 다 밝혀졌다.

그러나...나는 내가 할바를 아직 다하지 못했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런던의 그 실직당한 의사에게, 목목행진을 하던 그 늙은 실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30 년간 그는 이 사진을 깊이 간수하고있었고 그것이 귀중한것임을 감각하고있었으나 그 진가를 해독하지는 못하였다. 이 한장의 사진에 로동계급의 운명, 억눌린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있음을 그가 어떻게 짐작인들 할수 있었으랴. 주소나 혹은 이름을 안다면, 후회와 절망에 싸여 어두운 인생말년을 묵묵히 걸어가고있던 그의 거처를 안다면... 그러나 이름도 주소도 모르니 알려줄 방도는 바이 없는것이였다.

끝나지 않은 시

조성관

너와의 첫 상면 첫 대결을
나는 광주참상의 그날에 시작하였다
시인의 무기 나의 시구의 대렬-
〈저주〉를 거느리고

나는 썼다
살인마 흡혈귀 전두환
내 만약 한순간이라도
네놈에 대한 저주를 멈춘다면
내 자신을 저주하겠노라고

시인의 저주는 인민의 저주이거니
불타는 그 저주로 하여
8년 긴 세월 타고왔은
네놈의 권좌는 한치한치 무너졌고
네놈의 살점도 한점한점 문드러졌으리

가련하구나
《전대통령각하》 께옵서
취도 새도 모르게
야밤도주의 신세가 되었으니

동해안 먼 심심산골
《백담사》가 어디인지를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곳도 조선땅일것을
우주를 종횡하는 시구의 화살이
어디엔들 못미치랴

시인의 저주를 받은자
부처님도 구제 못하리니
끝나지 않았다 나의 저주
끝나지 않으리 나의 시는
네놈이 지옥의 염라대왕앞에
무릎을 꿇은 그 다음에도

단상 몇가지

장수근

회고와 전망

《조선문학》에 실릴 첫 작품의 교정지를 받아보고 잠못이루던것이 어제일같다.

그런데 세월은 어언 20 년이 흘렀다. 그 사이 변변치 못하나마 줄곧 《조선문학》에 새 작품의 선을 보이군했다. 물론 가물에 콩나듯한 발표에 《줄곧》이라는 말을 붙이는것이 어폐일는지 모른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것은 《조선문학》과 더불어 내가 창작의 첫걸음을 익혔고 징검다리를 밟아 작가로 자라났다는 사실이다.

아마 《조선문학》 500 호에 즈음하여 이런 회심에 잠기는것은 나만이 아닌 모든 작가들의 공통된 심정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우리 문학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문학》과의 성실한 호상협조,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과 작가들의 성장발전을 기약하는 앞날의 담보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단편소설에 대한 소감

《조선문학》은 우리 문학의 얼굴이면서도 소설의 경우에는 단편소설의 안내자, 《단거리선수》들의 친절한 지도원이였다고 하는것이 보다 타당할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단에서 일부 대작주의적 경향이 단편소설에 대한 홀시로서 표현되고있는 실정은 단편소설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할 절실한 필요를 제기하고있다고 생각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용이 가치있고 깊이있는 작품보다도 형식과 규모가 큰 작품을 쓰는데 매달리는 대작주의도 형식주의의 한 표현이다.》

문학예술의 모든 형식들사이에 우열과 귀천이 없는것처럼 장중편소설과 단편소설사이에도 역시 높고 낮은 차이란 없다.

물론 장중편소설이 취급하는 생활이 폭넓고 복잡한데 비하여 단편소설이 단순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장중편은 쓰기 힘든 높은 차원의 문학이고 단편은 쓰기 험한 열은 문학인가.

결코 그럴수 없다.

작은 물방울에 우주가 비끼듯이 한편의 단편에 시대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한, 장중편의 용적에 맞먹는 명작단편들을 우리가 적게 찾아보는가.

작품의 무게와 깊이가 규모에 있는것이 아니라 내용 즉 종자의 철학적 심오성에 있다는것을 여가서 새삼스레 납득시킬 필요는 없을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장편소설을 대포라고 하면 단편소설은 보총에 비유할수 있다. 대포가 보총보다 위력이 큰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서툰 사람이 만든 대포가 헛방을 쏘아 요란한 폭음과 불기둥만 솟구친데 반하여 명사수의 보총이 적의 유생력량을 백발백중한다면 오히려 보총의 위력이 제구실 못한 대포보다 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명사수의 보총과도 같은 웅골찬 단편을 만들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확고히 단언할수 있는것은 그런 단편을 쓰기란 탐탁치 못한 장중편을 쓰기보다는 훨씬 어렵다는것이다.

그것은 높은 기교를 요구한다.

자전거는 누구나가 탄다. 그러나 좁은 무대에서 재주를 부리려면 아무나가 할수 없다. 관중이 교예배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까닭이 다른데 있지 않다.

하다면 장중편을 쓰는 모든 작가들이 단편이라는 좁은 무대에서 독자들과의 갈채를 받으리라는 보증이 있는가.

막대포를 쏘기보다 명중하는 보총의 사격술을 터득하는것이 어렵다는것은 더 론증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대포를 만들겠으면 똑똑히 만들어 쏘야 하는것이다.

빈소리만 낸 대포와 같은 장중편을 읽었을 때 독자는 소득없이 허실한 시간때문에 시큰둥해서 불만을 토한다.

우리는 좋은 장중편을 쓴 작가들중에 성과작 단편소설을 가지고있지 않은 실례를 알지 못한다.

단편 창작에 숙달함이 없이 무턱장중편에 달라붙는 무모한 행위에 응당한 반성이 있어야 할것이다.

문학에 대한 재음미

문학이란 곧 작품이다. 그러나 창작실천의 견지에서 볼 때 문학이란 작가와 작중인물, 독자라는 세 구성요소의 삼각관계라고도 볼수 있다. 그런데 왕왕 작가와 독자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도 독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찌하여 세 요소에 의한 문학에 대한 고찰이 의의를 가지는가.

작품이란 독자가 읽으며 독자를 위하여 쓴다. 관객이 없는 연극을 생각할수 없듯이 독자를 떠난 문학을 생각할수 없다.

그런데 창작중의 작가는 흔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관객》인 독자를 잊거나 덜 배려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설화적 주인공인 작가는 작품세계의 구성구석까지 낱알이 알고있다.

그러나 독자에게 작품이 재미있게 읽히게 하자면 차근차근 이야기를 엮으면서도 감출것은 감추면서 재궁재궁하게 끌고나가는 솜씨를 부려야 하는 것이다.

혹은 독자는 알지만 작중인물들 호상간에는 모르게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작가는 세심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세 요소에 의한 문학에 대한 재음미가 창작실천상 필요한것임을 알수가 있다.

그런데 보다 필요한 또하나의 나머지 리유가 있다.

함축의 예비

독자들은 짧게 쓴 글을 좋아하며 글쓰는 사람치고 짧게 쓰려고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짧다는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무턱대고 짧아서 좋을수는 없다. 지내 간략한 글은 오히려 앙상하여 내용에 손상을 줄것이다. 결국 짧게 쓴다는것(간결성)은 있을것이 있을만큼 알맞게 쓴다는데 귀착된다.

그러나 우리는 더 써야 할데를 덜 쓰거나 그만 써야 할데를 분수없이 늘어놓아 《비계》라는 군더더기를 만들곤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글쓰는 기교란 함축하는 기술이라는 말까지 있다.

하다면 분수를 잃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앞조항의 이야기에 이어 부연하건대 역시 독자를 무시하거나 망각한데 있다.

독자란 수동적인 감수자가 아니라 리지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다. 작가가 하나를 말하면 둘, 셋을 헤아리고 내짚는 작품세계의 적극적인 참가자인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것만큼 제시하고 생각할 여지를 남길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할대신 작가가 도말아 로파심을 부리면서 《친절》을 부릴 때 독자는 간섭을 느끼며 자기 몫을 가로채운데 대해 반발하게 되는것이다.

결국 함축의 예비란 다름아닌 독자의 예지를 백방으로 리용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거기에 있다. 바꿔 말하여 간결성이란 독자의 몫인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절제감이라고도 할수 있는바 적게 말하고 많이 생각케 하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높은 연단

한사람의 일방이 여러 대상을 가르친다는점에 서 작가는 교원이나 강사와 일맥상통한데에 있다.

반면에 거기에는 본질적인 차이도 있다. 교원이나 강사가 공통된 교과서나 제강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한정된 대상을 가르친다면 작가는 자기가 만든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 《생활의 교과서》를 가지고 시공간의 제한없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수천만 독자대중을 가르친다. 그 속에 작가의 사후에 루적되는 독자까지 포함됨은 말할것도 없다.

그리고 보면 자기의 《유일제강》을 가지고 이 세상 독자를 가르치는 작가에게 주어진 연단이야 말로 얼마나 높고 신성한것인가.

이것은 사회가 작가에게 부여한 영예롭고 숭고한 사명이기도 하다.

《약점》의 리용

교원과 강사를 타방으로 한 대비에서 다른 측면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그편에도 작가에게 없는 우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찾아보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수강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육성으로 말하며 교감하면서 가르친다는 점이다. 작가의 립장에서 볼 때 그것이 《약점》인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작가들이 일부 그 《약점》을 흥감스레 리용한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작가의 얼굴과 목소리는 인쇄기를 펼친 그존한 활자속에 가뭇없이 감추어지고만다. 활자는 좋

고 나쁜 글의 차이도 일매지게 만든다.

이제 독자는 앞뒤 사개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여도 씨가 먹지 않은 장광설을 늘어놓아도 당장 어디다 해보는수가 없다. 가령 교원이나 강사가 수강자들앞에서 그랬다면 과연 무사하겠는가.

틀린 소리 말라고 항의하든가 잡담이나 썩군대는 소리로 지루감을 나타낼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시치미를 떼고 지낼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하지만 《약점》을 리용한 피난처가 과연 안전한 곳이었는가, 천만에, 공간에 한번 올렸다가 사라지는 목소리와는 달리 한번 찍힌 활자는 지울수 없는 자욱으로 남아 작가를 추격하여 고발하고 조소하며 단죄하리라는것을 알아둬야 한다.

작가가 이 세상을 하직한 머나먼 후날에까지도 말이다.

활자는 훌륭한 글에는 영원한 영광을, 시답지 않은 글에는 영원한 수치의 락인을 찍어놓는것이 다.

량심을 두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는 작가에게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있다.

사명이란 의무, 책임감과 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량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말아안은 차원이 높은 신성한것이다. 하물며 돈과 명예를 바라고 하는 일이 사명으로 될수 없음은 더 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누가 하라고 시켜서 문학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사회를 향해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수 없는 사명감에서 한생을 바쳐야 할 《고역》을 스스로 결머지고 이 길에 들어선것이다.

문학이란 애당초 량심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떠나서는 할수 없는 량심의 직업이다.

문학적 량심, 작가적 량심이란 말이 있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만일 작가가 문학적 량심을 포기한다면 벌써 작가로서의 존재는 파멸이다.

문학적 량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말하고싶다. 범박하게 말하여 아니 쓰고 견딜수 없는 심장의 충동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는 것이라고. 그렇지 못한 글은 그 어떤 룡간을 부려도 정체를 감출수 없으며 독자를 속이지 못한다.

다.

작가적 량심이란 다시말하여 심장에서 버려진 똑똑한 글을 쓰는것, 그런것이 아니면 써내지 않는 강직성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당에서는 늘 하나를 써도 똑똑한것을 쓰라고 가르치고있다.

작가는 마땅히 자기의 리력란에 생애의 자욱을 적어넣듯이 자기의 창작년보를 깨끗하고 뽕뽕이 기록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작품들을 거듭 읽을 때마다 감흥을 자아내며 세월을 넘어 애독되는데서 커다란 자극과 고무를 받군한다. 두번 읽을 가치가 없는 작품은 한번 읽을 가치도 없다는 말이 있다.

심장의 흥분없이 쥐여쥔 글은 레외없이 그러한바 그렇게 쓰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편이 훨씬 량심적일것이다. 왜냐면 그 침묵이 심장을 달구어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한 고심참한 노력을 의미할것이기때문에.

작가의 지덕체

지덕체는 인격을 이루는 세 측면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작가들의 경우 지식과 정치 도덕수양에는 낮을 돌리면서도 마지막 건강한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현상을 찾아보게 된다.

문학이란 일생을 바치는 사업이다. 비유하여 마라손이나 같다. 더우기 산문인 경우 로년은 축적된 풍부한 체험, 사회와 인생을 투시하는 철학적 형안으로 하여 완숙의 계절이라고도 할수 있다.

만일 건강의 장애때문에 한생을 쌓아온 밑천을 채 써먹지 못하고 만다면 것처럼 가석한 일은 없을것이다.

건강은 젊음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의 봉우리까지 타산된 건장한 체력은 작가적 인격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된다.

지덕체가 겸비된 인격의 도가니를 쌓아올릴 때 그 어떤 《쇠돌》이든 녹여내어 사회에 유익한 창조물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한생을 마무리짓게 될것이다.

병아리는 가을에 가서 센다는 속담은 작가인 우리에게도 깊은 시사를 준다고 아니할수 없다.

대장부

남대현

꺼두룩한 키에 불쑥 두드리진 광대에 거기다가
뜨직뜨직 토해내는 투박한 사투리들.

그였다. 틀림없는 순호였다.

멀리 대학교문수위실 지붕우에서 연설하고있었지만 그가 틀림없이 순호라는것을 확인하게 되자
수정은 절로 가슴이 떨렸다.

(아, 무사했구나!)

무엇보다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는것으로 하여
마음이 놓이기는 했으나 한편으론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처지에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놓으면 어쩌나 하는 위구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기뻐다. 반가웠다.

《얼매나 기다리던 오늘입니까. 얼매나 가고싶던 판문점입니까.》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그의 말소리가 수만으로 설레이는 인파우에 퇴성처럼 울려퍼졌다.

《그래 학우들 귀에는 지금 우릴 애타게 기다리며 빨리 오라고 부르는 이북학생들의 고향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얼짜안고 포옹하길 바라는 이북형제들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말입니다.》

울부짖는듯한 그의 웨침소리를 듣느라니 수정은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면서 은연중 어떤 회오에 잠겨들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면 저런 사람울...)

사실 몇달을 한집에서 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는것이 없는 수정이었다. 설사 알고했다 해도 그의 사람됨을 리해할수 없었다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알팍한 동정으로부터 깔끔한 경원, 그것이 다시 짜늘한 랭소와 질시로까지...

《용서해주세요, 제발 절 용서해주세요.》

수정은 이렇게 뇌이면서 겹겹이 둘러선 사람들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한테로 가고싶었다. 아니 가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던것이다.

그를 처음 만난것은 2 월초 설악산등산에서 돌아와서였다. 학교써클친구들과 함께 특히 자기네 철학써클을 지도하고있는 S대의 기태오빠까지 동행해준것으로 하여 수정이엔겐 각별한 의의를 가지는 등산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가 대문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누르기바쁘게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을 연것은 뜻밖에도 엄마가 아니라 웬 허줄한 잠바차림의 낯선 사내였다.

《누구시지요?》

못마땅한 눈길로 쳐다보는데 두눈을 슴뻑거리며 마주보던 그가 더 큰소리로 되묻는것이였다.

《니는 누구?》

고등학생인 자기를 니라고 불러치우는데는 비위가 상했지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것이 어떻게든 특 불거진 사투린지 절로 웃음이 뻐어져나왔다.

《저요?》

《아- 그러니까 니가 수정이구나.》

필경 엄마가 데리고 온 짐꾼이려니 했는데 이름까지 아는것이 아닌가!

《내 순호라칸다. 너거집에서 같이 살라고 왔은께 그래 알아도고.》

(같이 살다니?)

수정은 더욱 얼떠름해졌다.

《하숙생이다 이말이다.》

하숙생이라는 말에 수정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고 은연중 미간이 찌프려지는것을 어쩔수없었다. 설악에서 안고온 흥심이그 뒤편 일시에 다 날아나고 말았다.

(엄만 정말!)

저도 모르게 이런 불만이 튀어나왔다.

아무 일에서나 그저 인정 하나만을 앞세우곤하는 엄마가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 검질기게 생긴 사내의 청에 못이겨 물려서고 말았으리라는 짐작이 들자 속이 무르기만한 엄마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그런 엄마에 대한 불만이 크면 쿨수록 또 엄마를 그와 같은 처지에 몰아넣었을 이 미련한 하숙생이 밉살스러워 참을수 없었다.

《이것 보세요.》

자기는 결코 엄마와는 다르다는것을, 절대로 자기라는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느끼게 할 양으로 수정은 속이 토라질 때면 그런것처럼 신랄한 문구를 골라내어 톡 내쏘았다.

《우리 집에서 실제 주인은 엄마가 아니라 저라는걸 알아주세요. 지금처럼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계실동안은 더욱 그래요. 하숙을 하고 말고 하시는건 제가 다시 엄마와 합의한 다음으로 미뤄주세요. 아시겠어요?》

어떤 호의가 있기를 바라던 하인이 주인의 뜻밖의 호령에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기색이 그의 얼굴에 비졌다.

《너거 어무이한테 다 승낙받았다 말이다.》

《제 승낙이 더 중요하다잖아요.》

《그라문 니는 안된다는기가? 이 봐라. 내 나쁜

늪 아인기라.》

그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 하는것이 다 적혀있기라도 한것처럼 조금도 선량해보이지도 않는 그 얼굴을 바싹 디밀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엄마한테 들이댔다. 왜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하숙생을 들였으며 들여도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입주시켰는가고.

《그 사람이 어째서?》

《우선 인상부터 보세요. 어디 정나미가 붙게 생겼어요?》

《이 철없는것아, 사람이란 인상을 가지곤 몰라. 난 여태 살면서 인상하고 맞아떨어지는 사람 본적 없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촌에는 로부모님밖에 안계시는데 이젠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나이아잖니. 그런데다가 발은 친척도 없다는거야. 누이들까지도 다 출가를 했으니말야.》

《그런거야 얼마든지 꾸며댈수도 있는거지요.》

《넌 어찌면...》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지는것을 본 수정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럼 대학엔 어떻게 다녀요?》

《대학 올생각은 않고 그저 입시고사만 쳐봤는데 글썽 300 점을 땀다지뭐냐. 유수학과를 맘대로 택할수 있는 점수가 아니니. 그게 아까와 동네 사람들까지 푼돈을 모아 학비를 보태주기로 했다는거야. 우리 동네에도 잘난 대학생 하나 뒤보자고 말이야.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의젓하게 비쳤으면 그런 동정을 다 받겠니. 우리도 성의껏 대해야지. 그렇지?》

(300 점? 동네사람들까지?)

엄마의 말은 수정이에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다.

숙이 무른 엄마를 탓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엄마 못지 않게 인정이 예린데가 있는 수정이었다. 한창때의 처녀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야무진 말을 내뱉을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가슴에 못이 도였다고 여겨지기라도 하면 곧 제편에서 더 속을 태우는것이였다.

순호에 대해서도 그런 자격지심으로 하여 며칠간은 그의 눈치만 살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어느 때나 시체류행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허술한 잠바를 걸친채 말없이 수격수격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있는 그가 어쩐지 점점 측은하게만 비치는것이였다. 그래서 수정은 자기잘못을 빌기로 했다. 빌지 않고는 숙이 내려가지 않을것 같았던 것이다.

《용서해주세요, 못되게 군걸.》

신문을 뒤적거리던 그가 무슨 말이냐는듯이 쳐다보았다.

《첫날 일 말이에요. 전 원래...》

그제야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뭔소리 하노? 넌 다 잊어뿌렸다.》

그러면서 고개를 쳐들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도 천진스러운지 수정이도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그는 소탈하고 순박한 사람이였다. 자기에 대한 모욕을 새겨두거나 앙갚음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더우기 어떤 경우에도 일부러 티를 내거나 꾸며보이는적이라고는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리숙한 사람은 결코 아니였다. 어떤 땐 오히려 대범해보이기까지 했다.

서울이라는 변화가, 그것도 한다하는 1 류대학을 허술한 막벌이군 차림으로 드나든다면, 또 어쩔수 없이 입에서 막 쏟아져나오는것이 그 거친 사투리라면 약간한 정도는 주눅이 들거나 계면쩍어하기 심상이려만 그는 그런데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더군다나 여유푼전 한일 없이 살아가는 어려운 처지에서 오는 소심성이랄까 렬등감 따위는 찾아볼래야 볼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궁색한 자기 처지를 위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런것은 조금도 수치나 창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였다. 기분이 좋을 때면 목청을 뽑아 《날 좀 보소》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학질을 앓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킁킁거리는 신음소리 같은것이여서 수정은 물론 엄마까지도 배를 그러쥐게 만드는데것이였다.

수정이에게는 그의 이런 점이 우습기도 한 한편 불가사의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만사를 자기가 생각하는대로만, 다시 말해 막 관적으로만 대하는듯한 그였으나 그렇지만은 않다는것을 안것은 얼마후였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시 지워지지 않는 그들이 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수정은 음식을 만들어놓고 그를 청했었다.

《어디 맛좀 보시고 평가해주세요. 급히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평점은 될거예요.》

《이기 뭐라는기고?》

《비프레끼요. 그리고 이건 할바그스레기.》

《넌 듣도 보도 첩이다. 목어도 되는기가?》

《예 어서요. 근데 이건 저가락이 아니라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거예요.》

《패안타. 넌 이기 더 좋다.》

저가락으로 함바그를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던 그였으나 한참만에 돌아보니 벽쪽으로 비스듬히 돌아앉아있는것이였다.

목이 메서 그러는가부다 하고 얼른 물을 떠가지고 다가서는데 이외에도 그의 눈언저리가 별경게 상기돼있었다.

《왜 그러세요?》

《내 이래 좋은거 목고있는줄 우리 어무이 모른다. 이걸 보문 얼마나 좋아할기고. 수정아, 니 고맙데이.》

더 들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의 뒤모

습을 바라보느라니 수정의 가슴도 알알하게 저려 들었다.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가지 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자신으로서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어서 그것을 버리고는 자기한테서 아무런 보람도 재미도 있을수 없는 그런 일에 집착해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일에 무관한 대신 그 하나에만은 몇꼭절이나 더 심취하게 되는것 같았다.

그게 뭘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사로잡는것일까?

하지만 그것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안 수정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요즘 시내에 폐강도가 나타났다는 말 들으셨어요?》

언젠가 집에 들어서는 길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얘기를 그에게 털어놓은적이 있었다.

《글쎄 오늘은 마포, 래일은 신촌 닥치는대로 털어가는데 그게 다 한패당이라잖아요.》

《걱정말그라. 그 노마들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싸 잡아뗄게, 내사 힘이 세이까이.》

그리고는 히죽 웃어보였는데 그런 미소는 그가 뭔가 더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나타내곤하는 버릇이었다. 그는 곧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정아, 니 내가 켈 좋은 운동한다는거 모르제?》

《무슨 운동이게요?》

격점이나 태권도쯤 하는게 아닐까 하고 짐작하는데 그의 대답은 왕청같은것이였다.

《학생운동!》

(학생운동?)

《그 운동만 잘하면 폐강도가 아이러 나라 팔아먹은 진짜 강도 때려잡는다말이다. 폐강도는 가막소에 가뒤흔문 되지만 이노마 진짜 강도는 몽디로 때려죽이뿔기전에는 안되는기라.》

유순하기만 하던 그의 눈이 번쩍했다. 어떻게든 단호한 빛을 뿜는지 수정은 가슴이 선통해지기까지 했다.

(이사람이?)

수정은 새삼스런 눈길로 그를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수정이도 씨클에 몸담고있어 현 《정권》의 부패한 체질과 그로 하여 초래되는 온갖 부조리들에 대해 문외한은 아니었다. 더우기 젊은세대로서의 위치와 사명감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었다.

그의 이런 견해는 주로 씨클을 지도하고있는 기태에 의해 주어진것이긴 했지만 그는 여적 한번도 그의 견해에 의심을 품어본적이 없었다.

그가 알고있는 기태란 학식에서뿐만아니라 사

회현실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런 폭넓은 식견도 식견이었지만 수정은 그가 남달리 선량하다는 측면, 특히 누구보다도 량심적이라는 그 점으로 하여 각별한 호감을 느끼고있었다. 그를 마주할 때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깨끗한 사람이 있을수 있을가 싶었는데 그때마다 자기자신도 한결 깨끗하게 정화되는듯한 감을 느끼곤했다. 바로 그런 매력으로 하여 수정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어길수 없는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터였다.

(투쟁이란 매단계의 목표가 명백하고 그 투쟁에서 성과가 뚜렷할 때면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는것이라고, 때문에 아무때나 투쟁만이 능사라는 관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모르긴 해도 기태가 가르쳐주던 투쟁의 순차성, 그리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학생운동이라는 면에서 따져볼 때 순호의 태도는 어딘가 일면에만 치우쳐있는것 같았다. 순차고 뭐고 당장 무슨 소동을 일으키고야 말 사람같았다.

아니나다를까 대학들에서 투쟁이 시작되자 그는 대변에 판사람처럼 변해버렸다. 시위때 얼마나 구호를 웨쳐대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가려듣지 못할 정도로 목이 쉬어있는가 하면 어떤 땐 경찰들의 주먹에 눈두덩이 통통 부어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한쪽눈을 봉대로 싸맨채로 각종 선전물들과 프랑카드를 만드느라고 또 부산을 피워댔다. 마치 서울에 온것이 대학공부때문이 아니라 시위투쟁을 하기 위해 온것 같은 그를 볼 때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제발 몸 좀 아끼세요. 그러다고 당장 민주화가 되는것도 아닌데... 저도 싸운다는것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예요.》

《뭘라?》

마치 필생의 원썩라도 만난것처럼 꺾끗한 눈길로 쏘아보는바람에 수정은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래 니도 이젠 고등학생이기가. 그란데도 아직 이노무 사회에 대한 징오(중오)도 없단 말이가? 열매나 사람들이 짓밟히고있는지 모른다말이가?》

《그걸 누가 모른대요?》

《그라문 우째 싸우지 않노? 우째 가만 있노 말이다.》

그야말로 리해할수 없다는 식이였다.

리해할수 없기는 수정이쪽이 더 했다. 어쩌면 세상을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두면으로만 보는 걸가? 어쩌면 세상을 단죄 다루듯 무작정 두드려 대기만 하면 바로잡을수 있다고 여기는걸가? 답답했다. 더군다나 자기라는 처녀 하나가 싸우지 않아서 민주화가 되지 않는것처럼 들이델 때면 수정은 더무니없기에 앞서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했다. 특히 수정은 누구보다도 자기주견만 고

집하는 사람 아무 일에서나 사태의 본질을 가리키기에 앞서 덮어놓고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그런 사람을 제일 질시해 마지 않았다.

수정은 그런 불만을 기태에게 털어놓았었다. 서로 학년은 달라도 한학파에 있는것으로 하여 잘 아는 사이였던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에선 론의가 많아. 주류다 비주류다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사회라는것이 어떻게 또 그 구조적 모순이 어디에 기인되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면 천연 누구나 그에 대한 반발이 극렬로 표현되기 쉬운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가 옳다는거예요?》

《옳은지 어떤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리해는 해야 한다는거야》

《전 리해할수 없어요. 그런 사람!》

그때부터 수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호를 대하려고 했다. 이전처럼 텔레비존을 같이 보자고 청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이 없는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쳐놓고 그이상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좀처럼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것이였다. 다른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맘먹은대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었으나 순호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그가 자기가 쳐놓은 경계선을 꺼리낌없이 마주 침범하는가 하면 침범해서는 제때대로 취쳐어놓곤하기때문이였다.

저의 매일처럼 친구들을 한방 가득 불러들여 밤새껏 잠도 못자게 떠들어대는가 하면 자정이 되어 돌아와서도 문을 인차 열지 않으면 《뭇가스나가 그리 깊이 자노, 퍼뜩 깨나거라》 하고 어깨를 철썩 때리기까지 했다. 그 정도면 또 몰라라 《수정아, 내 배고프다. 밥 좀 도와고》하기까지 하는데는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였다. .

(지가 뭐야!)

아무리 싸늘한 랭기를 드러내놓고 풍기여도 남의 눈치를 알아채는데는 영 발바닥같은 사람이여서 도무지 먹어들질 않았다. 그점이 더욱 수정을 화나게 만드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수정을 참을수 없게 만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은 일요일 기태와 함께 만춘의 벚꽃구경을 가자고 약속한 날이였다. 단 둘이서는 처음인 산책,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벗나무밑을 거닐며 자기가 그에게 할 말들과 또 그가 자기에게 함직한 말마디들을 생각해보느라니 수정은 저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 오빠같은 사람이 좋아요. 어쩔래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할가? 수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만은 꼭 하리라 별렀었다.

웃맵시며 화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가면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집에 들어서는 길로 순호

를 만난 그가 먼저 그의 방으로 들어갔던것이다.

한데 곧 나오려니 했던 기태가 한시간이 지나도 그만이였다. 검질긴 순호한테 붙잡혀있으리라 짐작하며 문앞으로 다가서던 수정은 그만 주춤하고 말았다.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순호의 목소리가 심상찮았기때문이였다.

《털어놓고 말합시다. 김형은 우째 이번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는 동참 안합니까.

리유가 뭘니까. 우째 밤낮 정의나 량심같은 케케묵은 소리만 합니까?》

(케케묵은 소리?)

대뜸 이런 반발이 솟구쳤으나 수정은 곧 기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투쟁이란 어떤것이던 나름대로의 요구와 차원이 있는게 아니니. 그런데 난 남북학생회담은 그 자체가 벌써 학생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거라고 생각해. 어디까지나 그건 남북학생들간의 문제이기전에 먼저 남북당국호상간의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거지. 말하자면 옆에 사는 이웃사이에 도 아이들끼리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부모들이 나서야 해결할 그런 문제가 있듯이 말이야.

그런데 부모들이 서로 앙숙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나선다고 문제가 풀리겠나이거야.

물론 나도 투쟁자체가 민중들을 각성시킨다는걸 모르진 않아. 그러나 이번 투쟁은 그런 각성보다 오히려 원천봉쇄를 다짐한 당국의 탄압을 증가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게 뭘겠니? 그래 이제 우리 투쟁에 무슨 리득이지?》

수정은 매사를 분별있게 판단하는 기태라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순호의 대꾸는 여전히 불쾌 소리였다.

《그라든 김형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겁니까?》

《난 학생들이 회담이나 하고 체육경기나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거나 그 전망이 열린다고는 보지 않아. 우리의 통일은 그보다도 아직까진 국제적인 력학관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봐.》

《국제적인 력학관계? 알겠심더. 김형이 어떤 사람인가 인제야 알겠심더.》

한숨처럼 토해내는 순호의 목소리였다.

《바로 그래 생각하이게 우리 투쟁에 동참못할 겁니다. 할수없다 이말입니다. 김형은 국제적인 력학관계, 다시말하든 외세가 우릴 통일시키는 변수라카는데 바로 그 외세때문에 통일이 안된다고는 우째 생각 못합니까. 그 외세라카는기 짝어 말하든 미제국주의입니다. 양키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북학생들과 만나겠다고 판문점 사용허가서를 냈는데 그걸 누구한테 냈는지 압니까? 미군사령관입니다. 우린 그걸 내면서 올렸심더. 우리 땅에서 우리끼리 만나는데 미국놈 승인을 받아야 하는기 억울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란데도 김형은 우짜문...》

《...》

《하기사 남북을 이웃이라카는 김형인끼네 그레 밖에 생각못할겁니다. 그레 이북이 이웃입니까?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피를 가진 외국사람입니까? 말해보이소. 그레 김형한테는 한사람 몸이 두동강 난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동강난 몸띠이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있는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말입니다.》

제발 이젠 김형은 지가 조선사람이라카지 마이소.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카지 말란 말입니다. 량심 량심카는데 량심이라카는 말은 입밖에 내지도 마이소. 눈물이 나옵니다. 그란 김형을 보이끼네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

울부짖는듯한 순호의 목소리에 뭔가 몽클한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수정이었으나 당장은 그에 대한 반감에 더 사로잡혔다. 무작정 기태를 옹호해주고싶은 충동이, 아니 옹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모든것을 무시해버리는것이였다. 더우기 다른것이면 몰라라 그의 량심에 대해 운운하는데는 참을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순호씨 자기만이 옳다는건가요?》

불시에 방안에 뛰어들어 야무진 눈길로 쏘아보는 수정으로 하여 순호는 물론 기태까지도 눈이 둥그래졌다.

《어째서 자기만이 통일을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거예요. 조선사람이면 말이예요. 그리고 어째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의 량심을 함부로 모독하는거예요?》

마치 영문모를 뺨을 얻어맞기라도 한듯 순호는 어안이 병병해있기만 했다.

《그라든 량심이 있다말이가?》

《있지 않구요.》

《이 봐라!》

미간을 찌프린 그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가며 말했다,

《누구나 말로는 다 통일을 바란다고, 량심은 있다카지만 그렇게 맘속에 품고있는기 량심이 아닌기라. 지식도 실천을 위해 있는것처럼 량심이 란것도 행동으로 나타내야 진짜 량심인지라.》

《글쎄 그런 걱정은 자기에게나 하란 말예요.》

그날 벚꽃이 만발한 창경원을 거닐면서도 기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것처럼 침울한 기색을 보이는 처음이였다. 이말저말을 꺼내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런 기태의 모습을 볼수록 수정은 재삼 순호에 대한 불만이 솟구쳐올랐다. 그에게 하려고 미리 골라놓았던 말들과 그에게서 듣고싶었던 대답들이 모두 수포로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니 다시한번 순호를 꼬집어 찔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지금은 멋모르고 날뛰지만 한번 붙들리기만 하면 투쟁이고 량심이고 다 집어던질거예요. 순호씨 말이예요. 그렇지요?》

묵묵히 걸음만 옮기던 기태가 한참만에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안야, 개는 말야... 말이나 행동이 다 거칠지만 그속엔 뭔가 피하지 못할 진실이 있어. 피롭지만 난 그걸 느끼지 않을수 없어.》

《진실은 무슨 진실요!》

순호에 대한 그의 두둔이 수정으로 하여금 더욱 이런 말을 내뱉게 했다.

5월이 지나고 6월에 접어들자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온 시내를 휩쓸었다. 그럴수록 《원천봉쇄》를 다짐한 《치안당국》의 기세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어떤 무서운 힘이 점점 팽팽해 간다는것을, 미구하여 그것이 굉장한 압력으로 폭발하고야 말리라는것을 누구나가 감촉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석간신문을 펼쳐들고 대학생들의 투쟁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수정은 그만 소스라치고 말았다. 체포된 사람의 명단에 다름아닌 기태의 이름이 있는것이 아닌가! 김기태, 아무리 여겨봐도 틀림없는 그의 이름이였다.

(설마?)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집에 전화를 건 그는 더한 절망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도 의심할 때 까지는 혹시나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나 그의 구속이 틀림없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자 마치 자기가 매달리고있던 한가닥의 바줄마저 끊어진듯한, 그래서 천길 아득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듯한 전율에 몸서리쳤다.

세상 착하기만한 그, 그 어리고 하얀 피부가 악착한 고문에 찢기고 터지는걸 상상하느라면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오곤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던 말인가! 어째 자기로서도 무모하다고 했던 그 투쟁에 나섰단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수록 그 의문의 화살은 곧 하나의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것이였다. 그 과녁은 바로 순호였다. 것처럼 이번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기태를 몰아세우던 그, 그 순호의 무분별한 절규가 그에게 어떤 자학의 감정을 자초케 했고 그리하여 무모하다는걸 알면서도 그는 투쟁에 나섰으리라.

이런 짐작이 들자 그것은 곧 어쩔수없는 사실로 굳어졌다. 또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의 다른 요인이라고는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을것 같았다.

그런데 이처럼 투쟁에 대해 열렬하게 부르짖던

순호. 당장 영웅이라도 될것처럼 떠들던 그 자신은 도리어 지금 어딘가에 몸을 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기태를 몰아넣고 자기는 교활하게도 숨어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제 말이 틀려요?》

수정은 엄마한테라도 화풀이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 두고보라고, 급할 땐 투쟁이고 량심이고 다 집어던질것이라고 했지만 기태오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아직 모르지 않니.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는게 안야.》

《그러니 엄만 아직도 그를 믿는다는거예요?》

마치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는것처럼 그날저녁 순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던것이다.

《수정이가? 니만 알고 있그라. 내 이제 좋은데 간다. 갔다오몬 다 말해주께.》

자책은커녕 자못 기쁨에 떠있는듯한 그의 목소리에 수정은 숨이 다 막혔다.

《도대체 량심이 있어요? 있나말이에요. 그래 순호씨가 말하던 량심이 그런건가요?》

《니 뭘소리 하노?》

《무슨 소리가 뭐예요? 남들은 체포되게 해놓고 자기만 피해다니면서 그것도 좋은데 간다구요? 사람이 어쩔... 뻘어요, 긴말하지 않겠어요. 당장 집에 와서 짐을 싸들고 나가주세요. 아시겠지요?》

수화기를 내동댕이치기바쁘게 수정은 엄마를 쏘아보았다.

《...》

그제야 엄마도 묵묵부답이었다.

조심스럽게 울리는 초인종소리가 들린것은 다음날 저녁이었다.

마음을 다잡은 수정은 분노에 박차를 가하며 문을 열어제꼈다.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니?》

문앞에 서있는 사람, 창백한 얼굴에 깊숙이 패여들어간 눈썹, 체격까지도 이전보다 한둘레 더 줄아들어보이는 사람은 바로 기태였기때문이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말조차 할수 없었다. 입을 벌리면 울음이 터질것만 같아서였다. 안으로 들어 가자고 이끌었으나 왜서인지 그는 한자리에 서있기만 했다.

《저 순호가 집에 돌아오지 많았어?》

《...? 아니요, 그건 왜 물어요?》

그제야 수정은 고개를 숙인채 서있는 그의 얼

굴에 어떤 고민이, 여태까지 본적이 없는 그런 깊은 고민이 어려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느라니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온 몸을 엄습하는것이였다.

《수정이...》

목소리조차 판사람처럼 느껴졌다.

《난 사실 이제 수정이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뒤늦게나마 우리의 투쟁이 어때야 한다는걸 깨닫고 시위에 나섰지만- 결국...》

수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어떤 나사에 감기는 악기의 현처럼 각길각 뽕뽕하니 조여지고있다는것만은 똑똑히 깨달을수 있었다.

《결국 난 비밀을 털어놓고 만져야. 고문에 못 견뎌서 말이야. 판문점으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걸, 그게 바로 순호라는걸... 만약 순호가 체포된다면 그건 나때문에...》

수정은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일시에 얼어붙는것 같기도 했다. 그가 무슨 말을 더했는지 또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이제껏 자기 마음을 조이던 그 현이 일시에 툭 하고 끊어져나가는것을 느꼈을 따름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흔히 지나친 충격에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한참 후에야 어떤 사태가 빚어졌는가를 알아차리듯이 그도 얼마후에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러나 차마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수가 없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던것이다.

(안야! 그럴수 없어! 절대로!)

그는 이 부르짖음이 민어마지 않던 기태에 대한 미련때문인지 아니면 질시해오기만 했던 순호에 대한 자책때문인지 아니면 또 너무나도 분별을 가리지 못했던 자기자신에 대한 회오때문인지는 저로서도 알지 못했다.

수정은 줄곧 방안에만 들어박혀있었다. 책들을 펴놓기는 했지만 글줄을 읽는것도 아니였고 창밖을 내다보기는 했지만 화단에 핀 꽃들을 보는것도 아니였다.

《기태가 순호를 배반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것처럼 량심적이라고 믿었던 기태가 배반자라는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그가 배반한것은 순호라는 한 인간만이 아니라 자기가 것처럼 내세우던 량심이 아닌가! 그가 자기절로 찾아와 고백한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선지 믿고싶지 않는것이였다. 사실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만치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누구였단 말인가! 그런데 그가 어째서 량심을 저버린것일까?

수정은 점점 더 알지못할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어떤 번개같은 섬광이 뇌리를 치는바람에 그는 소스라쳤다. 그것은 언젠가 량심에 대해 웨치던 순호의 절규였다.

《맘속에 품고있는기 량심이 아인기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진짜 량심인기라!》

(맘속에 품고있는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것?)

그 말을 되새기던 수정은 가슴을 치는 충격에 또한번 놀랐다.

그러니 그의 말은 량심은 행동에 있다는것이 아닌가! 행동으로 나타나는것만이 진정한 량심이란것이 아닌가! 량심과 행동은 별개의것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 아닌가!

마치 어떤 새로운 진리라도 발견한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따져보면 순호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어떤 생각도 생각자체에 머무르거나 어떻게 해야 할가 하고 망설이는적이라고는 없었다. 량심이 가리키기만 하면 무엇 하나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량심이란 행동이였고 행동으로 증명되는것이 곧 량심이였다. 세상을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두 측면으로만 구별한다고 탓했던 그 단순성이 바로 남들에게는 없는 그의 깨끗한 량심이였다. 정녕 그런 량심이야말로 진정한것이 아닌가!

(그런데 기태는? 또 나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자기들이였다. 현실에 대한 온갖 모순들과 부조리들을 느끼긴 하면서도 말만 하였으니 이거야말로 실제상 수수방관한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걸 모르는바도 아니지만 단 한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본적이 없는 자기였다. 그러면서도 량심만은 언제나 깨끗하다고 자부해오지 않았던가!

부끄러웠다! 그런 자신이 가소로왔다.

(안야! 그건 량심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거야. 왜냐하면 나같은 사람이야말로 자기 량심을 속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제야 수정은 모든것이 2 중으로만 보이던 자기의 눈에 이젠 점차 하나로, 명백한 초점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것을 느꼈다. 아니 여태껏 답답한 움속에 움츠리고있던 자기가 이제야 비로소 밖을 내다보는것 같았다.

(그래! 더는 그렇게 살수 없어, 이젠 나에게도 량심이 있다는걸 보여주어야 해!)

이런 생각에 이르자 수정은 아직 한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흥분에 휩싸였다.

늘 입던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을 때까지도, 관문점으로 향하는 통일선봉대의 발대식이 거행되는 대학광장으로 달려올 때까지도 그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시위군중들속에 섞여 절망을 뒤집어 쓰고 마주 서있는 전투경찰들을 보느라니 더더욱 견잡을 수 없는 심정이였다. 마냥 가슴속에는 행동하고 싶고 투쟁하고싶은 열망이 용솟음쳤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멀리에 있는 순호를 보자 그 열정은 대번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것이였다. .

《순호오빠!》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대오의 맨앞까지 나간 수정은 다짜고짜 연설을 마치고 내려서는 그의 팔에 매달렸다. 미처 자기가 오빠라고 불렀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두눈을 슴뻑이던 순호였으나 곧 씩하고 웃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쳐...》

《뭘소리 하노? 그란 말 말그라. 내 니 마음 다 안다. 이렇게 투쟁에 나서리란것도 알고있었고.》

목덜미를 훔치며 싱글거리던 그가 갑자기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 속삭이는것이였다.

《니 바지 입은게 더 이쁘데이.》

수정은 그 말이 자기 마음을 가져주기 위해서라는걸 모르지 않았다. 그럴수록 가슴은 더 미여지기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도 괜찮아요? 수배당하고 있으면서...》

《그라운 숨어있으라 말이가?》

언제나처럼 대뜸 미간을 찌프리는것이였다.

《넌 그래 못한다. 이노마들이 아무리 막아나서도 내 관문점에 갈기다. 봐라, 이기 이북대학생들한테 줄 편지아이가. 참! 니 김형 만나봤노?》

《...》

너무도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한 수정은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혹시 그에 대한 사무친 원한으로 하여 벼락같은 소리라도 치지 않을가싶은 위구가 갈마들었던것이다.

《욕하지 말그라. 날 꼬자바친 김형이 나쁜기아이라 이노마 세상이 나쁜기라. 그라고 김형도 이젠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걸 똑바로 알았다 말이다. 통일을 위해 싸우면 누구나 다 형제가 되는기 아이겠노. 저기 봐라!》

수정은 그가 가리키는쪽을 돌아보았다. 선두대렬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며 구호를 웨치고있는 기태의 모습이 사람들사이로 얼핏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도 모습이였지만 보다는 기태를 위해주는 순호의 마음에 더 가슴이 뭉클해진 수정이였다. 어쩐지 자꾸만 눈시울이 달아오르는것이였다.

《얼매나 멋있노. 어느기 좋은가 하는걸 안 다 음에는 저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바로 저

런 사람이 대장부아이가, 스나(사내)대장부! 가
거라. 니 내열에 있기보다 김형열에 있어야 더
힘이 나서 잘 싸울기다.》

수정은 저도 모르게 두손에 얼굴을 묻고 말았
다.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막을길이 없었던것이
다.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순호의 모습은 보
이지 않았다.

어느새 손마이크를 움켜쥔 그가 움직이기 시작
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주먹을 부르짖채 하늘을 쳐다보며 그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를 터뜨리는 그를 보느라니 수정은
어때것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온몸에 솟음처
울랐다. 그러면서 방금 한 그의 말이 다시 상기
되는것이였다.

《바로 저런 사람이 대장부아이가 스나대장부!》

어떤 힘에 이끌리듯 수정이도 옆사람의 어깨를
결고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힘찬 노래소리는 맑게 개인 6월의 창공을 오려
도록 진감시키고있었다.

수필

나는 언제면 철이 드는가

문상봉

시내가 여울목에 덤장을 놓고 침병대며 고기를
물던 나는 후더운 비방울이 뺨을 아프게 때리는
느낌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꿈에서 깨어나니 바늘실을 물어끓던 어머니가
눈물속에 지켜보고있었다. 손에는 세찬 갈괘질바
람에 한뼘이나 찢긴 나의 새 교복바지가 천근무
게로 매달리였다. 머리말엔 초저녁에 끄적거리던
숙제장이 펼쳐진채로 덩굴고...

그때 내 나이 여덟이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퍽퍽하게 질리다못해 재빛으
로 변했다. 어린 마음에도 감히 마주 못볼 눈길
이어서 나는 다시 굳잠이 든척 슬며시 돌아누웠
다.

방안에는 바늘뚝 누비는 소리만이 한동안 사룩
거렸다.

눈은 감았으나 천만시름이 비낀 어머니의 모습
이 뇌리를 치고 늘 듣던 꾸지람이 귀가에 쟁쟁했
다.

《넌 언제면 철이 들겠느냐?》

그날밤은 좀처럼 잠을 이어떨수가 없었다. 불
안감과 죄스러움이 사그라들만하자 다음에는 조
급함 과 안타까움이 나의 좁은 가슴을 휘젓기 시
작했다.

(나도 어머니만큼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가?)

흐르는 날과 달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졌다.
세월과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고싶었다. 하루밤사
이에 어른이 다 된 아들을 보고 와플 놀라는 어

머니를 환각속에 그려보기도 하였다.

부질없는 공상의 날개를 접고 이번엔 건설장에
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강구였다.

터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원썩들이 불사른 내 고향 폐허에

...

전쟁을 치른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재더
미우에 불사신같이 일떠서던 때였다.

그렇지만 나는 노래를 속으로 따라외우면서도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허빈 그 눈물은 이해하
지 못하였다.

한개의 나사못도 귀한 시기였으나 아이들은 구
김살없게 키우자고 좋은 천으로 교복을 만들어준
크나큰 사랑의 깊이는 더더욱 헤아릴수 없었다.
어머니에 비할바 없이 위대한 품의 파사로움을
...

그 시절엔 미처 몰랐었다.

내가 받은 첫 소년단표창장을 액틀에 끼워 가
보인양 벽에 걸어놓고 환하게 웃음짓던 어머니의
그 마음울...

하다면 세월의 언덕을 넘고넘어 어른이 된 오
늘에 와서 과연 철이 들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이따금 자신에게 하고는 남
모르는 고충과 모태김속에 빠져들곤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도리가 있고 의리를 지킬줄 알아야 합니다.》

음미할수록 사색을 끝없이 승화시키는 말씀이다. 이밤도 나는 그 심원한 뜻을 되새기며 대동강변을 조용히 거닐고있다.

얼마전까지 만해도 나는 사물의 리치를 가려보는 힘이 생기면 철이 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해석한 글은 책에서도 여러번 보았다.

하지만 생활은 사리를 가려볼줄 알뿐만아니라 사람구실을 해야 진실로 철이 든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제구실을 다 하자면 무엇보다도 도리를 알고 의리를 지킬줄 알아야 하는것이다. 우리 시대의 인간관계가 낡은 이 보편적인 진리를 나는 오늘 퇴근후에 고향의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로 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몇시간전 고향에서 이웃에 살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섰다.

삼시에 집안은 반가운 소동으로 떠들썩거렸다. 친척이 발은 우리는 마을의 첫 관리위원장이었던 그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었다.

《오신다구 전보라도 치시지 않구...》

안해는 행주치마를 서둘러 두르며 마중 못한 아쉬움을 거두지 못한다.

《전보는 무슨 전보, 마음에 날개가 돋쳐 오는 데 거시기 저녁밥은 천천히 하구 여기 앉아라.》

할아버지는 우리를 자리에 앉히며 수북한 장미를 쫓겼했다. 무슨 긴한 말을 하기전에 늘 그랬었다.

《내 지금 당중앙에 들렀다 오는 길이다.》

《??...》

로인은 아들애를 무릎에 올려안고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실황이 방영된후 고향마을의 오랜 당원들은 약속없이 한곳에 모여앉았다. 하나와 같이 심각한 얼굴들이였다. 당대회주석단에 높이 모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다시 그려보는 그들의 가슴은 미여지는듯했다.

《우리가 제구실을 못하고있소. 그분의 신색이 그처럼 촉가신것두 모르구있다니...》

누구인가 가슴을 쿵쿵 치며 숨막힐듯한 침묵을 깨뜨리었다. 이제는 태성할머니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때처럼 나라사정이 어렵지도 않고 종파들의 쏠라닥거림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로당원들은 불현듯 떠오르는 뜨거운 생각으로 눈시울을 붉히었다.

인민의 행복위해 한평생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한몸에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혁명사업을 시작하신날부터 언제한번 단 한순간도 휴식한적이 없으시였다. 뜨는 해를 집무실에서 맞으시고 지는 달을 실무지도의 길에서 보내시고...

이윽고 당원들은 심장의 결의를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생활에 대하여 더는 심려를 안하시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평도를 충성으로 받드는것.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것.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것 등등...

다음날부터 고향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온 나라가 충성의 열풍으로 끓어번지였다. 이 거창한 시대의 숨결로 하여 이 땅에는 80 년대의 새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었던것이다.

《...나라를 위해 별루 한일두 없는 나에게 당에서는 공로보장의 혜택을 안겨주었다. 3년전에 말이다. 아직 오륙이 성한 사람에겐 너무도 과분한 배려이지! 량심이 다소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냥 앉아서 놀수 있겠니. 우리 수령님께서 아직 걱정이 많으시여 바람부는 논밭머리에 계시구, 친애하는 그이께서 잠을 못이루시는데! 그래서 심산속을 누비기 시작했다. 몇년을 참빫훔듯 했지만 쓸만한 산삼이 나타나야지. 안타깝기란...그런데 오늘 새벽 너희들도 잘 아는 효자바위 중턱에서 몇백년 실히 자란 한쌍의 산삼을 발견했다. 신기하게두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말이다.

온 동리가 환성을 올렸다. 고향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안구 내가 평양으로 달려왔지...》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맺었다.

속연한 정적속에 강한 충격의 여파가 나의 흥벽을 오래동안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삶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 드팀없는 신념은 가장 뜨겁고 깊은곳에 뿌리

를 든것으로 하여 것처럼 열렬하고 순결무후한것이 아니겠는가!

저녁상을 물린후 할아버지는 애들과 웃고 떠들다가 자리에 누웠다. 인침 코를 골았다.

그러나 나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끝내 대동강가로 나왔던것이다.

서늘한 강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풀새의 울음소리가 때아니게 들려온다. 저놈도 혹시 구실 못한 피로움에 시달리다가 동지를 뒤흔친것이 아닌지?...

부끄러운 일이다. 태어나서부터 부러움을 모르고 자란 나였다. 알고 받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은 사랑이 너무도 많은 나였다. 허나 무수한 인생년륜에서 빛이 나는것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

과연 내가 수령님의 심려를 안고 불면불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수고를 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린적이 있는가? 고향사람들처럼 가식없고 변심없는 충정을 깨끗하게 바쳐왔던가?...

결국 나는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도 아직 헤아릴줄 모르는 어제날의 응석받이 그대로였다. 구실을 못하는 부실한 자식이였다.

그리고보면 인민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내놓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작가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부러웠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성과작을 쓸수 있을까.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밤은 바닥없이 깊어가고 나의 생각도 끝간데를 모른다.

우리 당의 담력과 의지로 길들여진 대인공호수에 락원으로 꽃피난 강산이 그림처럼 비꼈다. 우리를 밝히는 주체사상탑의 봉화, 인민대학습당의 합각지붕, 평양산원, 5월 1일경기장, 창광거리, 문수거리 등 시대의 기념비들... 그 황홀한 신비경속에 내려앉은 하늘의 못별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흐느적이며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가싶다.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 찬연한 빛을 뿌리

는 주체의 향도성, 사랑과 믿음의 화신에 대한 경이적인 전설, 충성의 귀감으로 조선을 이끄시여 영광의 80 년대를 만대에 빛내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당중앙창가를 경건히 우러른다. 거기에서는 새날을 앞당기는 불빛이 휘황하게 흘러나오고있었다.

(아직도 집무를 보시는구나!!...)

이룰데 없는 송구스러움이 가슴에 그들먹히 차오르고 눈굽은 찢릿하게 젖어든다.

정녕 나는 언제면 철이 드는가?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작품을 더 빨리 써낼것인가?...

안타까이 모대기며 눈물속에 당중앙창가를 오래도록 우러르는데 깜박하고 불빛이 사라졌다. 나는 숨가쁜 환희속에 몸을 떨었다.

아! 나는 뿌예진 망막을 비비고 다시 우러르었다. 이 시각이 천년같이 길어졌으면, 단 한번이라도 그이께서 시름없이 편히 주무셨으면...

허나 아이에 가까운 이 기원도 순간이었다. 벌써 날은 환하게 밝았던것이다.

뜨거운것이 주르르 나의 량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철부지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려는듯 끝없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문득 나의 뇌리에 섬광처럼 비껴드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만사람의 운명이 한피줄로 련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부단히 승화되는 인간륜리였다. 그 불멸의 인간륜리가 이렇게 속삭이는듯싶다.

《이제라도 순간순간을 천년맞잡이로 살아 너를 안아 키워주고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에 효자가 되여라.》

언제 어디서나 자식된 도리와 의리를 잊지 않고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 바로 이것이 내가 철이 드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 값높은 인생의 령마루를 향해 나는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